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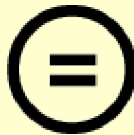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메모리얼 뮤지엄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분석에 관한연구

**Study on Analysis of Expression Elements of Multi-layered
Memory in the Memorial Museum Space**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건축설계전공

조 정 윤

2019년 2월



HONGIK UNIVERSITY



메모리얼 뮤지엄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분석에 관한연구

**Study on Analysis of Expression Elements of Multi-layered
Memory in the Memorial Museum Space**

지도교수 공 순 구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건축설계전공

조 정 윤



HONGIK UNIVERSITY



조정윤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장 (인)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HONGIK UNIVERSITY



메모리얼 뮤지엄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분석에 관한연구

Study on Analysis of Expression Elements of Multi-layered
Memory in the Memorial Museum Space

지도교수 공 순 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건축설계전공

조정 윤

메모리얼뮤지엄(memorial museum)이란 기념물, 기념비, 기념관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쓰인 용어이다. 뮤지엄건축은 종교적, 정치, 경제를 반영한 시대정신을 가지고 건축을 전이·진화시켜 왔으며, 그 건축의 유형(類型)과 진화는 그 자체가 예술적 가치와 후세 교육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시대의 집단적 기억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적 장소에서 추모의 장소, 추모의 장소에서 회상의 장소를 넘어 이른바 기억의 장소에서 문화적 의미와 사회적 맥락이 다층적 기억에 의해 해체, 전이, 변형, 왜곡되어 현 뮤지엄의 건축과 공간의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한 시대의 기념관, 기념비는 그 나라의 역사와 민족의 공간적 시간의 경험과 희망적 장소로의 전이와 후세대들의 기호학적 다양한 예술형태로 교육의 장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현대 메모리얼뮤지엄에서 다층적 기억에 의한 유형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새로운 양산이 알 수 없는 형태의 무의미한 건축변형과 장소의 역사적 맥락을 해치고, 의미 없는 교육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양산을 장소의 기념과 교육의 의미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키고, 예술적 가치와 후세 희망적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 본 연구의 다층적 기억에서 나타나는 표현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이후 메모리얼뮤지엄 설립 시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 연구의 논문이 필요하리라 본다.

메모리얼뮤지엄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분석은 본 연구에서 1차 선행 논문과 기타 문헌고찰을 통해 현대 뮤지엄의 건축, 공간의 공통적 표현요소를 분류하였고, 2차 이 요소를 통해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요소인 기념적, 전이적, 기호학적 표현요소로 분류 정의하여, 3차 건축적 표현요소와 공간적 표현요소를 다시 분류하여 분석표를 작성하였다.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표현요소 분석으로 기념적 메모리얼 같은 경우 기억의 행위인 회상과 기념을 통해 문화적 형태인 추모가 나타났으며, 전이적 메모리얼에서는 기억의 행위가 해체, 전이를 통해 문화적 형태인 진화가 나타났다. 기호학적 메모리얼에서는 기억의 행위가 다층, 기호를 통해, 다원성 기호적 표현의 문화적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선정으로는 장소적 역사의 집단기억이 표출된 뮤지엄과 사건을 통한 기억의 전이가 표출된 뮤지엄으로 2009년에서 2018년까지 국외 8가지와 국내 4가지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 12가지의 사례분석표를 통해 기념적 메모리



얼, 전이적 메모리얼,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요소가 현 메모리얼뮤지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설립 시 그 의의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분석표에 의해 분석한 결과 기념적 메모리얼에서는 모뉴먼트, 유적지 재구성, 장소적 확산의 요소가 많이 나타났으며, 전이적 메모리얼에서는 조형성 실험성, 시각적 메모리 요소가, 기호학적 메모리얼에서는 상징성적 다원성, 공간의 분절과 재결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바탕으로 다층적 기억의 분석표에 의한 사례조사에서 메모리얼뮤지엄 표출유형의 의미와 표현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념적 메모리얼에서는 단절된 공간에서 희망적 장소로의 탈바꿈이다. 기념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인 모뉴먼트, 유적지 재구성, 장소적 확산의 요소가 많이 나타났으며, 장소의 집단적 기억의 공감과 후대 교육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사례 중 로마니티박물관은 유적과 아레나(Arenas) 사이의 연결고리인 2,000년의 역사적 기억을 담고 있는 사이트로써 박물관의 건축적 창의성 및 주위 배경과의 일관성, 과거를 확장하는 고고학적 정원은 시각적 개방과 접근을 가져다주어 기념적 메모리얼에서 장소적 기억의 기념공간이다. 이 기념공간은 건축물을 통해 과거의 역사적 배경을 아트리움의 옥상정원까지 끌어올리며, 곳곳에 역사적 배경을 시가적공간감으로 과거와 미래의 재결합의 상징성을 보여주며, 동시적 교차점에 서게 하여 시각적 메모리를 선사한다. 로마니티박물관은 장소적 기념공간을 넘어 시대를 대변하는 창의적 건축물로써 건축적 표현방법, 자연과 주위의 조화방법, 시민들의 공유공간 등을 어떻



게 표현하였는지에 대해 단절된 공간에서 희망적 장소로의 탈바꿈에서 좋은 사례이다.

둘째. 전이적 메모리얼에서는 집단적 경험의 공간이 창의적 공간으로의 확대이다. 전이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인 조형성 실험성과 시각적 메모리의 요소가 많이 나타났으며, 그 역할에 있어 특히 트라우마적 장소의 의미는 그곳을 찾는 이들이 회상과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므로 회상의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 역사 및 장소와 관련된 문제들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회상의 장소에서 기대하는 바는, 정보가 주는 초월적 감성 대입으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인식의 강화이며, 집단적 경험의 전이에 중요한 교육적 차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례 중 911 메모리얼 & 뮤지엄의 빛과 어둠, 과거와 현재를 한 공간에서 다시 새로 그리면서 추모와 희망의 장소를 어떻게 묶을 것인지에 대해 잘 표현한 곳이다. 분리된 시간의 흔적들과 조각들 글라스 파빌리온의 두 개의 타워를 연상시키는 시퀀스 연출과 지하 공간의 시간여행, 잃어버린 3천여 명의 생활이 현재 도시인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트라우마의 장소가 창의적인 공간 장소로 진행되고 있다.

셋째. 기호학적 메모리얼은 과거로부터 새로운 해석으로 다원적 문화융합, 소통의 공간, 조화로운 공간의 공유에 있다. 이는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상징성적 다원성과 공간의 분절과 재결합의 요소에 많이 나타났으며, 현시대의 다양한 문화와 시각의 새로운 해석과 공유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사례 중 티르피츠 박물관 같은 경우 어두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거대하고 묵



직한 히틀러가 지은 땅속 벙커를 높고 낮음, 더위와 추위, 밤과 낮, 시간의 흐름이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새로운 장소로 탄생시켰다. 전쟁의 흔적,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실제 벙커 안을 경험하면서 사건속으로 들어가며, 체험적 경험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 벙커 사이로 나오는 빛은 마치 하늘에 보내는 신호처럼 과거의 기억을 다시 새로운 기호로 해석하여 현시대와 조화롭게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로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새로운 메모리얼뮤지엄의 양산들이 그동안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으며, 현 메모리얼뮤지엄 공간분석이 가능하도록 실제로 관련이 있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메모리얼뮤지엄 계획에서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여, 장소적 맥락과 다양한 문화공간이 공유 및 보완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창의적이고 희망적인 탈바꿈되는 공간이 교육적인 차원으로 이어지는 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연구결과는 향후 추진하는 메모리얼뮤지엄에 관련 건축설계 및 공간디자인 연구, 학술연구에 있어 다양한 공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 례

국문요약

그림차례

표차례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1.3 연구의 체계	7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9
2.1 다층적 기억의 정의	11
2.1.1 다층적 기억에서 다층적 범위	11
2.1.2 활력으로서의 기억	19
2.1.3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진화원리	23
2.1.4 다층적 기억의 매체에 대한 고찰	26
2.1.5 다층적 기억과 메모리얼 매체로서의 건축	30
2.2 현대 메모리얼의 건축과 공간의 변화	35
2.2.1 현대 메모리얼 건축의 사례와 메모리얼 구현방식	39
2.3 선행 논문을 통한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요소분류	47
2.3.1 기념적 메모리얼의 선행논문 분석	47
2.3.2 전이적 메모리얼의 선행논문 분석	50
2.3.3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선행논문 분석	54
2.3.4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특성 요소에 의한 설계도	57



제 3 장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와 표현요소 59

3.1 기념적 메모리얼 정의 및 표현요소 분석	61
3.1.1 기념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 - 회상, 기념, 추모	61
3.2.2 기념적 메모리얼 대표사례	62
3.2 전이적 메모리얼 정의 및 표현요소 분석	64
3.1.1 전이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 - 해체, 전이, 진화	64
3.2.2 전이적 메모리얼 대표사례	65
3.3 기호학적 메모리얼 정의 및 표현요소 분석	69
3.1.1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 - 다층, 재결합, 다원적 기호	69
3.2.2 기호학적 메모리얼 대표사례	73
3.4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가 적용된 분석표	76
3.5 소결	77

제 4 장 다층적 기억의 공간 유형에 따른 사례분석 81

4.1 다층적 기억의 건축적 요소를 활용한 사례분석	83
4.1.1 장소적 역사의 집단기억이 표출된 메모리얼 뮤지엄	83
4.1.2 사건을 통한 기억의 전이가 표출된 메모리얼 뮤지엄	85
4.1.3 사례선정	87
4.2 기념적 메모리얼 사례분석	88
4.2.1 뉴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88
4.2.2 파블로프 고고학 박물관	92
4.2.3 니메스 로마니티 박물관	99
4.2.4 전곡선사박물관	104



4.3 전이적 메모리얼 사례분석	110
4.3.1 내셔널 9.11 메모리얼 & 뮤지엄	110
4.3.2 독일 드레스덴 군사 박물관	118
4.3.3 흑인역사박물관	122
4.3.4 제주4.3평화 기념관	126
4.4 기호학적 메모리얼 사례분석	132
4.4.1 슈체친 국립 박물관 분관	132
4.4.2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	138
4.4.3 티르피츠 박물관	142
4.4.4 노근리평화기념관	148
4.3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종합분석	154
 제 5 장 결론	159
5.1 연구의 결론 및 의의	161

참고문헌

Abstract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흐름도	7
〈그림 2-1〉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진화원리	23
〈그림 2-2〉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진화원리와 특성	25
〈그림 2-3〉 Jewish Museum Berlin, Germany Completed	40
〈그림 2-4〉 Jewish Museum Berlin, Germany Completed 내부	41
〈그림 2-5〉 Jewish Museum Berlin, Germany Completed 상징성	42
〈그림 2-6〉 La Grande Arche	44
〈그림 2-7〉 National September 911 Memorial & museum	45
〈그림 2-8〉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특성요소 설계도	57
〈그림 3-1〉 기념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	60
〈그림 3-2〉 New acropolis Museum (Barnard Tschumi)	63
〈그림 3-3〉 9.11 Memorial & Museum (Daniel Libeskind)	65
〈그림 3-4〉 Museum of the second world war (Studio Architektoniczne Kwadrat) ...	73
〈그림 3-5〉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특성요소 설계도	79
〈그림 4-1〉 사례뮤지엄 분석표	87
〈그림 4-2〉 New Acropolis Museum 전경	88
〈그림 4-3〉 Archeopark Pavlov Museum 전경	92
〈그림 4-4〉 Archeopark Pavlov Museum 공간구조	93
〈그림 4-5〉 Musée de la Romanité de Nîmes 전경	98
〈그림 4-6〉 Musée de la Romanité de Nîmes 배치도	99
〈그림 4-7〉 Musée de la Romanité de Nîmes 공간의 시각적 배경	101
〈그림 4-8〉 전곡선사박물관 전경	104
〈그림 4-9〉 전곡선사박물관의 낮과 밤	105



〈그림 4-10〉 전곡선사박물관의 내부 공간	106
〈그림 4-11〉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전경	110
〈그림 4-12〉 그라운드 제로(좌), West Chamber(우)	112
〈그림 4-13〉 그라운드 제로의 추모 연출	114
〈그림 4-14〉 Transportation Hub	115
〈그림 4-15〉 Dresden Museum of Military 전경	118
〈그림 4-16〉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전경	122
〈그림 4-17〉 워싱턴 D.C 내셔널 몰 안의 조감도 및 모형도	123
〈그림 4-18〉 제주4.3평화 기념관 전경	126
〈그림 4-19〉 제주4.3평화 기념관 배치도	127
〈그림 4-20〉 제주4.3평화 기념관 배치 축	128
〈그림 4-21〉 제1관에서 제6관의 공간 사진	128
〈그림 4-22〉 National Museum in Szczecin Dialogue Centre Przelomy의 전면과 후면 ...	132
〈그림 4-23〉 National Museum in Szczecin Dialogue Centre Przelomy의 장소 형성과정	133
〈그림 4-24〉 National Museum in Szczecin Dialogue Centre Przelomy의 배치도 ..	134
〈그림 4-25〉 MUSEUM OF THE SECOND WORLD WAR 조감도	138
〈그림 4-26〉 TIRPITZ MUSEUM 조감도	142
〈그림 4-27〉 TIRPITZ MUSEUM 배치도	143
〈그림 4-28〉 TIRPITZ MUSEUM 내부 공간	144
〈그림 4-29〉 노근리 평화 기념관 전경	148
〈그림 4-30〉 노근리 평화 기념관 배치도	149
〈그림 4-31〉 추모의 방 내부, 외부모습, 외부 쌍굴다리	151
〈그림 4-32〉 노근리 평화 기념관 배치도	146
〈그림 4-33〉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분석표-6가지	154



표차례

〈표 1-1〉 다층적 의미의 메타포 요소 도출	5
〈표 2-1〉 선행 논문의 다층적 의미 표현	12
〈표 2-2〉 활성화적 기억과 비 활성화적 기억	21
〈표 2-3〉 기억의 개념	22
〈표 2-4〉 다층적 기억의 개념	23
〈표 2-5〉 현대 뮤지엄 건축의 경향	38
〈표 2-6〉 기념적 메모리얼 선행논문	48
〈표 2-7〉 기념적 메모리얼 선행논문 1차 표현요소 도출	48
〈표 2-8〉 기념적 메모리얼 선행논문 2차 표현요소 분류 도출	50
〈표 2-9〉 전이적 메모리얼 선행논문	51
〈표 2-10〉 전이적 메모리얼 선행논문 1차 표현요소 도출	51
〈표 2-11〉 전이적 메모리얼 선행논문 2차 표현요소 분류 도출	54
〈표 2-12〉 기호학적 메모리얼 선행논문	54
〈표 2-13〉 기호학적 메모리얼 선행논문 1차 표현요소 도출	55
〈표 2-14〉 기호학적 메모리얼 선행논문 2차 표현요소 분류 도출	56
〈표 3-1〉 기념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	62
〈표 3-2〉 전이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	64
〈표 3-3〉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	69
〈표 3-4〉 기념관의 기호학적 형식 및 서사적 형식 비교	71
〈표 3-5〉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분석표	76
〈표 4-1〉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New Acropolis Museum) 분석표	91
〈표 4-2〉 파블로프 고고학 박물관 (Archeopark Pavlov) 분석표	97
〈표 4-3〉 니메스 로마니티 박물관 (Musée de la Romanité de Nîmes) 분석표 ...	103



〈표 4-4〉 전국 선사 박물관 (Jeongok Prehistory Museum) 분석표	109
〈표 4-5〉 내셔널 내셔널 섹템버 11 메모리얼 & 뮤지엄 9.11 메모리얼 & 뮤지엄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분석표	121
〈표 4-6〉 독일 드레스덴 군사 박물관(Dresden Museum of Military) 분석표 ..	118
〈표 4-7〉 흑인 역사 박물관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분석표	125
〈표 4-8〉 제주 4.3 평화 기념관 (JEJU 4.3 Peace Park) 분석표	131
〈표 4-9〉 슈체친 국립 박물관 분관 (National Museum in Szczecin Dialogue Centre Przelomy) 분석표	137
〈표 4-10〉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 (MUSEUM OF THE SECOND WORLD WAR) 분석표	141
〈표 4-11〉 티르피츠 박물관 (TIRPITZ MUSEUM) 분석표	147
〈표 4-12〉 노근리 평화 기념관 (Nogeulli Pyeonghwa Museum) 분석표	153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체계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시대의 메모리얼뮤지엄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공간의 문화적 형태는 종교적, 정치, 경제를 반영한 상징적 표현의 중심점이었다면, 현재는 이러한 관념을 넘어선 다층적 기억에 의해 무의식적 표출과 다각적인 공간의 해석을 표현하고, 명확한 선이 점점 경계가 없어지는 공간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연구의 배경은 오늘날 이러한 변화양산에도 한 시대의 기념관, 기념비는 즉 메모리얼뮤지엄은 그 나라의 역사와 민족이 공간적 시간의 경험이라는 특별한 장소적 기억을 가지고, 예술적 가치와 후세대들의 교육적이고 희망적 장소로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터’에서 추모, 회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공간이 시대적 장소와 문화적 형태로 겹겹이 쌓여 있는 다층적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대 메모리얼뮤지엄에서 나타나는 표현요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새로운 문화양산에서 장소의 역사적 맥락을 지키고, 다양한 공간의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 메모리얼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역사와 같이 인간의 다층적 기억을 통해 현시대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울 것인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문화시설의 창조를 가져다주는 행위로



이어진다. ‘다니엘 리벤스키’는 베를린 유대인 추모관 건립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어떻게 채우지 않는 공허의 형태를 부여하는가? 어떻게 형태가 없는 건축적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기억하게 만드는가?”¹⁾

과거 ‘기억의 장소’인²⁾ 기념관, 추모관, 기념비의 단절된 공간이었다면 인간의 기억과 회상이 전이를 통해 감정과 결합하여 다시 재배열을 이루고 있다. 그만큼 다층적 기억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이상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분야의 기억이 이제는 현 건축과 공간에서 형태가 없지만, 형태가 존재하며, 눈으로 보는 감각의 의존에서 벗어나 3차원 4차원을 이어 무의식의 세계까지 실질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현 연구의 목적은 메모리얼 건축과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를 선행 논문을 통해 보편적 요소를 표본 분류하여, 기억에 의한 재배열을 이루는 장소의 변화를 알아내고, 각 분류별 용어 정리를 통해, 최근 메모리얼뮤지엄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가 건축과 공간디자인에서 어떻게 표출되어지는지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이후 메모리얼뮤지엄 설립 시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 연구의 논문을 연구 분석하려 한다.

첫 번째,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요소인 기념적, 전이적, 기호학적 메모리얼을 분류·정의한 후 각 분야의 표현요소를 건축과, 공간의 요소로 분류하였다.

1) 이현아, 다층적 기억 : 재생의 패러다임과 메모리얼 건축의 변화 양상, 2015, p.31

2) 알다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09, p.425



두 번째, 기념적, 전이적,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각각의 표현요소가 실제 사례에서 표출된 건축적 표현, 공간의 표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표에 의해 분석하였다.

세 번째 분석표를 통해 국외·국내사례를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방법론별 결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현 메모리얼뮤지엄 공간분석이 가능하도록 실제로 관련이 있는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메모리얼뮤지엄 계획에서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여, 장소적 맥락과 다양한 문화공간이 공유 및 보완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창의적이고 희망적인 탈바꿈되는 공간이 교육적인 차원으로 이어지며, 학술연구에 있어 다양한 공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1차 공간적 범위로는 2009년에서 2018년까지의 장소적 역사의 집단 기억이 표출된 뮤지엄과 사건을 통한 기억의 전이가 표출된 뮤지엄을 선정하였다. 제 2차 시간적 범위로는 2011년에서 2018년까지의 선행 논문 및 문헌 고찰을 통한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를 도출하였고, 2009년에서 2018년까지의 현 메모리얼 뮤지엄에 나타나는 건축과 공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 3차 내용적 범위로는 다층적 기억의 진화원리의 설계도를 만들어 기념적, 전이적,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사례로는 2008년에서 최근 2018년까지의 국외 8가지 사례, 국내 4가지 사례선정으로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를 분석표에 의해 종합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제 1장 다층적 기억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요소를 대표 3가지의 선행 논문<표1-1>을 통해 1차 메타포 요소를 도출하였고, 2차 각 메타포 요소인 기념적, 전이적,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선행 논문 5편씩 요소별 건축과 공간에 대한 표현요소를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3차 이러한 요소를 다시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표현요소, 공간적 디자인개념으로 보편적 공통 용어로 표현요소를 분류하였다.



<표 1-1> 다층적 의미의 메타포 요소 도출

선생 논문	다층적 의미	메타포 요소
밈(Meme)적 표현특성을 적용한 현대 모뉴먼트 전시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2015, 남선영	건축적 모방	전이적 메모리얼
	구조적 형태 구분	
	문화적 진화	
Metaphoric Process에 의한 공간의 다층적 의미효과에 관한 연구 2009, 박희령, 김억	메타포 과정	기호학적 메모리얼
	메타포 공간	
	유비쿼터스 공간	
현대 도시 내 다층적인 경계공간의 재조직을 통한 공공영역 구축에 관한 연 -미대사 관저 부지의 도시 경계를 이용한 공공영역화를 중심으로 2012, 김정은	경계공간의 재조직	기념적 메모리얼
	탈 영토화	
	경계의 재구성	

제 2장에서는 다층적 기념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이를 통해 메타포 요소의 진하원리와 특성에 대해 분석한 뒤 다층적 기억의 매체에 대한 고찰, 메모리얼 매체로서의 현대 메모리얼 건축에 대한 공간변화를 살펴보겠다.

제 3장에서는 기념적 메모리얼, 전이적 메모리얼,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가 분류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의 분석틀을 만들어 장소적 역사의 집단기억이 표출된 뮤지엄과 사건을 통한 기억의 전이가 표출된 뮤지엄으로 근대에서 현대까지의 뮤지엄 국외·국내 12가지를 선정하여 건축공간의 표현방법과 공간분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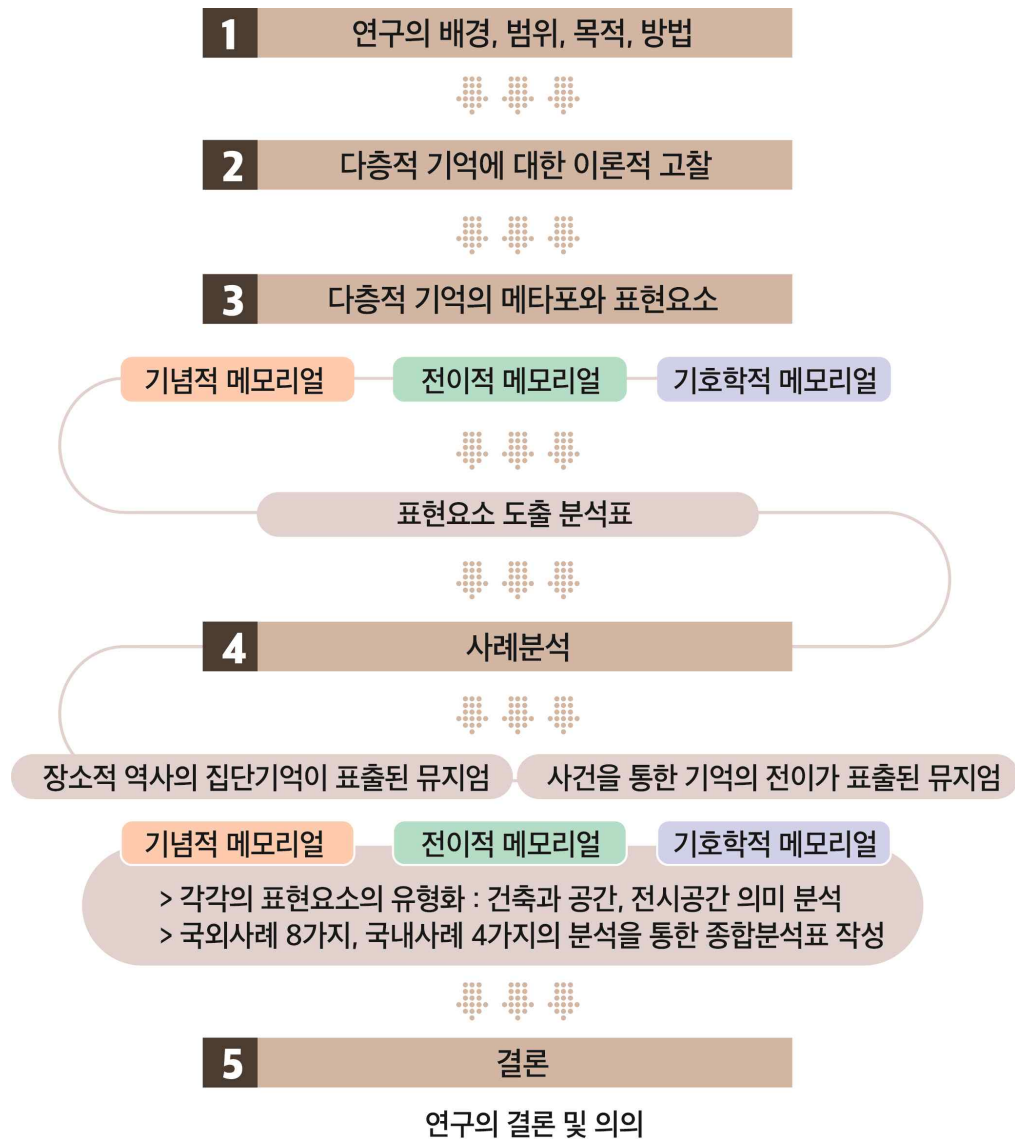
제 4장에서는 앞장의 연구 과정의 분석 결과를 요약한 후 건축공간, 전시공간 의미 분석에서 각각의 표현요소의 유형화를 결론 짓고, 현 메모리얼뮤지엄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분류하였다.



제 5장에서는 다층적 기억의 표현 효과가 현 메모리얼뮤지엄에서 장소적·기념적 문화기능, 전이를 통한 문화기능, 기호학을 통한 문화기능이 더 발전적으로 확대 적용 할 수 있는지 타진하고 결론을 도출하려고 한다.



1.3 연구의 체계



<그림 1-1> 연구흐름도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2.1 다층적 기억의 정의
- 2.2 현대 메모리얼의 건축과 공간의 변화
- 2.3 선행 논문을 통한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요소분류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1 다층적 기억의 정의

2.1.1 다층적 기억에서 다층적 범위

이 논문에서 다층적이란 시대의 장소의 ‘터’,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가 역사와 함께 다각화된 문화적 형태로 겹겹이 쌓여 있으며, 이 ‘터’에서는 추모, 회상, 기념비의 다층적 행위로 이어졌다.

역사적 시간의 장소인 ‘터’에서는 서로 다른 시대와 정치문화에서 사용한 이념과 공간구조와 경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낳기도 하고 새롭게 형성 및 변화되면서 없어지거나 도시형태 및 건축에서 흔적을 남긴다. 선행 논문을 통해 다층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다양한 방면으로 표현 되는 걸 알 수 있다.

<표2-1>에서 선행 논문의 다층적 의미를 찾아보면 미디어 분야³⁾에서는 다중적 시선이나 장르의 교차와 혼합의 의미로 다층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정보시각화 분야⁴⁾에서는 시각화 구조와 관계, 확장의 의미로 다층적이란 표현을 하였으며, 공공영역에서의 경계공간의 재조직, 탈 영토화⁵⁾의 재구성에서 다층적이라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본 논문의 다층적 범위는 역사적 장소의 ‘터’라는 공간에서 메모리얼로 표현되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3) 서자현,(2010), 현대 미술의 다층적 평면구조에 대한 이론적 연구

4) 박종현,(2016), 다층적 서사구조를 이용한 정보시각화 연구

5) 김정은,(2012), 현대 도시 내 다층적인 경계공간의 재조직을 통한 공공영역 구축에 관한 연구



그래서 우선 다층적 장소를 분류해 보면 기억의 장소, 회상의 장소, 성지와 신화적 장소, 기념장소, 트라우마 장소 등 장소마다 ‘터’로서의 역할과 문화적 관계가 표현된다.

<표 2-1> 선행논문의 다층적 의미 표현

저자(년도)	선행논문	다층적 의미
박종현(2016)	다층적 서사구조를 이용한 정보시각화 연구	인포그래픽 의미 - 시각화 구조 - 정보의 관계 구조 - 정보시각화 확장 가능성
남선영(2016)	밈(Meme)적 표현특성을 적용한 현대 모뉴먼트 전시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공간적 의미 - 건축적 모방 - 구조적 형태 구분 - 문화적 진화
김정은(2012)	현대 도시 내 다층적인 경계공간의 재조직을 통한 공공영역 구축에 관한 연구 : 미 대사관저 부지의 도시 경계를 이용한 공공 영역화를 중심으로	역사적 장소성 - 경계공간의 재조직 - 탈 영토화 - 경계의 재구성
서자현(2010)	현대 미술의 다층적 평면구조에 대한 이론적 연구 : 사진 · 회화 · 섬유예술의 매체적 혼	미디어 중첩의 구조 - 뉴미디어 - 다중적 시선 - 장르의 교차와 혼합
박희령, 김억(2009)	Metaphoric Process에 의한 공간의 다층적 의미효과에 관한 연구	공간적 의미 - 메타포 과정 - 메타포 공간 - 유비쿼터스 공간 의미
김경민(2008)	다층적인 현대 도시구조에 대응하는 공공도서관 계획	공간적 의미 - 도시민 다양한 유입요소 - 정보공간 접근요소 - 건축적 요소

기억의 장소

“장소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의 힘은 위대하다”라는 키케로⁶⁾의 말처럼 이미지는 특정한 장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인 감정적

6)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라틴어: Marcus Tullius Cicero, 기원전 106년 1월 3일 - 기원전 43년 12월 7일)는 로마 시대 정치가, 웅변가, 문학가, 철학자, 위키 백과 인용



인 부분에 각인이 되며, 장소는 이러한 인간의 각인된 기억의 배열과 기억의 재발견에서 ‘기억의 장소’에서 ‘회상의 장소’로 기억과 추모의 행위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가령 장소가 고유한 기억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이것은 문화적 기억 공간형태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의 장소의 ‘터’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대화는 이러한 장소와 연관된 감정을 벗어나 새로운 또는 신축성 있는 의식을 요구한다. 이런 와중에서 기억을 보존하는 장소들은 법률·규칙·조약 따위에 의해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강제하는 효력에서 인간이 마음대로 구상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는 트라우마의 장소들처럼 땅이 정신적인 힘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기억의 장소의 역할로 머무르지 않고 점점 진화되어 인간의 기억을 재조정하며 희망의 장소로 탈바꿈되고 있다.

회상의 장소

위즈워스의 회상⁷⁾은 인위적인 기억 저장 시스템에 일반적으로 3단계의 모델이 많이 인용되는데, 기억심리학에서 다른 모델들이 많이 제시되었음에도 감각적인지, 기억의 저장소에 보관, 회상기억의 되돌아옴의 3가지 모델을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감각적인지로, 기억이 격하게 일어나거나, 집중적이고, 반복된 친숙함을 가진다는 조건하에 기억에 고정된다. 두 번째 단계 저장은, 시간을 벗어나, 즉 탈시간의 회상기억이 기억의 저장소에 보관된 것이다. 세 번째 단계 회복은 기억을 불러와 현재화하여 감각적 인지가 재감각화 되어 회상기억으로 되돌아온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회상은 기억의 인지, 보관, 되돌아옴을 말한다. 위즈워스의 3단계

7) 서명수. 2015 윌리엄 위즈워스의 서곡에 나타난 “시간의 점들”에 대한 종교·철학적 고찰, 인용



모델의 첫 번째 자리에는 언제나처럼 인지 단계가 차지하는데, 사실상 ‘강한 감정의 즉흥적인 범람’이 인지자리에 잡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는 이 회상의 공간에서는 시간과 언어가 따라온다. 창의적 과정이 이 회고에서 어떤 일을 음미하고 되풀이되는 반추와 더불어 시작된다. 말하자면 이 회고에서 창의적 과정의 사물이 일어나는 근원은 평정한 상태에서 되불러온 회상기억에서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것을 단순히 되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것 즉 창조이다. 이 창조는 새로운 정서와 원래의 느낌이 갑작스럽게 떠오른 회상의 조화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정서적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정서는 시를 만들 수 있는 근원이 된다. 위즈워스는 이렇듯 시와 삶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시는 느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느낌이 창의적 발상이 아닌 회상이 창의적 발상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회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서가 형성된다. 위즈워스에 따르면 “느낌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반추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정히 점차 사라지고 서서히 새로운 느낌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새로이 생긴 느낌은 이제 정신 내에 존재하고 앞서 성찰의 대상이었던 첫 번째 단계의 느낌과 비슷한 모습을 취한다.” 상실된 첫 번째 단계의 자리에 생성과 더불어 만들어진 “이차적인 현재”가 온다. 삶은, 즉 첫 단계인 감각적 인지는 시인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감정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글감은 기억들에서 오는데, 그 기억들은 원래의 느낌에 비해 그 자체의 생명력과 신선함을 잃게 된다. 그러나 원래의 느낌들은 시적 성찰의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새로운 정서들로 대체된다.

이렇듯 위즈워스의 3단계 모델은 기억을 저장소로 활용하는 기록하는 것, 보존하는 것, 되불러오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대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실과 그것을 보충할 ‘새로 만듦’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출발은 회상의 기억과 장소에서 창의력을 불러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성지와 신화의 장소

성지와 신화의 장소에서는 성지와 종교적인 정경들이 기독교의 영역 내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기적, 화해, 치유와 영적인 기억들로 시작되는 성지에 대한 인간적인 기본 욕구 즉, 문화적 기억에는 인간학적 본질이 망자의 추모와 성지에 있다. 이런 망자의 추모에 대한 기억은 종교적인 차원의 공간과 세속적인 차원의 공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종교적 차원 숭고함으로, 세속적인 차원의 공간은 송덕(頌德)으로 각기 대변된다. 숭고함은 후손의 의무감, 즉 살아 있는 자들이 그들을 기리며 추모의 행위와 의식을 말한다. 숭고함이란 살아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칭송은 명성을 얻는 일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이 살아 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송덕이란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하기 위한 세속적 형식으로, 현인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이런 성지와 신화의 장소에서 문화적 행위는 종교적 영역 내의 추모의 형식으로 추모를 통한 의식의 송덕으로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송덕의 세 가지 조건은 위대한 행위, 그 치적에 대한 기록, 후세의 추모가 있다. 후손의 기억 속에서 망각 되지 않는 숭고함, 명예 그리고 영생불멸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송덕 문화에서는 오로지 시인만이 부여할 수 있는 고귀하고 특별한 재능이었다. 민주주의의 고대 그리스로부터 지금은 가족의 개인



적 송덕이 기념관이나, 기념비의 역할이 아닌, 도시국가나 민족과 같은 집단적 기억, 즉 더 확장된 기억 공동체에 대한 기념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족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영원 화이며 장소의 역할을 넘어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인간의 신체, 특히 기억의 매체로서 자리하고 있다.⁸⁾

기념장소

기념장소에는 어떤 특정한 역사, 사건적 기억이 지속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강압에 의한 변질로 단절되어 있다. 단절된 역사는 폐허와 유물로 그 자리에 헌신하게 되는데, 이런 폐허와 유물의 잔여물들은 낯선 폐허로 주변과의 경계선을 확실히 끄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공간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피에르 노라는 전통적인 삶의 형식들이 결부된 장소로부터, 단절되거나 변이된 삶의 흔적들을 보존하는 장소로 ‘기억의 터(milieu de memoire)’에서 ‘기억의 장소(lieu de memoire)’로의 이전⁹⁾이라고 말하고 있다.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닌 무한한 시간의 장소로 이야기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창의적 문화 기억의 구심점이 되기도 하여 유물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의 폐허들은 이중 기호들을 내포한다. 이중 기호들은 기억뿐만 아니라 망각도 코드화하고도 가지고 있어, 그 기호들은 소실되고 망각 된, 즉 역사의 차원에서 이미 낯설게 되었고 사라져 버린 과거의 삶을 드러나게 해준다. 동시에 그것은 기억의 차원에서 다시 일깨워 주고 시대가 파기하고 파멸시킨 것을 다시 이어 주는 회상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장소에 대한 기억이 지울 수 없는 어떤 특정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면 기념

8) 알라이다 아스만 / 변학수, 채연숙 옮김(2014),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p.135~141편집

9) Nora, Zwischen Geschichte und Gedächtnis, p.11



장소는 바로 그 장소들이 지닌 전달력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장소에 대한 기억은 기억의 장소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여기에 기억술의 공간적 구조는 설계 도면이나 지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기억의 전달력에 중점이 있고 원천지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장소적 추상화를 통해 기억술은 문자를 행렬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빈 공간적 결합구조를 설정한다.

파우시니아스¹⁰⁾의 기억작업은 기억의 매체 내에서 전향과 회귀, 역사적 단절, 망각과 회복의 관련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생생하게 보존된 전통이 기억과 전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경우, 이로 인해 기억의 장소들 또한 해독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또한 전적으로 새로운 해독 방식들이 등장할 수 있다.

기념장소는 이제 기억, 보존, 조사, 복구의 대상이 되었다. 전통을 규정하는 문화와 더불어 단절되었던 낭만주의는 망각과 잊힌 것을 폭발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모델들이 즉, 문화의 발전 과정을 무의식의 세계로 빠뜨리게 한다.

사람들이 망각하면 할수록 장소들과 유물들은 점점 더 많은 아우라를 가지게 되며, 건축물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소환해 주는 기억의 장소, 억압된 것이 회복되어 그려지는 무대가 된다.

트라우마 장소

추모지란 애도의 일이 행해지거나 역사적 상처가 남은 곳이다. 박해, 수모,

10) 알라이다 아스만 / 변학수, 채연숙 옮김(2014),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2009, p.71 인용



패전과 죽음 같은 비문의 내용들은 신화적, 민족적, 역사적 기억에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다. 집단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된 회상으로 옮겨지는 한 잊힐 수 없다.

트라우마의 장소들은 긍정적인 의미 형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추모지와 다르다. 외상의 사건적 장소는 트라우마적 장소라는 특징을 나타내는데, 트라우마적 장소의 다층적 기억의 의미와 복합성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감정과 회상이 서로 다르므로 회상의 작업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장소 및 그 장소와 관련된 문제들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트라우마 회상의 장소에서 의미하는 바는, 장소와는 무관하게 추모지와 기념장소들이 제공하는 정보 가치와 이념을 초월적 감성으로 직접 대면하고, 체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인식의 강화이다.

하이너 뮐러¹¹⁾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오랜기간 동안 기억 속 터질 수 있는 폭발물이다. “기억작업이나 추모 작업은 충격에서 시작된다!”

20세기 말에도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기념비에 대한 공개 논쟁에서 많은 분쟁이 있었다. 기념비 역사에는 중심과 주위의 권력 사이의 긴장이 일치하든 차이를 보이든 간에 다양한 역사적 관점들이 완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주체들이 다양화됨으로써 민족과 지방분권 국가, 군주와 시민계급, 귀족과 도시 등은 기념비 문제로 제기되는 정치적인 요구들을 자기편에서 관철하고자 투쟁한다. 시대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면, 다양한 이권 집단들이 자기의 확실성이 집약될수록 기념비들은 더욱더 많이 세워지고 더욱더 극적인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 이제 트라우마의 장소

11) 하이너 뮐러(Heiner Müller, 1929~1995) 극작가, 정민영 역(2013), 뮐러 희곡선



와 기념비들은 동시대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의 수단을 벗어나 문화적 기억의 미래 지향적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긍정적 평가 속에 교육적 장소의 장으로 변모하는 장소로 바뀌어야 한다.

2.1.2 활력으로서의 기억

기억은 첫 번째, 이전의 기억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지키거나 다시 생각해냄으로써 기억에 오래 남다,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는 명사의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 사물이나 역사에 있는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다시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 기능으로써 심리적 용어로 적용한다. 세 번째는 컴퓨터에서 계산하여 필요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간만큼 받아들여지는 기능을 기억이라 명칭 한다.¹²⁾

이렇듯 기억의 문화적 작용에서 ‘기억의 터’에서 ‘기억의 장소’로 변화되는 시간적 배경에서 급속한 변화와 쇠퇴의 과정에 현대는 박물관과 기억의 장소들을 점점 더 기억의 수용이 증가하도록 하는 세상의 지속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노라는 “우리는 과거와의 단절에 대한 인식이 기억의 삭제라는 느낌과 함께 나타나는 과도기의 순간을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기억의 삭제가 그런 기억에 대한 구체화를 문제시할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기억들을 만들어 내는 과도기의 순간을 살고 있다.”¹³⁾라고 하였다.

이를테면 독일의 회상장소들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이 회상의 장소라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근대화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나치의 폭력 정부와 그들의 계획적인 집단 학살의 범죄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기억의 장소에서 불

12)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13) Nora, Zwischen Geschichte und Gedächtnis, p.11 재인용



러일으키는 집단기억에서 강제수용소가 트라우마의 장소인 것은 그곳에서 자행된 만행의 과도함이 인간적 이해력과 표현력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단기억과 트라우마의 장소에서 기억은 전이되고 역사적 사건의 분노를 개인으로써 받아들이게 되며, 그런 만행들로 인해 오늘날 그곳에서 수천 년을 넘게 살아온 유대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세대들 간의 장소가 추모와 회상의 장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트라우마의 장소들, 회상의 장소들, 세대의 장소들은 마치 양피지의 글자처럼 기억의 풍경 속에 펼쳐져 현대 기억의 장소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기억 기능 작용을 하고 있다.

기억의 공간에서 기억은 ‘기술’로서의 기억과 ‘활력’으로서의 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 기술기억은 서구에서 오랜 전통을 지닌 ‘기억술’에서의 기억 방식으로 수사학 영역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역사적 경험은 기계적 방식에 의해 저장되었다가 왜곡 없이 다시 인출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저장하였다가 불러오는 형태의 기억은 경험의 변형을 달리하게 된다.

이와 달리하는 힘으로서의 변형의 기억이란 문화적 생성을 뜻하여 문화기억으로 남는다. 이때 기억은 ‘과정’ 즉 기계적인 종속적인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의 힘을 지닌 일종의 ‘내면화하기’라는 의미에서의 기억을 말한다. 기술로서의 기억과 힘으로서의 기억을 구분해 주는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시간’하고 ‘망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로서의 기억에서는 ‘시간’과 ‘망각’의 요소가 활동하지 않지만, 힘으로서의 기억에서는 이 ‘시간’하고 ‘망각’이라는 요소가 활동하고 인출 함으로써 전이 및 변형되고, 왜곡되어 전도된 평가가 발생한다.¹⁴⁾

14) 알라이다 아스만 / 변학수, 채연숙 옮김(2014),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저장’과 ‘기억’의 차이를 구별하려면 ‘기술(Advanced Record System)으로서의 기억과 ‘활력(Vis)으로의 기억이 선행되어 구별하여야 한다.

활성적 기억과 비 활성적 기억의 관계를 회상기억의 두 가지 상보적 양태로 파악하는 데 있다. ‘활성적으로 체험하는’ 인생사는 기억과 경험을 어느 한 구조 속에서 연결하는데, 이런 관계 속에 의식적으로 뚜렷하게 각인된 기억이 변할 수 있는지, 기억의 형식이 해체되어 새롭게 배치 화 될 것인지, 활성화된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은 대신 잠재적인 요소들이 겉으로 떠오르고 새로운 재결합들이 생겨날지에 대한 가능성이 결정된다. 활성화된 요소와 비 활성화된 요소들 사이에서 내적으로 교류하는 기억의 드러내지 않는 심층구조는 의식구조 내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새롭게 주도하는 조건이다. 이때 이 의식은 그러한 무형적 저장물의 배경 없이는 고사하고 만다. <표2-2>와 같이 활성적 기억과 비 활성적 기억을 알 수 있다.

<표 2-2> 활성적 기억과 비 활성적 기억

활성적 기억	비 활성적 기억
기억은 집단, 제도, 개인일 수 있는 보유자와 결부되어 있다.	특수한 보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다.	현재와 미래로부터 과거를 철저하게 분리한다.
이것은 기억하고 저것은 잊어버리면서 사건을 선별적으로 처리한다.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모든 것이 동등하게 중요하다.
가치들을 중개하는데, 그 가치에서 정체성의 특성과 행동 규범이 생기게 된다.	진리를 찾아내고 동시에 가치와 규범을 멀리한다.

역사와 같은 저장기억은 역사가에 의해 그 판단이 이루어지지만, 활성적 기억의 기능기억은 그 문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활성적 기억 때문에 좌우된다. 즉, <표 2-2>에서처럼 역사적 경험은 기계적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저

변천, 2009, p.31 인용



장하기 불러오기는 경험의 왜곡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대로 전수되며, 인간의 기억술에서 시간과 망각이 배제된 상태로 문화적 기능이 이어진다.

하지만 힘/활력으로서의 기억은 문화적 전환 가능성의 조건이다. 끊임없는 혁신은 기능기억과 저장기억 사이의 경계선이 허물어져 상호 왕래를 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경계가 허물어지면 질수록 요소들의 교환과 의미 모형의 전환이 더 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문화적 기억의 전이가 잘 이루어지며, 그 자체의 힘을 지닌 ‘내면화하기 Er-innern’에 몰입할 수 있으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새로운 변화는 항상 시간과 망각의 기억요소가 작동한다. (표 2-3 참조)

<표 2-3> 기억의 개념

기술로서의 기억	힘/활력으로서의 기억
역사적 경험은 기계적 방식	문화적 기억
저장하기 불러오기는 경험의 왜곡을 배제	그 자체의 힘을 지닌 ‘내면화하기 Er-innern’
시간과 망각이 배제	항상 시간과 망각의 요소가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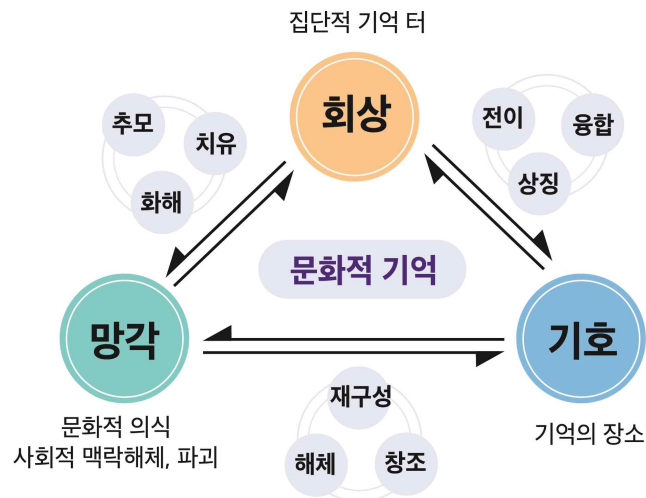
다층적의 개념은 장소의 터에서 추모, 회상, 기념이라는 문화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기억의 개념은 시간과 망각이 인출을 통하여 장소적 기억과 사건적 기억이 전이, 변형, 왜곡, 전도되는 문화적 형태를 본 논문에서는 다층적 기억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표 2-4 참조)



<표 2-4> 다층적 기억의 개념

구 분	의 미	개 념
다층적	장소적 터	추모, 회상, 기념비
기억	문화적 전이기억	시간, 망각, 인출
문화	장소적 기억+사건적 기억	전이, 변형, 왜곡, 전도

2.1.3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진화원리



<그림 2-1>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진화원리

다층적 기억의 매체는 어떤 진화의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 전이, 변형 왜곡 되어지는 기억의 매체는 전향과 회귀, 역사적 단절, 망각과 관련이 있다. 기억은 새로이 소생시키고 지속시키고자 망각으로 인해 더욱더 진전되며, 망각은 새로운 정보의 저장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기억수행을 위한 세 단계인 정보의 부정화(Encoding), 저장(Storage), 인출(Retrieval)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망각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 회상·상상력과 흔적의 스토

리는 창작물의 결과로 이어져, 집단적 기억의 터에서 기억하는 장소로 넘어가면서 문화적 의식과 사회적 맥락해체, 파괴가 초래되었다. 집단적 장소의 기념과 추모는 전이의 기억을 통해 현 기호의 건축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서 이러한 진화의 요소들이 현 뮤지엄 건축관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그림 2-1>과 같은 분류를 통해 메타포 진화원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시대의 문화적 형태는 다층적 기억의 진화를 살펴본 결과 문화적 기억 저장방식이 같은 맥락으로 끊임없이 전이, 융합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전이를 살펴보면 자동화된 기억이 스스로 제어하고 지속적으로 잊히는 것들을 다시 기억하도록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하는 유동적 재구성을 말한다.

기억의 터에서는 집단적 기억이 사회적 애도와 같은 형상으로 민족적 감성을 불러내며, 특별한 장소의 특정성 추모의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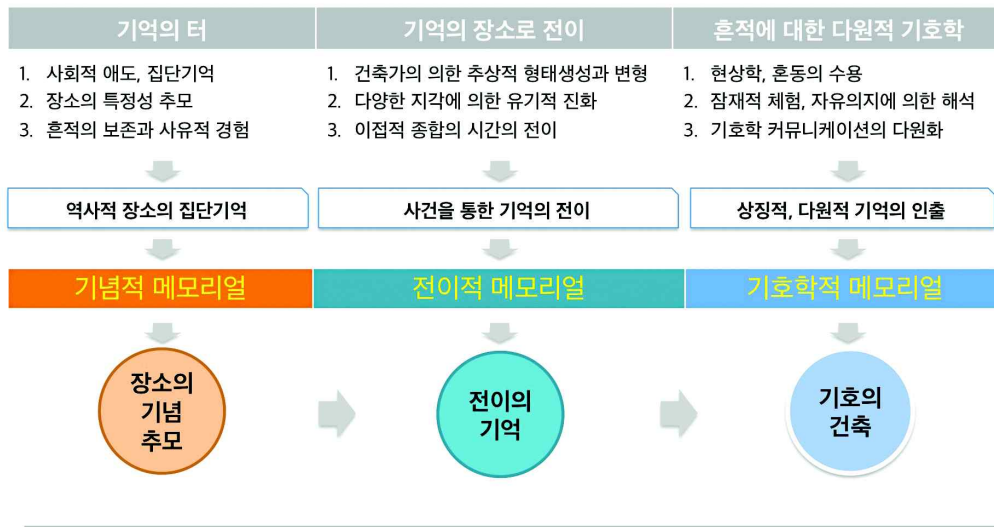
이러한 장소에서는 흔적의 보존과 사유적 경험을 내포하고 있어 역사적 장소의 집단기억으로 애도 및 추모의 문화적 행위로 나타나며, 메모리얼¹⁵⁾에서 장소의 역사적 기억 물인 기념적 메모리얼로 메타포¹⁶⁾ 요소에서 가장 우선시 된다.

첫 번째, 메타포 요소인 기념적 메모리얼이 나타나며 그 역할을 살펴보면, 기억의 장소적 터의 역할로 사회적 애도, 집단기억의 장소 공유, 흔적의 보존과 사유적 경험이 일어난다. 가장 큰 문화적 표현요소인 모뉴먼트의 건축물로써 장소의 기념·추모가 중심적으로 행해지는 메모리얼뮤지엄이다.

15) 옥스퍼드 : 기념비, 기념적인 것,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추모)의

16) 나무위키 : 은유. 어원적으로는 전이(轉移)의 뜻이며 ‘숨겨서 비유하는 수사법’





<그림 2-2>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진화원리와 특성

두 번째 메타포 요소는 전이적 메모리얼로 나타나며 그 역할을 살펴보면, 현시대의 기억의 장소로 문화적 전이가 이루어지는데 건축가에 의한 경험과 감성의 내면화하기에 의해 추상적 형태생성과 변형, 다양한 지각에 의한 유기적 진화, 이 접적 종합의 시간의 전이로 변형되고 융합하며, 장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사건을 통한 기억의 전이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 메타포 요소로 기호학적 메모리얼이 나타난다. 역할은 기억의 장소에서 기억의 전이가 이루어지면 그 장소의 흔적에 대한 다원적 기호학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는 지금 과도한 정보의 틈에서 많은 정보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기억의 해체와 변형을 통해 현상학에서 혼동의 수용을 겪고 있다. 잠재적 체험이 일어나며, 자유의지에 의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렇듯 현대 사회에서 메모리얼이 가지는 의미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에 대한 부분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기호학 커뮤니케이션의 다원화로 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문화시설의 창조를 가져다주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에서 문화적 형태의 흐름, 실험적 정신, 표현요소를 통한 공간 창조가 건축과 공간에서 다원적 기호로 현대 메모리얼 뮤지엄에서 상징성의 다원적 표현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 참조)

2.1.4 다층적 기억과 매체에 대한 고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정신과 의사 에른스트 짐멜(Ernst Simmel)은 전쟁 트라우마의 현상을 사진술의 개념을 통해 서술하였다. 여기서 트라우마의 경험이 무의식의 모체형성에 스스로 상세하게 적게 되는 현상은 사진에서 현실의 단면이 사진판의 염료에 저절로 상세하게 적게 되는 것과 상응한다. 이를테면 짐멜은 “경악의 순간은 사진처럼 정확한 자국을 각인한다”라고 적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쟁 트라우마의 전문 치료가인 영국의 정신과 의사 윌리엄 브라운 역시 최면을 걸어 재활성화시킨 반재적 기억 흔적을 “영화 촬영 필름에서 사진이 순서대로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것”에 비유했다.¹⁷⁾ 아날로그 매체로써 사진과 영화의 기억 흔적들에 대한 마음의 상태들을 물질의 원리에 기초한 저장체에 새겼던, 프루스트와 바르부르크(Aby Warburg)에서 프로이트에 이르는 기억이론에서 기억 흔적의 견고성과 비 소멸성의 견해는 지배적인 것이었다. 더 새기지 않고, 개폐 장치를 설정하고 전기를 흐르게 하는 디지털 매체 시대에 우리는 그런 기억이론과는 다소 멀어지는 것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이제 기억은 더 이상 자취나 자국의 저장체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의 다양한 시각에 따라 각각의 차례로 새로 형성되는 어떤 형상적 반응을 물질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17) 알라이다 아스만 / 변학수, 채연숙 옮김(2014),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209p 인용



유감스럽게도 신뢰할 수 없는 자연적 기억을 신뢰할 만한 인위적 기억으로 보완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기억을 쉽게 하는 기억술 이후, 기억과 공간의 관계는 나눌 수가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 기억술(ARS memoriae)의 중요한 부분은 기억의 내용을 확실한 그림으로 코드화한 ‘상상의 발현(imaginis)’과 이 그림들을 구조화된 공간의 특별히 다른 터에 배치한 ‘장소(loci)’이다. 이런 유형학적 이해로부터 기억의 체화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맞닿아 있다. 다시 말해 기억술의 매체로서의 공간과 기억 그리고 상징들의 건물은 매우 흡사하다. 건축물 같은 기억 메타포로 우리는 송덕사원이나 기억의 극장, 도서관을 들 수 있다.

기억에 대한 건물 메타포는 다양한 기억 형식들과 결부된다. 송덕 사원은 시간을 초월해서도 유효한 가치를 보존하는 신전으로서 모범적 인물과 작품을 선별하여 기념하는 곳이다. 송덕 사원에는 늘 자리가 모자라므로 그 수용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반대로 도서관이 보관하는 기억의 저장물은 끊임없이 늘어난다. 도서관은 지나간 것이 무엇이며 시간을 초월해서도 남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 주는 곳이다. 송덕 사원이 미래를 위한 추모의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도서관은 과거와 현재의 지식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다. 문화적 기억의 한 가지 양식은 경전을, 다른 한 가지는 기록물보관소를 연상하게 한다.

발터 벤야민은 자신의 소위 말하는 표상 중의 하나를 “발굴과 기억”이라고 표현했으며, 동시에 매체라는 제3의 범주를 도입하여 능동성과 수동성의 대립을 피하고 있다. 매체라는 개념에서 능동적 재구성과 수동적 배열이 서로 만난 것이다.¹⁸⁾



“언어를 보면 우리는 기억이 과거를 탐색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매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옛 도시가 파묻혀 있는 땅이 매체이듯 기억도 체험한 것의 매체이다. 파묻혀 버린 자신의 과거에 가까이 가려면 땅을 파내는 사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몇 번이고 동일한 사실을 대하게 되고 그때마다 농부가 흙을 흘뿌리듯 그 사실을 흘뿌리고 땅을 갈아엎듯 사실을 갈아엎는 것을 꺼려서는 안 된다. …이렇듯 진정한 회상이란 탐구자가 자기의 소유한 장소를 지시하듯이 그렇게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에 틀림없다.”¹⁹⁾

발굴의 공간적 메타포가 주는 의미는 특수한 배치의 장소에서 교회나 정치 집단에게는 주목할 만한 순교한 사람들의 고행지인 순례지가 되며, 국가의 물가들에게는 공공적인 참회와 경고성, 성명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무대가 된다. 역사가들에게 이곳은 흔적을 고증하고 입증하는 고고학적 현장이다. 장소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고자 하는 것, 그곳에 대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곳과 관련된 모든 상황과 주변을 말한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만큼 장소는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한다.

이런 공간적 메타포의 회상의 장소에서 기대하는 바는, 장소와는 무관하게 추모지와 기념지들이 제공하는 정보가치를 초월하여 감성적으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인식의 강화이다. 서적이거나 시각 매체들이 전할 수 없는 것을 방문객들에게 역사적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매체로는 재생산을 할 수 없는 장소의 아우라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18) 알라이다 아스만 / 변학수, 채연숙 옮김(2014),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210p~220p 편집.

19) Benjamin, Gesammelte Scvriften vol. 4, 1, 400p



기억에 대한 공간적 메타포는 발굴의 심상 속에서 시간적 성격을 더욱 많이 띠게 되는데, 시간적 기억 메타포를 살펴보겠다.

시간적 요소가 강해지면서 망각, 불연속성, 쇠락, 재구성 같은 개념이 전면 에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기억이란 원칙적으로 조작할 수 없고 순간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것을 가져다주는 어떤 창의적 신 기원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 시간의 메타포는 문자, 공간, 건물 메타포 와는 달리 기억 행위에 내재해 있는 시간적 차원을 말한다. 이를테면 회상기 역의 사후성(Nachträglichkeit der Erinnerung), 다시 말해 어떤 경험과 그것 을 회상에서 반복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는데, 이 괴리에서 반추 행위를 통해 회상기억이 가지는 능동적·조형적 생산성의 측면이 부각된다. 이 기억 은 기억술에서 말하는 인출(Rückholung)의 방법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시간성을 띠고 있는 기억 메타포들은 잠재성을 기억의 핵심적 양상으로 부 각시키고 있다. 이 개념을 더 뚜렷하게 하려면 망각의 두 형식, 즉 해체적이고 파괴적인 망각과 간수하여 보관하는 망각을 구별해야 한다. 잠재성이란 보관해 두는 ‘보존적 망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헤겔은 이것을 “망각의 굴” 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기억이 있는 일종의 중간 저장소를 말한다.

이 중간 저장소에서는 우리는 이른바 전승의 문제, 그리고 동시에 문화적 기억의 망각에 대항한 기록과, 독서가 더 이상 소용없게 되고 망각 자체가 전승 과정의 본질적 요소로 폄하되면서 상당히 복잡해졌다. 관심이 텍스트에 서 유물로 옮겨간다는 것은 기억 매체가 ‘말하는’ 증인에서 ‘말하지 못하는’ 증인으로 바뀌고 이 병어리 증인으로 하여금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관심이 유물에서 흔적으로 옮겨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후세를



위해 남긴 것이 아닌, 그리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닌 증거들을 가지고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서구 문명에서는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여 문화적 기억의 문제가 첨예화되고 있다. 이 매체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저장 능력을 드러냄과 동시에 정보를 점점 더 빠른 리듬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새로운 저장 기술과 정보 기술은 다른 성질의 문자, 곧 디지털 문자에 기초를 두어 유동적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시간적 메타포에서 매체들은 병존하면서 문화적 기억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다양한 형식들을 보여 준다. 이러한 매체가 서로 중첩되고 교차하면서 기억은 점점 더 복잡한 구조를 띠게 된다. 이 복잡함이 오히려 다양한 매체를 만들었고 이러한 매체의 디지털화가 유물을 문학적 재구성으로 새롭게 ‘소생시키는’ 역사적 상상력의 통로가 되었다. 전자적 정보 기술의 통로는 더 단순하고 더 완벽한 기록 기술을 가능할 게 할 뿐만 아니라 저장할 수 없는 것, 영원히 잃어버린 것도 확실히 지각하도록 해준다.

디지털 매체 시대에 문화적 기억이 직면한 상황은 기억과 망각의 차이가 점점 사라져 가는듯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문화적 기억의 구조는 기억과 망각의 분명한 구별이 없는 무의식에 가까워질 것이다.

2.1.5 다층적 기억과 메모리얼 매체로서의 건축

매체로서의 건축은 다층적 기억을 담는 저장소라고 할 수 있다. 저장소라고 하면 매체로서의 건축에서는 대표적으로 기록물보관소를 예로 들 수 있다. ‘기록물보관소’(Archiv)라는 말은 그리스의 ‘arché’에서 유래한 것으로 ‘시작’, ‘기원’, ‘통치권’이라는 뜻 이외에도 ‘관공서’나 ‘관청’을 의미하기도 한다. 데리다는 ‘시작’(commencement)과 ‘명령’(commandment)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서 ‘arché’라는 말이 지닌,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그로이스가 정의한 기록물보관소의 개념에는 ‘토대’와 ‘주거’라는 의미 구성 요소들뿐 아니라, 법률을 보호하고 그것을 상기하여 해석하는 제도 과수꾼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기록물보관소는 문자, 권위를 내세우는 태도나 경향, 서류에 관련된 개념이다.²⁰⁾ 기록물보관소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은 외적인 저장 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기록체계들인데, 인간의 기억력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이런 기억을 살아 있는 기억 간직한 자들과는 무관하게 고정시키는 문자의 기술이다.

기록물보관소의 철저한 구조 변화는 프랑스혁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봉건적 과거 강압적 붕괴를 통해 예전의 법률구조와 관리구조가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고, 더불어 질서를 승인했던 문헌도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가치가 상실되었던 기록물들은 폐기처분되지 않고 수집되었다. 그 후 새로운 역사적 증거의 가치를 얻게 되면서, 기록물들은 그 자체의 정당화 기능을 잃어버린 후에도 역사가들에겐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기록물보관소는 다양한 기능을 채우는 집단적 지식 저장소이다. 곧 보존, 선별, 개방이 특별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잠재적인 기억으로서 혹은 미래의 문화적 기억의 자료적 전제로서 기록물보관소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로이스는 문화경제라는 구상에서 쓴 글에서 기록물보관소(그는 그것을 ‘박물관’ 및 ‘문화적 기억’과 동일시하였지만 ‘도서관’과는 동일시하지 않았다)를 문화 속에서 주어진 시점에 한번은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모든 것의 비축 장소로 정의하였다. 옛것과 새것이 그에게는 변증법적으로 서로 관련되

20) Eckhart g. Franz, Einführung in die Archivrunde, darmstadt, 1974.



어 있다. 왜냐하면 혁신이란 기록물보관소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모든 새로운 사건은 그때까지 아무것과도 비교되지 않았던 것의 새로운 비교의 실행이다. 그 이유는 아무도 이 비교를 전에는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문화적 기억은 이러한 비교에 대한 기억이고, 새로운 것은 그것이 그 자체로 볼 때 동일한 새로운 비교일 경우에만 문화적 기억 로의 통로를 찾을 수 있다.” 그로이스가 보는 기록물보관소는 예술의 기억인데, 이때 예술이란 새로운 작품들을 말하고, 새로운 작품들의 혁신적인 내용이 혁신적 작품의 기준이 된다. 21)

한편으로 작품은 전통의 문화적인 토양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해체 가능하고, 없애고, 동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정체성, 자체의 고유한 기호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 작품의 보완 장치, 즉 기호를 담고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기호를 담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록물보관소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저장소가 아니라 거대한 망각의 메커니즘이 되었다. 영원히 전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산 자료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서적에 대한 기대는 서적 시대의 종말을 맞아 문화적 저장고의 보존에 대한 지속적 고민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다. 여기의 문화적 저장고는 저절로 퇴색되어 가고 있다. 전통적인 저장 방법을 따르고 역사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뿐만 아니라 유일한 민족사적 기록물들을 보존하는 이러한 자료 보유체도 현재 급격한 노화 과정과 붕괴 과정에 처해 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곧 구비 문화들이 일정 시간 기록물보관소에서 머문 후, 그 자료 보유 체라는 매체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1) 알라이다 아스만 / 변학수, 채연숙 옮김(2014),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471p~477p 편집



인쇄 매체보다도 사진, 음향 테이프, 전축판, 영화 등과 같은 아날로그 매체들이 문서로 보관되는 문제에서는 더욱더 심각하다. 이러한 보관에서 문서 보관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자료의 전이’란 저장기술에서 일어나는 보존되고 저장되고 정리되는 자료 보관소로서의 기록물보관소의 자리에 미래에는 완전히 자동화된 기억이 와서 스스로 제어하고 지속적으로 잊혀지는 것들을 다시 기억하도록 프로그램을 입력한다. 이러한 스스로 망각하고 스스로 기억하는 완전 자동 기록물보관소는 초능력 두뇌로 기능하는데, 인간 기억의 신경구조와 놀랍게도 가깝다. 그리하여 문화적 기억은 인간의 두뇌와 몸통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보호와 점검으로 가능하게 되고, 그것은 기술로 이전된다.

이러한 기술은 하드웨어의 낙후성이나 저장 방식의 변화를 통해 상업적 목적 때문에라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기록물보관소는 따라서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다시 말해 스스로 읽고 쓰는 기억이 된다. 예측 가능한 미래의 전망으로 표현되는 시나리오 내에서 공간적으로 폐쇄된 문화적 기억 장소로서의 기록물보관소의 이미지는 해체된다.

이러한 매체의 맥락에서 유네스코의 프로젝트 ‘세계의 기억’을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양식의 기록물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된 자료를 국제적으로 기록하고 네트워크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한 민족적 기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화, 음향 기록과 관련된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도서관의 계획을 들 수 있다. 이렇듯 국가들은 보존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선별의 의무가 꼭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토론들은 선별과 보존의 과정을 동반하게 되고 도시에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적 사회의 요구들이 신중히 다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적 표현인 ‘문화유산’은 새롭게 실용적인 활동으로 채워져 있다. 유네스코는 매년 세계문화유산의 목록에 수용할 새로운 신청자들에 대해 토론하는 학회를 연다. 1997년 나폴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5대륙의 문화유적지 38개와 자연 기적 8개가 추가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유물들은 세계문화유산기구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다층적 기억에서의 메모리얼 매체로써의 건축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 상징은 집단적 문화의 기억으로서 ‘상징적 에너지 저장소’와 같다.

사회에서는 이제 기억의 보존보다는 기억의 가치를 선별하거나 관리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비중은 사건의 흐름과는 대비되는 기억의 공간을 만들 뿐만 아니라 지연, 반향, 반복, 다시 연결함,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가져다준다.²²⁾

앞서 말한 기록물보관소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다문화적 사회의 거울을 담게 되었다. 현대 수많은 박물관, 뮤지엄, 도서관 등 매체에 의한 문화적 기억의 전이 과정에서 문화적 형태의 흐름, 실험적 정신, 표현요소를 통한 공간창조가 기억과 회상의 전이를 통해 다시 재배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2 현대 메모리얼의 건축과 공간의 변화

현대 메모리얼뮤지엄 건축은 건축가의 예술적 기질을 자극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작품들이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다. 뮤지엄은 16세기 르네상스 이후 ‘수집하는 물건을 받아 모으는 시설’ 정도로 의미되어 오다가 현대에 이

22) 알라이다 아스만 / 변학수, 채연숙 옮김(2014),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471p~477p 편집



르러 ‘보통의 사람들에 공개’가 보편화되면서, 뮤지엄이라는 사회적 개념이 1930년대의 근대건축의 정신이 반영된 뮤지엄의 등장으로 강화되었다. 19세기 유럽의 신흥도시에서는 시민의 문화적 긍지의 표상과 교육적 기대를 가지고 뮤지엄을 형성하였으며, 하나의 공공문화시설로서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개념으로 잘 보여준 것으로는 1974년 국제뮤지엄협의회(ICOM) IOCM은 International Council of the Museums의 약어로 1946년 UNESCO 산하에 조직된 국제기구의 하나이다. 총회에서 ‘뮤지엄이란 사회와 민중을 위하여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영리적이지 않은 봉사하는 상설기관’이라는 뮤지엄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규정에서 명백히 전하였다. 이는 과거의 뮤지엄의 역할은 ‘수장고’라는 오랜 정의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역할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다.

뮤지엄의 고유기능은 수집하여 보존하고, 조사하여 연구하는, 전시의 교육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예술품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전시한다는 것은 인간의 오랜 역사와 일반적 생활과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의미와 교육적 역할에 따라 현대뮤지엄의 역할은 교육과 보급의 활동, 지역사회봉사의 활동, 지도와 연구업무로써 변환되고 있다.²³⁾

뮤지엄은 교육·보급기능이 시작되면서 개방되기 시작하였고,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등장하였다. 또한 도시의 장식에서 국민의 교육장으로 전환되었고, 전문가 대상에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뮤지엄으로 확대되었다.

뮤지엄이라는 건축은 어느 시대사회에서나 각별한 의미로 건축되어 왔다.

23) 서민우, 서상우, 이성훈(2014), 기문당, 21세기 새로운 뮤지엄건축 편집



문화사적 의미에서 뮤지엄건축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뮤지엄 자체가 갖는 특수한 기능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 시대와 사회의 문화적 면모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축적 문화의 역할에서 뮤지엄은 근대 이후 대략 3개의 시대적 단락으로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란 단순히 건축양식의 전환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회적 역할과 그에 따른 내재적 기능의 진화를 의미한다.

낭만주의와 모더니즘을 거쳐 다윈의 시기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양식 또한 다윈의 세대 론을 맞이하고 현 다윈의 시기에서 중점적 부분은 사회·문화적 의미의 확대, 전문 뮤지엄으로서 개별성으로 제3세대의 뮤지엄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전시내용과 건축적 해결의 결합이 보다 강하게 개념되는 내용의 시기이며, 클래식 모더니즘, 문맥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건축 등의 다채로운 표현 경향 또한 현대뮤지엄의 수단적, 개방적 궁극 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뮤지엄의 수단적 궁극성은 형상에서 내부공간,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에 걸치는 총체성과 전시, 장치, 건축에 걸쳐 이루어지는 총체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뮤지엄의 공간은 동태적이면서도 전시계획의 대응을 건축적으로 확정하는 경향이다. 궁극적으로 뮤지엄 건축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수단’이 총체화 된 예술의 결과이나, 동시에 그는 동시대 문화를 개연적으로 외연화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2004년에 개관한 원형(原形)의 가나자와 21세기 현대미술관은 위계를 중시한 근대적 사고를 넘어 교훈적인 줄거리의 폐기라는 근대 이후의 사고에 적합하게 어떤 방향을 선택해 전시를 관람해도 좋도록 독특하면서도 위계적이지 않은 전시를 통해 무작위의 특히 건기를 가능하게 했다.²⁴⁾



단계적 연결위계를 가지고 상관되어야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자유로운 관람 동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뮤지엄 운영에 도움을 주는 방문객 편의시설(museum shop, cafeteria, 세미나실, 강당, 서점)은 개관시간과 관계없이 별도의 이용이 가능토록 배려되고 있다.

전시공간이 수직분리형이라도 대공간과 상관관계를 도모하고 있으며, 분동형식의 경우 중정 이외에도 각 동마다 독립적인 소규모 대공간을 가지고 있다. 기획전시를 위한 공간이 한정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상설전시공간으로 확대 수용하고 있다. 시대별·장르별로 교육을 겸한 안내센터(art information room)가 전문성을 가지고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디자인 이전단계에서 예상되고 자연채광을 위한 건축적 해결이 필요하며, 상층부뿐만이 아니라 하층부까지 전달되며, 자연광을 유입하기 위한 개구부가 외부조형으로 나타나 주변지역과 밀접한 상관성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건축이 병치될 경우 기존건물을 지원시설로 활용하고, 신축건물은 전시에 관련된 공간만을 구성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타났다.

현대 뮤지엄의 건축적 특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는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경향을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몬타네르의 저서 ‘21세기를 위한 뮤지엄(Museum for the 21st century)’에서의 분류, 이 분류에 의거해 미술관 건축의 현재상을 일곱 가지 트렌드로 제시한 김은경의 연구와 뉴 하우스(Victoria Newhouse)의 저서 ‘새로운 뮤지엄을 향하여(Towards New Museum)’에 나오는 현대 뮤지엄 건축의 흐름을 참조한다. 이 연구들에 나타난 구성 및 형태적 특성, 내외부의 환경적 관점,

24) 이관석(2014), 열화당, 현대 뮤지엄 건축 159P 인용



공간 성격, 증축된 뮤지엄의 성과의 특성, 물성적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정리²⁵⁾해 본 것이 <표 2-5>이다. 표를 통해, 현대 뮤지엄이 모든 면에서 양극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태를 드러냄을 새삼 확인 할 수 있다. 단순하거나 복잡한 구성, 형태미의 중시 또는 거부, 공적이거나 사적인 환경, 신성하거나 대중적인 공간성이 공존한다. 뮤지엄에서 중요한 확장성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기도 하고, 뮤지엄 건물을 대체하는 대안을 찾거나 아예 사이버 공간으로서의 뮤지엄이 모색되기도 한다.

<표 2-5> 현대 뮤지엄 건축의 경향

종 류	특 성	건축적 특성
구성	단순	White Cube
	복합	Collage Museum
형태	중시	Museum as Environmental Art / 예술품으로서의 뮤지엄
	거부	형태를 거부하는 뮤지엄
환경	공적	Museum as Entertainment / 뮤지엄의 역할 진화
	사적	Monographic /Museum / 맞춤형 뮤지엄
공간성	신적	Museum as Sacred Space
	대중적	Museum as Environmental Art / Museum as Entertainment
확장성	성공	Wings That Fly
	미비	Wings That Don' t fly
존재	변이	Museum as Subject Matter:Artist' s Alternative Spaces/ 체제를 거부하는 뮤지엄
	비존재	Virtual Museum

2.2.1 현대 메모리얼 건축의 사례와 메모리얼 구현 방식

서구의 많은 도시들이 도시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극장, 학교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하였다. 각 나라의 문화전략은 그 나라의 문화적 가치와 목적성에 맞게 선택되어지고 결정한다. 이에 각나라는 적극적인 문화적 지원

25) 이관석(2014), 열화당, 현대 뮤지엄 건축 143P 인용



정책수준에서 국가가 문화의 활성화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는 복지적 행정의 시대의 적극적 경제발전과 지원되는 행정, 문화의 욕구의 증대, 국제나라간 관계의 긴밀화에 있으며, 문화의 기능이 증대되고, 자국민들의 문화 가치의 보존과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독일 같은 경우 1940년대 지역적으로 분리된 연방공화국으로 구성된 국가 조직으로 권력의 분산화 정책에 따라 문화정책의 제도와 기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해진 역할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연방정부는 문화정책에 대한 기본행정 기관 등에서 계획을 실지로 행하는 일을 제공하며 해외문화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반면, 문화정책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은 각 주정부가 분담함에 있어서 각 지방에는 역사적인 박물관과 극장 및 문화적 유산들이 균등하게 할당되어 분포되어 있으며,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균형 잡힌 정책운영을 하고 있다.

중요한 문화정책으로는 각 예술, 공예품을 보호하고, 창의성의 개발을 유행하게 운영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개발을 도모하도록 문화생활에 참여 시키고 유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된 문화시설로는 독일 같은 경우 도서관과 병원, 학교 등 꼭 지을 수밖에 없는 공공건물을 건설하기에 급급하였다가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됨으로써 1950년대에는 교회 건축이 크게 유행을 타다가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문화시설을 늘리고 넓혀서 1970년대에 700개의 뮤지엄을 보유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뮤지엄 건축의 걸작들이 건축가에 의해서 또는 각 지자체의 랜드마크로 인해 곳곳에 걸쭉하게 속출하고 있다.



그 사례로 다니엘리베스킨트 유대인박물관(Jewish Museum Berlin, Germany Completed 1999)인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건축개념은 건축적 시나리오(Scenario)로 내레이션(Narration)의 기법을 적용하여 박물관의 공간구성과 동선을 적용하여 각 3개의 축을 만들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림 2-3> Jewish Museum Berlin, Germany Completed

첫 번째 축은 역사의 연속을 강조한 연속의 계단으로 박물관에서 전시공간으로 연결되고, 두 번째 축은 죽음으로 베를린을 떠나야하는 사람들을 추모하는 길로 호프만 가든과 연결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학살을 상징하는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인 홀로코스트 보이드로 이끌려 간다.

연속의 계단은 중첩 해체, 연속적인 수직적 동선으로 과거반성과 밝은 미래를 의미하며, 건축물에는 표면에 들어난 출입구가 없다. 전시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 박물관 건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건축물은 바로크 양식으로 되어있다. 이 건물로 들어간 뒤 지하통로로 출입할 수 있으며, 리베스킨트는 일부러 출입구를 지하에 숨겼다고 한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여기에서 두 개의 건물이 대변되는 역사로 건물의 연결하는 고리를 겹으로 드러내지 않고 풀 수 없는 끈으로 묶여 있으며, 베를린의 기초가 되는 밑바닥에 영원히 숨겨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첫 번째 축으로 들어오면 역사의 연속을 강조하는 ‘연속의 계단’이 박물관

의 전시공간으로 끌어당긴다. 기울어진 사선 구조물들은 건축 구조에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없지만 의도적 이미지로써, 시각적 방향성에 집중하게 한다. 이러한 의도는 시간과 공간에서는 중첩되어 보이지만 관계를 해체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며, 시공간을 해체하려는 의도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동선 안에서 비극적인 과거의 만행을 반성하는 오늘의 이미지며, 밝은 미래를 보여주려는 동시적 이미지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림 2-4> Jewish Museum Berlin, Germany Completed 내부

두 번째 축을 따라 걷다보면 외부 정원으로 죽음으로 베를린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을 그리는 ‘e호프만 가든’과 연결된다. 49개의 기둥이 0.9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약 1.5m, 세로 약 7m 으로 설치되어 있다. 바닥의 경사는 12도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둥들은 망명 중 죽어간 유대인의 묘비를 연상시킨다. 박물관의 외벽의 금속성과 각기의 다른 재질들은 공간감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기울여진 울퉁불퉁한 바닥을 걸을 때, 이동의 불편함과 함께 웬지 모를 혼란을 느끼게 된다. 그 위 기둥의 상단에는 도토리나무가 어수선하고 형클어진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체험은 망명을 하는 상징적 차원으로 유대인이 박해를 받는 느낌, 이주를 위해 사막을 건너는 동안 유일한 은신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의 내부공간은 닫혀있는 폐쇄적 공간으로 미로와 같이 철저히 고립

되어 있어 관람객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 미로 속의 두려움은 처음부터 정해진 목표를 향해 복잡한 공간을 한 방향으로만 가도록 억누름을 받는다. 이곳은 건축가의 의도적 설계로 복잡하고 혼란스런 동선을 만들어 기존 순환동선의 관람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극적인 공간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극한 경험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2-5> Jewish Museum Berlin, Germany Completed 상징성

세 번째 축 홀로코스트 타워는 빛의 연출로 상징성 및 심미성, 체험성의 공간을 창조하였으며, 유대인 박물관의 외관 파사드는 길게 도려진 틈을 난도질한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러한 날카로운 흔적들은 나치에 의한 학살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건축적 언어로 리베스킨트는 건축물에 ‘상처’를 주어, 외관에서부터 수십 년 전 유대인 학살을 사실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홀로코스트 축에는 비참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지녔던 물건과 추억이 함께 전시되어 있으며 복도 끝에는 무거운 철문으로 되어 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묵직한 철문이 닫히며, 24m의 좁고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 속에서 절대 어둠을 경험하게 되는 홀로코스트 타워이다. 조명도 없이 냉한 기운이 돌며 침묵만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통로 끝 상층부에 작은 틈의 한줄기 빛이 절망적인 역사에서 벗어나 공포와 비틀린 역사를 희망의 공간으로 다시 상기 시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빛은 보이드 공간에서 또는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표현요소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심리적·물리적 측면에서 인간에게 풍부한 경험을 가져다주는 요소이다. 또한 이러한 빛의 연출은 특정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거나, 감정이 요동치는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공간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다. 리베스키는 빛을 이용하여 건축과 공간에 있어 상징성 및 심미성, 체험성을 선사한다. 이는 홀로코스트 끝에 희망찬 미래를 표현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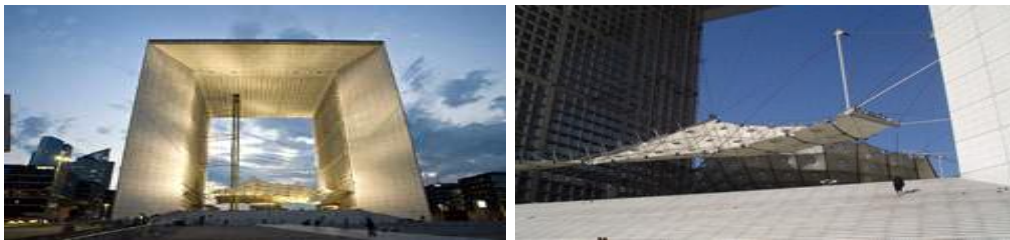
내부에는 ‘공백의 기억(Memory of Void)’이라는 감성적 체험이 극대화되는 공간적 체험 장치가 바닥에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현대미술가인 메나셰 카디쉬만(Menashe Kadishman)의 작품으로 연출하였다. 목숨을 잃은 유대인 얼굴을 형상화한 원형의 강철 조각은 각기 다른 얼굴형태를 나타내며 불규칙하게 바닥에 깔려 있다. 관람객이 밟고 지나갈 때 들리는 강철 조각들의 마찰음은 마치 학살당할 때의 비명소리처럼 들리며, 좁고 깊은 공간에서 감성과 울분이 퍼져 나간다. 공간을 지나게 되면 이 닫힌 공간에서 고요한 적막과 함께 그 당시의 모습을 그리며 회상에 빠지게 된다.

박물관 내부공간에 구조적으로 비어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기본 개념으로 택한 보이드 공간으로 재가 되어 버린 유대인, 단절된 역사, 베를린에서 유대인이 떠난 자리로 그 실재감이 건축 공간 곳곳에 내포하며 빈 공간에 표출되어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그랑 다르슈(La Grande Arche)이다.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기념해 세운 신개선문인 그랑다르슈(La Grande Arche de la Defense)는 미테랑 대통령 시절 승전을 기념하는 의미가 아닌 인류애와 평화를 담은 프



랑스혁명 200주년 기념물을 만들자는 논의에 가로*세로*높이 모두 110m로 지어졌다. 그랑다르슈는 3차원세계의 모습이 투영된 하이퍼큐브를 형상화했으며,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요한 오토 본 스프렉켈슨(Johann Otto von Spreckelsen)이 설계를 했고 외관은 콘크리스 위에 유리 와 대리석으로 치장했다.



<그림 2-6> La Grande Arche

1985년에 공사를 시작해 1989년에 완공된 그랑다르슈는 파리개선문(에뚜알개선문)과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다. 그랑다르슈는 문화적 전이 형태로써 기념비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 내부 중앙이 빈 입방체로 되어 있으며, 흰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단순하게, 또는 아이들의 유희처럼, ‘세계를 향한 창’을 표현하였다. 이는 전 지구적인 하나의 공감대를 의미하며, 기존의 유행하는 양식적인 형태를 벗어나 순수함을 주는 기념비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아치는 상부 옥상을 지탱하고 있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다섯 대의 엘리베이터 양쪽 끝을 반원형 유리 원통모양 돔으로 고안됐다. 이 유리원통은 기술적 정교함과 그 강도가 단단하여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뿐더러, 하이테크 건축 기법을 사용하여, 천정을 구름모양의 텐트로 덮은 구조는 환상적 이미지를 가져다준다. 그리고 앞의 넓다란 광장은 새로운 파리의 만남의 장소로서 열린 음악회나 연주회 등 많은 연례행사가 열린다. 파리는 역사적인 장소에 새로운 현대식 건물을 만들어 내고자 지극한 노력에 건축

적 이념과 설계 속에 여러 관념적 공통적 요소를 뽑아내어 상징적인 건물을 만들었다. 덴마크 건축가 스프레켈센(Johan Otto von Spreckelsen)의 말에 의하면 그랑 다르슈는 현대의 개선문이며 미래를 향한 희망의 상징이라 표현했다. 하지만 그는 준공된 것을 보지 못한 채 타계했다. 그가 죽은 뒤 그랑 다르슈는 프랑스 건축가인 폴 앙드로와 프랑수아 델로지가 함께 완성했다.

세 번째 사례의 데이비스 브로디 본드(Davis Brody Bond)의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은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WTC)에서 자행된, 3,000여명이 죽은 참사를 추모·애도하기 위해 건설된 뉴욕의 박물관 및 기념관이다.



<그림 2-7>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소방관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구조 활동을 펼쳤던 사다리 소방차, 그리고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탈출구였던 생존자의 계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외벽과 계단, 기둥은 그대로 보존해 두었다. 녹슨 철기둥 SAVE라는 글자는 쌍둥이빌딩에서 가져온 마지막 기둥으로 경찰과 소방관들이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했던 의지를 떠올리는 상징물이다. 생명의 계단(Survivor's stairs) 동선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탈출구의 동선을 유지하였으며, 내부 메모리얼 홀인 한쪽 벽면 “시간이 지나도 결코 그대들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못하다. (No Day Shall Erase You From the Memory of

Time)라는 문구로 사건의 체험과 기억을 새겨 놓아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듯 현 메모리얼 건축의 사례를 통해 표현요소들이 건축과 공간에 시각적 메모리를 부여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감정이입 및 추모의 행위, 다층적 기억을 느낄 수 있었다.



2.3 선행논문을 통한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요소 분류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요소인 기념적 메모리얼, 전이적 메모리얼, 기호학적 메모리얼에 해당하는 각 5편씩의 선행논문의 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표현 특성을 구분하여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의 표현요소를 도출하였다.

표현요소 도출시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형태요소, 건축적 표현 요소, 메스 표현으로 구분을 하였고, 이는 다시 공통적 언어를 도출하여 총 3가지인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표현요소, 공간적 디자인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2.3.1 기념적 메모리얼의 선행논문 분석

첫 번째, 기념적메모리얼의 선행논문의 범위는 2011년에서 2016년까지의 선행논문으로 키워드는 사회적 애도·추모·치유 메모리얼이며, 각 선행논문의 내용 분석에 메모리얼뮤지엄 사례분석을 포함한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표 2-6 참조)

이렇듯 각 선행논문마다 다의적 의미 표현과 요소 분류, 사례조사를 분석하였다. (표 2-7 참조)



2. 건축적 시나리오를 통한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재구성 계획안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형태요소	건축적 표현요소	메스표현
순국유적지 역사적 고찰 자주독립정신 체험, 추모 인식 공유의 공간	기념관 재구성 3.1 운동 순국 기념탑 제암 교회 23인 순국묘지 역사전시관 정신교육관 파빌리온	연속성, 연계성 경건함, 무거움 차분함, 은은함 가벼운, 밝은 평온함, 어둡고 경허함, 신성함	리즘 구조 순환동선 교회 묘지 - 보존기념관 정신교육관 - 신축 흐름, 물, 빛
사례조사 1.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 2. 운동주 문학관 3. Vietnam Veterans Memorial- Maya Lin			

3. 도심, 추모를 위한 건축 계획안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형태요소	건축적 표현요소	메스표현
인권운동 기억의 공간 추모_인간과 자연의 회복 나무의 향기	기념관 추방의 정원 백단원_화단 장난감시스템의 유래 (작은 단위조합)	다비드의 별 형상 도덕, 감성, 형이상학적 자연의 연결 신비로움	날카로운 선 보이드 흐르는 물소리, 빛연출 연속적 배열
사례조사 1. 국립 9.11 테러 추모기념관 2. Awaji Yumebutai 淡路夢舞台 (담 로몽무태관) 3. 켄고쿠마의 GC 프로스트 뮤지엄			

4. 기억의 개념적 특성을 적용한 메모리얼 공간 디자인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형태요소	건축적 표현요소	메스표현
애도의 책무 반성적 사유 사유적 애도 집단적 트라우마 공적기억 기억과 치유	추상적 형태 그라운드 제로 메모리얼 기념조형물 건물터 소리 없는 기념물	명상 흔적의 보전 부재의 반추 연속성 재구성 리듬	비재현적 빛의 현정 흘러내리는 물웅덩 이 비구상적 미니멀리즘 추상적
사례조사 1. 그라운드 제로 (Ground Zero)에 메모리얼 2.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 3.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5.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 공간사고와 디자인 수법에 관한 연구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형태요소	건축적 표현요소	메스표현
집단적 기억의 민족 트라우마 치유, 상기 장소의 역사 담기 장소의 혼 역사의 장소적 맥락주의 장소의 기원 신체적 경험	홀로코스트 박물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상징 다차원적 열린건축 기하학적 비선형적	재현, 인식 다원화 투영 모호성 동시성 중첩 무채색 복수적, 이질적 추상적, 리듬 가시적, 비가시적	중첩, 병치 치환함 예각 빛과 어둠의 대비 모호한 경계 비정형과 탈 구축 불연속적 혼합 부재의 공간 애매모호함 무중력
사례조사 1. 다니엘 리베스킨트 홀로코스트 2.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3.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 4. 덴마크 유대인박물관 5. 샌프란시스코 유대인박물관			

<표 2-8> 기념적메모리얼 선행논문 2차 표현요소 분류 도출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형태요소	건축적 표현요소	메스표현
1. 사회적 애도, 집단기억 2. 장소의 특정성 추모 3. 흔적의 보존과 상징	모뉴먼트 기념비 유적지 배경 재구성	긴장감, 연결성 수직성 재현, 인식	연속성 빛과 어둠의 대비 중첩의 유입, 예각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표현요소	공간적 디자인 개념
1. 사회적 애도, 집단기억 2. 장소의 특정성 추모 3. 흔적의 보존과 사유적 경험	모뉴먼트 기념비 유적지 배경 재구성	순환동선, 숭고미 연속적인 조소적 형태 장소적 확산(빛, 수, 명상의 유입)

2.3.2 전이적 메모리얼의 선행논문 분석

두 번째, 전이적 메모리얼의 선행논문의 범위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의 선행논문으로 키워드는 전이. 비정형, 해체, 유기적으로 각 선행논문의 내용 분석에서 뮤지엄의 사례분석을 포함한 논문으로 선정하여 (표 2-9 참조), 다층적 의미 표현과 요소 분류를 하였다. (표 2-10 참조).

<표 2-9> 전이적메모리얼 선행논문

번호	제목	저자	년도
1	디지털 테크놀로지 도입 이후 변화된 프랭크 게리와 피터 아이젠만의 건축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of Frank O. Gehry and Peter Eisenman After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y	윤태건	2016
2	건축형태에 있어서의 비정형성에 대한 이미지특성 분석 연구 (A) study on analysis of image characteristics of informal in architectural form	김형태	2016
3	들뢰즈의 '감각-운동 도식'의 해체를 통한 건축적 감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Affection by disassemble of G. Deleuze's Sensory-Motor Schema	신재	2015
4	이접적 종합과 현대건축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탈근대 건축운동과 베르나르 추미, 램 쿨하스의 건축과 개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disjunctive synthesis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Context	이상영	2014
5	정형 · 비정형 건축의 유기적 이론의 적용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ormal and Informal Architecture Application of Organic theories.	안재근	2014

<표 2-10> 전이적메모리얼 선행논문 1차 표현요소 분류 도출

1. 디지털 테크놀로지 도입 이후 변화된 프랭크 게리와 피터 아이젠만의 건축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비교 연구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형태요소	건축적 표현요소	메스표현
건축가의 직관에 의한 형태생성과 변형 가상현실 진화시스템 (the evolutionary system) 사색적인 시학 건축 문어 (文語: architecture parlante) 이성과 표현에 대한 논쟁	Self-generation, Self-organization 유기주의 복잡성과학 비선형역학 새로운 생물학 자유로운 형태, 운동적 형태 순간적인 우연적 형태 다이어그램 구조모델의 증축 자유로운 형태 모핑(외곽선 연결, 간선도로의 연결)	실제상황의 유사한 재현 자연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 기하학적 착시적 사다리꼴 입면 형태의 스킨화 자유로운 곡선 시각적 메모리 지수적 변경 간접적 변형 불규칙 외곽선 연결 간선도로의 연결	가상현실과 추상 사이의 영역 통합 이중곡률의 볼륨 순간적 구겨짐 기하학적 비연속적 자연, 생물적 휘어짐 비대칭, 중첩 세그먼트, 사인과 적용 바닥패턴 형성
사례조사 1. 프랭크 게리 Weisman Art Museums 2. 프랭크 게리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3. 피터아이젠만 예모리 예술센터 4. 피터아이젠만 비엔나 메모리얼			

2. 건축형태에 있어서의 비정형성에 대한 이미지특성 분석 연구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형태요소	건축적 표현요소	메스표현
자유의회 디지털 매체의 융합 가상성 기술 통합 자신만의 문법 개발	비정형 애매모호함 자기지시성 랜드스케이프 디폼, 스페이스 웹	개방, 역동, 무작위 투사성 중첩, 주름 솔리드모델형	연속성, 유동성 곡선, 불규칙 비정형성 다이어그램
사례조사 1. 빌바오 구겐하임 2. 윌트 디지니 콘서트 홀 3. 바렌시아 오페라 하우스			

3. 들뢰즈의 '감각-운동 도식'의 해체를 통한 건축적 감화에 관한 연구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형태요소	건축적 표현요소	메스표현
우연한 일치의 감화 전달 지각 의로 전이, 반사, 투쟁, 흡수(감화의 전이) 감각-운동, 도식 지각과 행동 사이의 간극 간극을 점유하는 감화 혼란스런 지각, 주저스런 행위 잠재적 차원으로 전이 촉각적 새로운 아우라 다양한 지각에 의한 경험 기억의 감각과 상상의 연결	탈 모더니즘 지표를 상실한 불특정한 공간 불투명한 공간의 구조 추상적인 시각 파편화 어긋남 질서의 해체 분산 불투명 촉각적 분위기 시간의 흔적	탈 원근 촉각적 공간 기하학적 구성 불규칙한 표면 초점의 혼합 외각선의 모호 램프의 부분적 형상화 기능을 잃어버린 폐허된 부분 거친 표면 독립적인 벽면 비워냄	유기적인 구조 파편화된 촉각화 지표의 소거 추상적 질서 역동적인 공간감 중첩된 모호한 나선형 불연속성 기능이 소거된 공간의 순수한 공백-시각적 환영 효과적 음향구조 공간의 내러티브 연결성, 잠재성
사례조사 1. 르꼬르뷔제의 스트라우스르 의사당 2. 페터 Zumthor 3. 루이스 칸 솔트 연구소 4. 이소진 윤동주 문학관 5. 선유도 공원			



4. 이접적 종합과 현대건축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탈근대 건축운동과 베르나르 추미, 램 쿨하스의 건축과 개념을 중심으로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형태요소	건축적 표현요소	메스표현
이접적 종합 쌍자현상(이중현상) 모호한 명료성 중간영역 메타몰포시스 심바이오시스	완충, 공존 전체와 개체의 조화 다른 차원의 공생 경험되는 공간 변질, 변형, 대변혁 중간매개체 공생의 확장	내외부 공생관계 이음 다원적 중식, 반복, 연결된 선 자연과 건축의 불확신 선 이질적, 대립	이질적인 단조로움 다양성을 포용한 통일성 이중성 중화된 돔 중간공간의 다중화 자연의 빛 유입 혼성, 이접
사례조사 1. 사이타마 현 현대예술박물관(Saitama Prefectural Museum, 1978-1982) 2. 히로시마시 현대미술관(Hiroshima city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88-1989) 3. 베르나르 추미 라 빌레뜨 공원			

5. 정형 · 비정형 건축의 유기적 이론의 적용 특성에 관한 연구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형태요소	건축적 표현요소	메스표현
과학의 발전 자연과의 변환 진화와 성장 데 스테일 운동 레이트 모건 자유 형태 운동 (인간 내면 감성, 주관주의적 가치관 회복) 앵포르멜 운동 해체주의 네오 모더니즘 의도의 현실화 유기적인 형태 (organhaft form)	유기체론 다원화 기하학적 추상적 형태, 조각적 형태 재구성 다다이즘적 조형관 조합 형이상학적, 추상적 탈 기하학적 형태 모방, 복제, 차용	탈 원근 생물학적 직선적, 매끈함 슬릭테크 복구를 위한 기능적 합리적 모더니즘 변형, 전치 애매한 연속 모호성의 공간 심미적	유기적인 구조 추상형태 비례, 분할, 교차 추상적 형태, 투사 곡선 즉흥적 조형성 다양성 중첩, 회전 중첩, 복합 변칙적 구성, 새로운 재료와 기술 집중, 분산, 삼입, 독립적 활용
사례조사 1. Dominique Perrault _ National Library of France 2. Toyo Ito _ Sendai Mediatheque 3. Herzog & de Meuron _ Barcelona Forum Buildin			



<표 2-11> 전이적메모리얼 선행논문 2차 표현요소 분류 도출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형태요소	건축적 표현요소	메스표현
1. 건축가의 직관에 의한 형태생성과 변형 2. 다양한 시각에 의한 경험 3. 이접적 종합	Self-generation Self-organization 순간적 우연한 형태 공존, 형이상학	유사한 재현 시각적메모리 리듬, 다이어그램 내.외부 공생관계	가상현실과 추상 사이의 영역 통합 중첩, 기하학적, 연속성 중간공간의 다중화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표현요소	공간적 디자인 개념
1. 건축가의 직관에 의한 추상적 형태생성과 변형 2. 다양한 시각에 의한 유기적 진화 3. 이접적 종합의 시간의 전이	조형성 실험성 Self-generation, Self-organization 시각적메모리 - 분열, 대체, 전이	중첩, 회전, 복합 가상과 추상사이의 영역 통합 비대칭성, 비연속, 탈구조

2.3.3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선행논문 분석

세 번째, 기호학적메모리얼의 선행논문의 범위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선행논문으로 키워드는 기호, 현대건축, 상징, 다차원이며, 각 선행논문의 내용 분석에서 뮤지엄의 사례분석을 포함한 논문으로 선정하여 (표 2-12 참조), 다층적 의미 표현과 요소 분류를 하였다.(표 2-13 참조)

<표 2-12> 기호학적메모리얼 선행논문

번호	제목	저자	년도
1	루이스 바라간 건축에 나타난 전이요소에 의한 공간적 특성 연구	김민경	2017
2	제임스 터렐의 공간연출에 나타난 경계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	김소영	2017
3	현대건축의 내부공간에 나타나는 표현특성 및 표현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 문화시설에서의 내·외부 관계성을 중심으로	박희경	2017
4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로 본 현대건축의 특성 : Rem Koolhaas, SANAA, Sou Fujimoto, Peter Zumthor 사례를 중심으로	박주석	2016
5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모델을 적용한 현대건축의 특성 분석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utilizing the Greimas' semiotic square model	홍근표	2013

<표 2-13> 기호학적메모리얼 선행논문 1차 표현요소 분류 도출

1. 제임스 터렐의 공간연출에 나타난 경계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형태요소	건축적 표현요소	메스표현
공간경계에 대한 모호성 시각의 경계의 모호성 체험의 경계의 모호성 물리의 경계의 모호성 선현적 경험과 시간의 전이	승고함, 인내, 명상, 성찰 환경자극, 지각 신경계통의 활동 불확정성, 비에측성, 전이성 투명성, 중첩성,	확장성, 연속성, 상호성 시간성, 우연성, 가변성, 혼합성, 분열성, 유희성 지각의 혼돈 피스 투사조각	연속성 틀어짐 유입, 빛, 반사성 보이드 빛의 현정 흘러내리는 물웅덩이

사례조사 1. Shallow Space Constructions ‘RONDO BLUE’
 2. Projection Pieces ‘PORTER POWELL(WHITE)’
 3. The Light inside 는 휴스턴 미술관(MFAH)의 지하연결 통로
 4.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30년 만에 ATEN REIGN, 태양 원반에 통치 작품

2.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로 본 현대건축의 특성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형태요소	건축적 표현요소	메스표현
비의지적 잠재성 의미심성 가능성 다층적 감각 활성화 혼동의 수용 텍스트 기호로의 탈 신화화 자유의지에 의한 해석	복합성 대립성 모호성 다양성 상호텍스트 중첩된 혼제된 파편화된기표	기호적 표현 과장, 축소, 제거, 강조 불명확성, 우연성 분산, 위계탈피 다성적인 텍스트 내외부 유동적 관입	흥미유발 다중의미 분위기, 감각의 다층화 병치, 나선형 램프 유동적인 공간 연속성

사례조사 Rem Koolhaas의 1. 에듀커토리움 2. 시애틀 공공 도서관 3. 서울대 미술관
 SANAA의 1. 21세기 미술관 2. 스타드 극장 3. K-Profect 히로시 센쥬 미술관
 Peter Zumthor 1. 테름 발스 온천 2. 콜롬바 미술관 . 브루더 클라우스 교회

3.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모델을 적용한 현대건축의 특성 분석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형태요소	건축적 표현요소	메스표현
이성과 감성의 딜레마 현상학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의 커뮤니케이션 주체철학 과학주의 계몽주의 철학적 사유, 비 표상적 사유 현재화하는 활동 노모스적 체계 메타스타시스(Mtastasis) 언어기호학 기호 삼각형 기호 사각형	순환, 역속, 반복 물질적 반복, 정신적 반복 건축기호사각형 재현 비표상적인 감성적인 진공상태 노마드 접속 프랙탈구조 선형성, 자의성 기호, 대상, 해석소 범주적 대립	탈형식화 기호학적 모델 외시, 공시 비위계적 분위기, 물질성 주체와 객체의 융합 아름다움, 가벼움, 쾌활함 탈영토화 기술적, 음악적, 수학적, 미학적모델 변화, 변이 커뮤니케이션 모델 재현 분절	유목적 공간개념 잠재적 체험 매개 위상가하학 형태의 변화 긴장감과 친밀감의 레벨 리즘 감응 비결정적
사례조사 1. Peter Zumthor, Kolumba Museum 2. 헤더워 스튜디오,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영국관(UK Pavilion) 3. dmp건축,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계획안 4. SANAA, Novartis Campus WSJ-157 모형작업			

<표 2-14> 기호학적메모리얼 선행논문 2차 표현요소 분류 도출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형태요소	건축적 표현요소	메스표현
1. 선험적 경험과 시간의 전이 2. 자유의지에 의한 해석 3. 그레마스 기호학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중첩성, 확장성, 연속성 중첩된 혼재된 파편화된기표 건축기호	시간성, 우연성, 가변성, 혼합성 내외부 유동적 관입 외시, 공시	분해, 분산, 환이, 변환, 양태 연속성 매개성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표현요소	공간적 디자인 개념
1. 현상학, 혼동의 수용 2. 잠재적 체험, 자유의지에 의한 해석 3. 기호학 커뮤니케이션의 다원화	위계탈피 미로, 접기, 형태적 불연속 상징성, 다원성	복잡성, 가시성, 다중성, 지속성 공간의 분절과 재결합 프랙탈 구조

분석에 의한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로는 기념적메모리얼 같은 경우 기억의 행위인 회상과 기념을 통해 문화적 형태인 추모가 나타났으며, 전이적메모리얼에서는 기억의 행위가 해체, 전이를 통해 문화적 형태인 진화가 나타났다. 세 번째 기호학적메모리얼에서는 기억의 행위가 다층, 기호를 통해, 다원성 기호적 표현의 문화적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요소인 기념적메모리얼, 전이적메모리얼, 기호학적메모리얼에 표현요소를 도출한 결과 시대적 흐름의 맥락적 부분이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현 뮤지엄은 시대의 흐름에서 이러한 진화의 요소들이 점점 더 다양화 되고, 건축가에 의한 다원적 표현으로 건축과 공간의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들이 표출되고 있었다.

2.3.4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특성요소에 의한 설계도

위 선행논문의 분석표에 의해 본 논문은 다음(그림2-8)과 같이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특성요소 설계도를 만들 수 있었다.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요소	기념적 메모리얼	전이적 메모리얼	기호학적 메모리얼
다층적 기억의 표현 요소	 회상 기념 추모 기억의 행위 문화적 형태	 해체 전이 진화 기억의 행위 문화적 형태	 다층 기호 다원 기억의 행위 문화적 형태
건축 요소	1. 모뉴먼트 2. 기념비 3. 유적지 배경 재구성	1. 조형성 실험성 2. organization 3. 시각적메모리	1. 위계탈피 2. 형태적 불연속 3. 상징성적 기호성
공간 요소	1. 순환동선, 송고미 2. 연속적인 조소적 형태 3. 장소적 확산	1. 중첩, 회전, 복합 2. 가상과 추상사이의 영역 통합 3. 비대칭성, 비연속, 탈구조	1. 복잡성, 다중성, 지속성 2. 공간의 분절과 재결합 3. 프랙탈 구조

<그림 2-8>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특성요소 설계도

위 선행논문의 분석을 통해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요소인 기념적 메모리얼, 전이적 메모리얼,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3가지로 크게 공통 분류를 할 수 있었으며, 이 각각의 표현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기념적 메모리얼은 기억의 행위인 회상, 기념을 통해 문화적 형태의 추모가 나타났다. 선행논문을 통해 건축표현요소의 공통된 3가지는 모뉴먼트, 기념비, 유적지 배경 재구성이라는 요소가 가장 많았다. 공간표현요소에는 순환동선, 숭고미, 연속적인 조소적 형태, 장소적 확산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표현 되었다.

여기에서 건축요소는 건축의 표현요소 즉 외형적 매스와 조형감으로 범위를 정했으며, 공간표현요소는 건축내부의 구조공간과 즉 실내 내부를 범위로 잡아 구분하였다.

두 번째인 전이적 메모리얼은 기억의 행위인 해체, 전이를 통해 문화적 형태의 진화가 나타났다. 선행논문의 분석을 통해 건축표현요소의 공통된 3가지는 조형성 실험성, Organization, 시각적메모리 요소가 가장 많았다. 공간표현요소에는 중첩, 회전, 복합, 가상과 추상사이의 영역 통합, 비대칭성, 비역속, 탈구조가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표현 되었다.

세 번째인 기념적 메모리얼은 기억의 행위인 다층, 기호를 통해 문화적 형태인 다원이 나타났다. 선행논문의 분석을 통해 건축표현요소는 위계탈피, 형태적 불연속, 상징성적 기호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공간표현요소로는 복잡성, 다중성, 지속성, 공간의 분절과 재결합, 프렉탈 구조가 공통적으로 많이 표현 되었다.

이는 <그림 2-8> 설계도에 의해 분석표와 이후 분석표에 의한 사례분석으로 뒷받침하려 한다.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와 표현요소

- 3.1 기념적 메모리얼 정의 및 표현요소 분석
- 3.2 전이적 메모리얼 정의 및 표현요소 분석
- 3.3 기호학적 메모리얼 정의 및 표현요소 분석
- 3.4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가 적용된 분석표
- 3.5 소 결



제 3 장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와 표현요소

3.1 기념적메모리얼 정의 및 표현요소 분석

대표적인 기념적메모리얼을 살펴보면, 뉴 아크로폴리스뮤지엄, 파블로프고고학 박물관, 로마니티 박물관 등 유물과 장소를 통한 장소의 기억이 표출된 장소나, 하나의 문화적 유산의 기념으로 장소의 고유한 역사를 현시대에 맞춰 다시 전이의 장소로 표출된 사례에서 많이 나타난다. 다층적 기억의 장소의 ‘터’에서 전형적인 모뉴먼트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회상기억이 기억의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장소적 아우라에 직접적 체험을 느낄 수 있으며, 회상, 기념, 추모를 통한 문화적 행위가 이루어진다.

3.1.1 기념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 - 회상, 기념, 추모

기념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 <표3-1>에서 회상, 기념, 추모는 문화적 기억 공간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요소이며, 역사적 장소의 집단기억이 잘 표출되어 있다. 흔적의 보존과 사유적 경험을 끌어내어 문화적 형태로 기념하고 추모하는 공간을 만든다.

이러한 공간의 극적인 체험을 위해 빛과 어둠의 대비, 중첩, 병치(두개 이상의 것을 한곳에 나란히 두어 설치함), 치환²⁶⁾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26) 치환, 置換, displacement : 자아방어기제의 하나. 어떤 일정한 관념, 표상으로 향해져 있었던 감정에너지를 다른 관념, 표상으로 바꾸어서 옮기는 기제(機制)를 말한다. 「승화(昇華)」도 포함된다. 한국사전연구사



<표 3-1> 기념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표현요소	공간적 디자인 개념
1. 사회적 애도, 집단기억 2. 장소의 특정성 추모 3. 흔적의 보존과 사유적 경험	모뉴먼트 기념비 유적지 배경 재구성	순환동선, 숭고미 연속적인 조소적 형태 장소적 확산(빛, 수, 명상의 유입)

또한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는 모호한 경계에서 비정형과 탈구축, 불연속적 부재의 공간, 무중력 같은 공간연출이 표출되어 나타난다. 베르나르 추미의 뉴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같은 경우 고고학 박물관의 유물 그대로 발굴 흔적을 보존하여 표출하며, 이러한 표출은 건축물의 표현요소로 그대로 나타내거나 장소적 확산으로 유입한다.

이렇듯 기념적 메모리얼은 역사 속에 신화의 장소, 신전의 장소로써 추모와 기념의 문화적 형태로 나타나며, 집단의 단결과 존속을 유지하며, 이러한 장소에서는 회상, 재생, 치유의 공간적 의미를 가진다.

건축표현요소로는 모뉴먼트, 기념비, 유적지 배경 재구성과 공간표현요소로는 순환동선, 숭고미, 연속적인 조소적 형태, 장소적 확산으로 나타난다.

3.1.2 기념적 메모리얼의 대표 사례

이러한 건축표현 요소에서 모뉴먼트, 7세기의 고고학적 유적 터의 재구성과 공간표현의 연속적인 조소적 형태, 장소적 확산의 요소를 가장 잘 표출된 건축이 뉴 아크로폴리스 뮤지엄(New Acropolis Museum)²⁷⁾ 이다.

27) 마로니에북스,(2009),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 1001, 편집





<그림 3-2> New Acropolis Museum (Bernard Tschumi)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는 지역가 건축가인 미카엘 포티아디스(ARSY)와 함께 설계한 뉴 아크로폴리스 뮤지엄(New Acropolis Museum)은 아르카이크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도시의 고고학적 보물이 소장되어 있으며, 파르테논으로 부터 가까운 244미터의 거리에, 오래된 시대의 신성한 바위 남쪽에 위치해 있다. 역사적 유적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보여주고 있으며, 빛을 잘 활용한 넓게 열린 갤러리 공간에 많은 투명한 섹션들이 유물의 전시를 돋보이게 하면서 구세계와 신세계를 연결해 주고 있다. 아테네의 웅장한 역사적 배경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기하학적인 추상성과 현시대적 배경이 어울리는 디자인의 단순성이 건축에 표현되었다.

현재 런던의 대영 박물관이 조각품을 소유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지만, 박물관의 최상층은 파르테논 전시홀로 조각물을 맞이하기 위하여, 전면 유리 홀에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내포성의 표현으로 홀 전체가 파르테논 신전을 거울처럼 비추도록 기울어져 있게 해 놓았다. 파르테논 마블이 돌아온다면 옛날 신전에 걸려 있던 때와 똑같은 축으로 걸릴 수 있을 것이고, 박물관을 찾는 이들은 이 역사적인 건축물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건물은 최신 기술과 고대의 재료들을 결합 시킨 ... 도시 안의 박물관이다.”라고 베르나르 추미는 말하였다.

3.2 전이적 메모리얼 정의 및 표현요소 분석

3.2.1 전이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 - 해체, 전이, 진화

이제 기념 장소는 기억 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현 시대에 필요로 하는 새로운 변화와 보존의 다른 해석이 이 논문의 분석에 의해 <표 3-2>과 같이 표출되었다.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인 전이적 메모리얼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세대의 변화를 통해 기존의 기념관, 기념비의 모뉴먼트의 역할과 공간이 이제는 보존과 복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해석을 통한 또 다른 회복의 공간, 전통을 규정하는 문화와 더불어 망각과 잊혀진 것을 다시 복구하는 하나의 모델이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문화의 발전 과정을 무의식의 세계로 빠뜨리며 진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억압되었던 트라우마 장소는 세대를 거쳐 회복되어 지고, 공공의 목적으로 희망적인 장소로 바꾸어 준다. 즉, 기억의 행위인 해체, 전이를 통해 문화적 형태는 점점 진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3-2> 전이적 메모리얼 표현요소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표현요소	공간적 디자인 개념
1. 건축가의 직관에 의한 추상적 형태생성과 변형	조형성 실험성	중첩, 회전, 복합
2. 다양한 시각에 의한 유기적 진화	Self-generation, Self-organization	가상과 추상사이의 영역 통합
3. 이접적 종합과 시간의 전이	시각적메모리 - 분열, 대체, 전이	비대칭성, 비연속, 탈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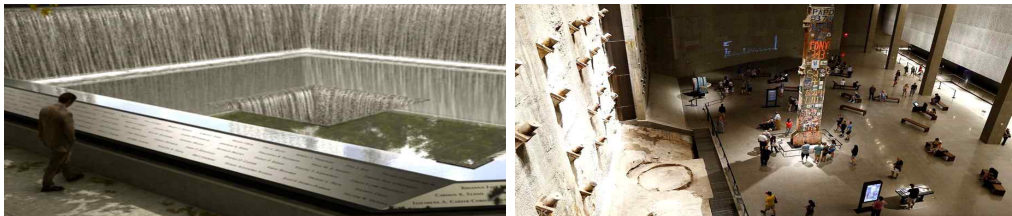
기억의 진화, 문화와 기술의 진화가 이루어져 건축가에 의한 추상적 형태 생성과 변형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시각에 의한 장소의 유기적 진화가 이루어진다.

1차원적 공간에서 2차원의 이점적 종합과 시간의 전이가 사건을 통한 기억이 합해져 도시의 3차원적 희망의 장소로 바뀌고 있다.

건축요소로는 조형성의 실험성, 오가니제이션, 시각적 메모리, 공간표현요소로는 중첩, 회전, 복합, 가상과 추상사이의 영역통합, 비대칭성, 비연속, 탈구조를 보인다.

3.2.2 전이적 메모리얼의 대표 사례

전이적 메모리얼의 건축표현 요소에서 조형성의 실험성과 시각적 메모리의 요소를 가장 잘 표출된 건축이 9 11 메모리얼 & 뮤지엄(911 Memorial & Museum)²⁸⁾ 이다.



<그림 3-3> 9.11 Memorial & Museum (Daniel Libeskind)

2001년 9월 11일 테러에 의해 폭파된 세계무역센터(WTC: World Trade Center)를 기념하기 위해 9.11 추모공원과 상설기념관을 건립한 것이다. 원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축(1966-73, Minoru Yamasaki 설계)은 107층에

28) 서민우 외2명,(2014), 21세기 새로운 뮤지엄건축 466p. 편집.

높이 405m로 1970년대의 세계 최고높이인 뉴욕의 랜드마크였다. 테러리스트 공격 후 폐허가 된 그 자리를 ‘Ground Zero’라 명명하고, 2003년 2월에 세계 무역센터 자리 디자인 공모에 최종 설계자로 다니엘 리벤스킨(Daniel Libeskind 1946년 폴란드 태생의 미국건축가)이 선정 되었으나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그 후 9.11 뮤지엄은 데이비스 브로디 본드(Davis Brody Bond) 디자인으로 건립되었으며, 9.11 추모공원은 이스라엘 출신 건축 디자이너 마으클 아라드(Michael Arad)에 의한 것으로 2003년 추모공원 디자인 공모에서 200대 1(63개국 5,200여명이 참가한 국제적인 디자인 공모적)이 넘는 경쟁을 뚫고 당선되면서 스타 디자이너가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조경건축가인 피터 워커(Peter Walker)와 협동으로 완성한 것이다.

3,000명의 목숨이 테러로 숨진 뉴욕 맨해튼은 남부 ‘그라운드 제로’에 들어선 9.11 추모공원 ‘부재의 반추’(reflecting absence)는 9.11테러로 인해 WTC 쌍둥이 빌딩이 서 있던 자리에 허드슨 강물이 떨어지는 두 개의 거대한 폭포가 들어서고, 그 주변에는 400그루의 참나무가 둘러싸인 모습이다. 폭포가 위치한 빈 공간은 과거 그 자리에 서있던 WTC건축과 희생자들의 부재(不在)를 상징한다. 약 56,700m²가 넘는 대지에는 기념관과 뮤지엄 이외에도 방문객 교육센터, 신축Path 기차역, 지하철역, 지하상가, 안정검열지역, 다섯 개의 신축 사무실타워, 공연예술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현대 뮤지엄의 일반적으로는 ‘작품을 담은 공간’이라면, 이 뮤지엄은 그러한 개념을 뒤집어서 ‘공간이 전시가되는 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크게 네 가지 성격의 전시공간에서 방문객은 먼저 스노헤타(Snohetta)가 디자인한 뮤지엄 파빌리언을 통해 진입한다. 이 파빌리언은 자연광을 가득 담은 공간으



로서 삶의 밝고 건강한 동시에 계속 되는 본 전시공간과 감각적인 대조를 이루는 곳이다.

전시 주제의 특성상 대부분의 공간이 지하에 있어, 심리적으로 명상에 잠기게 하는 공간으로 진입 파빌리언에서 바로 이어지는 지하 1층 레벨은 관람객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전체 전시를 안내하는 공간은 바닥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마치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을 갖게 하며, 정교하게 세팅된 시선을 통해 전체 메모리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세 번째는 ‘West Chamber’, 즉 무너진 기존의 무역센터 기초지반 레벨이다. 이곳에 이르면 관람객들은 지상 위의 없어져버린 건물의 노출된 실제 기초기둥을 경험하며 과거로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 또한 테러에서 살아남은 Slurry Wall이 의미 있는 전시배경의 역할을 하며 11m 높이의 ‘Last Column’이 참혹했던 폐허를 짐작하게 대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시 메모리얼 홀로 되돌아오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새롭게 지어지는 프리덤 타워를 돌아볼 수 있으며 메모리얼 홀을 통해 다시 현실 세계의 밝고 활기찬 곳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마치는 것이다.

부정형 매스의 메모리얼 뮤지엄은 간결한 수평성을 강조한 평온한 대지에 강한 인상을 주는 형태로서, 다양한 각도의 면을 투명과 반투명, 반사와 무반사 재료를 대비시킴으로써 자칫 가라앉기 쉬운 메모리얼 전체 단지의 분위기



기를 바꿔놓는다. 거울 면을 통해 반사되는 신축 주변 건물들도, 유리면을 통해 뵘어져 나오는 실내의 조명들도, 떨어진 빗물이 전체매스를 감싸듯 흘러 내리는 모양도 모두 뉴욕의 다운타운이라는 장소성을 반영하는 조형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독특한 외관형태와 재료의 조합은 또한 친 환경 건축 인증단계의 최고레벨을 받기 위한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일조량을 최대한 유입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재활용 가능성을 최대화한 것이다.

이렇듯 9.11 메모리얼뮤지엄은 건축의 조형성의 실험성의 요소가 뛰어나게 표출 되었으며, 사건적 메모리얼의 기억을 희망의 장소로 인식 시키는 시각적 메모리얼의 요소가 가장 잘 표현된 건축물이다.



3.3 기호학적 메모리얼 정의 및 표현요소 분석

3.3.1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 - 다층, 재결합, 다원적 기호

우리는 과거와의 단절에 대한 인식이 기억의 삭제라는 느낌과 함께 나타나는 과도기의 순간을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의 현상학과 혼동의 수용을 현 건축가들은 그들의 경험을 자유의지에 의한 해석이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의 다원화로 <표 3-3> 분석표처럼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3-3> 기호학적 메모리얼 표현요소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적 관점	건축적 표현요소	공간적 디자인 개념
1. 현상학, 혼동의 수용 2. 잠재적 체험, 자유의지에 의한 해석 3. 기호학 커뮤니케이션의 다원화	위계탈피 미로, 접기, 형태적 불연속 상징성, 다원성	복잡성, 가시성, 다중성, 지속성 공간의 분절과 재결합 프랙탈 구조

기호학에 대해 잠시 바르트에 의해 살펴보면²⁹⁾, 의미작용에는 두 수준의 질서가 있다. 제1차 질서는 자연의 수준·현실 수준이며, 제2차 질서는 문화의 수준이다.

제1차 질서는 기호가 현실을 대표하는 기초적 표상의 세계에 대한 것이다.

기표와 기의가 결합하여 기호를 이루는 기본적 의미작용이 일어나는 수준이다. 이 기호는 모호함이 없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연의 의미를 배타한다. 그 의미작용으로 제1차 질서인 기호가 그것이 표상하는 현실에서 외시 의미만을 생산한다.

제2차 질서는 기호의 두 기본 소자들, 즉 기표와 기의가 함축하고 있는 특성들로부터 비롯된다. 기호가 두 개의 기본 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차

29) 정승희(2014), 기호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전시디자인 모형 사례 연구 24P.



질서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함축(connotation)의 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신화(myth)의 질서이다.

첫째, 함축은 기표의 제2차 의미작용을 나타내며, 기표가 기호의 형태를 결정하게 한다. 기호형태가 가지는 변이와 변용들은 여러 가지 주관적인 함축적 의미를 일으킨다. 기호가 지니는 함축적 의미는 특수하고 자의적인 뜻으로 이루어진다. 함축적 의미는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같은 기호를 읽는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일으키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함축의 의미는 모두 그럴 듯한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함축의 의미는 어떤 문화 속에 존재하는 기호를 통해서 그것이 표상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는 한 가지 수단이 된다.

둘째로, 기호를 통하여 현실을 설명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신화에 의한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신화란 ‘하나의 이야기’ 또는 ‘하나의 특수한 언술’³⁰⁾을 가리킨다. 바르트의 모형에서, 신화는 기호의 내용이 되는 기의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화란 기의가 지니는 제2차 질서의 의미체계를 이룬다. 기의들로 엮인 일련의 고리가 하나의 신화를 이룬다. 하나의 신화는 두 단계를 거쳐 일어난다. 첫 단계에서, 기표가 여러 기의들을 마음속에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기의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의 연쇄 고리를 이루며 신화가 된다.

바르트는 신화를 ‘함축의 의미의 체계’라고 정의하였는데, 함축적 의미의 연쇄 고리를 만듦으로써 하나의 신화를 만들 수 있다. 신화도 하나의 기호체이므로, 그것은 기표라고 하는 의미의 힘과 그것을 채움의 기의하고자 하는 내용

30) Barthes(1992) p.109.



이 필요하다. 설령 신화가 기의의 고리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기표를 통해 표현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이고, 기표를 빌리는 한 동시에 함축의미가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부터 신화제작의 보다 자연스러운 경로를 발견할 수 있다, 신화를 만드는 사람은, 우선 그가 접하는 자연, 문화, 지식, 역사 같은 것에서 비롯되는 개념(기의)에서 시작하여, 그 개념을 적절히 표현할 형(하나의 기표 혹은 여러 기표들)을 발견해야 한다. 이렇듯 신화를 만드는 재료는 사람이 접하는 환경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이들테면 환경세계가 체계 속으로 침입하는 것은 기의들을 통해서’라고 바르트는 쓰고 있다.³¹⁾ 따라서 연구자는 질서공간의 개념(기의)을 먼저 분석하고, 그 개념을 표현할 기표들을 발견·수집하여 디자인 개념으로 전달한다. <표3-4>의 같은 경우 기호학이 건축과 전시공간, 전시시나리오에서 기호, 기표, 기의의 의미작용의 서사적 형식을 설명하고 있다.

<표 3-4> 기념관의 기호학적 형식 및 서사적 형식 비교

기념관의 구성요소	기호학적 형식	서사적 형식	내용
건축	기호(상징-의미전달)	상징성	직접적인 상징의 표출
전시공간	기표(표현-가치)	표현요소	시간적, 공간 요소
전시시나리오	기의(내용:의미작용)	이야기(담화)	전시 주제 및 개념 전달

오늘날 기념관에서는 하나의 ‘문화집적체’로서 인류의 삶 자체를 대상으로 시각적 연쇄성에 의하여 서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³²⁾

31) 김용직(1988), 상징, 문학과 지성사, 166-168p.

32) 양유정, 박물관 성장기분으로서의 스토리텔링 구조 연구, 중앙대 석사 2007



크리에(Rob Krier)은 건축에서 도시공간과 내부공간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건축적 체계가 물리적 형태를 취하였을 때 점·선·면의 패턴들은 그 체계의 내부와 외부 표면에 영향을 준다. 이는 “첫째, 벽, 바닥, 천장을 면이다. 둘째, 창문의 프레임과 모르타르 이음새는 선적인 구도이다. 셋째, 전등, 설비 장치, 구멍 기타 등등은 많은 건축 구성요소가 그러했듯이 점 패턴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이 면, 선, 공간, 입방체(solid), 점은 공간 구성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이들은 예술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해석 되거나 꾸미게 될 수 있으며, 모든 구성요소들은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모든 공간 구성의 과정을 기하학적인 의미로 불규칙적이거나 규칙적 또는 혼합된 형태로 유도되어 진다. 이에 더불어 구성적 요소의 비례와 개개 부분의 스케일 또는 기하학적 비율(ratio)은 건축, 환경 디자인 과정에서 최종의 지배적 요인이 된다.³³⁾

도시 건축 환경은 인간-환경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언어 매개체로서 존재하며, 환경의 형태와 패턴은 하나의 상징화된 기호로서 어떠한 의미를 인간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건축적 패러다임이 결합하여 가시화된 특별한 문화적 형태로 인식되어진다.³⁴⁾

이러한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건축표현요소로는 위계탈피, 형태적 불연속, 상징성적 기호성이다. 공간표현요소로는 복잡성, 다중성, 지속성, 공간이 분절과 재결합, 프렉탈 구조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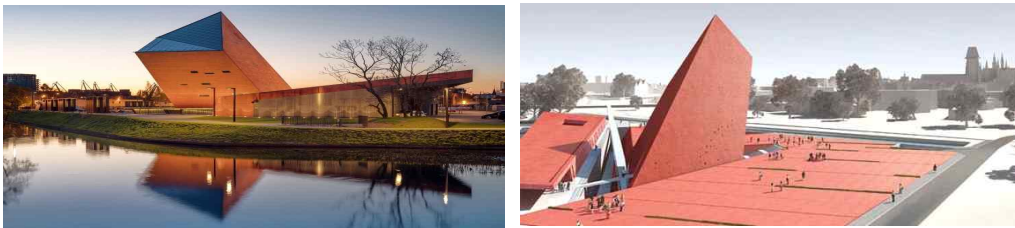
33) 진경돈, 박종호 역, Rob Krier(1993), 미건사, 건축의 구성론 (Architectural Composition)

34) 김주미(1997), 「환경의미 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방법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No.10, p.34.



3.3.2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대표 사례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건축표현 요소에서 기호학 커뮤니케이션의 위계탈피, 상징성적 기호성이 잘 표출된 건축이 제 2차 세계 대전 박물관 (Museum of the second world war, Studio Architektoniczne Kwadrat) 이다.



<그림 3-4> Museum of the second world war (Studio Architektoniczne Kwadrat)

2017년 2차 세계 대전 박물관³⁵⁾은 도시의 중심부 근처에 있는 Władysław Bartoszewski Square에서 지어졌다. 이것은 그단스크(Gdańsk)의 유서 깊은 폴란드 우체국에서 200m, Westerplatte Peninsula에서 3km 떨어진 1939년 9월에 공격받은 기념 공간이기도 한 상징적 장소이다. 서쪽으로는 Radunia 운하에 닿아 있으며, 남쪽은 모트와 강(Motława River)의 넓은 파노라마를 향해 펼쳐져 있다. 오늘날, 이들은 올드 그단스크(Old Gdańsk)의 외곽 지역, 곧 조선소를 대신 할 현대 도시의 핵심 부분이며, ‘그단스크의 새로운 상징’, ‘새로운 아이콘’ 및 ‘조각 디자인’으로 묘사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심원 단장이자 건축가의 한명인 다니엘 리벤스킨(Daniel Libeskind)은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로 “건축 언어를 사용하여 선택한 프로젝트가 과거의 비극과 현재와 미래의 지평을

35) <<https://www.archdaily.com/872450/museum-of-the-second-world-war-studio-architektoniczne-kwadrat/>> ISSN 0719-8884

열어줍니다. 상승하는 역동적인 형태는 역사적인 도시와 미래에 대해 파노라마 적이고 화려한 장르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박물관을 상징합니다. 조선소 크레인과 교회 탑이 있는 그단스크의 상징적인 스카이라인을 연상케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 건물은 21세기 박물관과 함께 도시의 전통적인 도시 공간, 규모, 재료 및 색상으로 묶어 놓았다. 저자인 Kwadrat 스튜디오는 그들의 프로젝트를 정적인 디자인 속에 강력한 감정과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색감과 조형으로 건축적 언어를 표현하였다.

박물관은 3개의 영역으로 과거의 전시, 현재, 미래의 관계를 상징하는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과거는 건물의 지하층에 숨겨져 있고, 현재는 열린 공간으로 건물 주변에 나타나며, 미래는 그 돌출부에 의해 표현된다. 건물은 약 $23,000\text{m}^2$ 의 바닥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상설 전시공간은 약 $5,000\text{m}^2$ 이다. 이 전시회는 가장 현대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제 2차 세계 대전을 강대국 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나라의 운명적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뤄진다. 주요 전시공간과는 별도로 $1,000\text{m}^2$ 의 공간이 임시 공연에 사용된다. 박물관의 사명은 문화 및 교육,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을 설계한 Studio Architektoniczne Kwadrat사는 이렇게 표현하였다. “그단스크에서 개최된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미술관에 입장하면서 우리는 디자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환경과의 상호 작용 및 매우 복잡한 기능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역사적인 부분에 맞추고 동시에 그것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형식과 기념비 사이에서 타협을 하고, 그 뻔뻔 스러움과 공격성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건축물이 제 2차 세계 대전의 비극에 대한 강력한 인용이 아



닌 섬세함의 제안이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역동적이고 표현력 있는 형태의 아이디어가 전쟁으로 인해 창조된 세계를 덮는 상징적이고 극적인 껍질을 찢어 버리는 방식입니다. 형태의 설계는 말 그대로 의미가 정의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각각의 개별 관찰자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발견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과정을 거친 후 우리는 대부분의 공개 공간을 공개 공간으로 남겨두기로 합의 했으므로 전시회의 일부를 지하로 옮겼습니다. 지하 수준을 입력하는 것은 기본 설정 과정입니다. 무관심하고 매일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균형에 매달리고 마음이 맑다는 것에서 시작하여 전시회와의 강한 관계에 의해 공포와 두려움, 고통까지도 마침내 떨어졌습니다. 박물관의 지하 부분은 지옥을 가로 지르는 길, 시간 여행 경험입니다. ‘현실로 돌아가기’는 지상을 경험하고 박물관을 둘러싼 공공장소, 생각할 곳, 지하에서의 경험을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과거는 미래의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탑 꼭대기를 올라가는 사람은 희망과 자유를 보고, 그단스크의 오래되고 젊은 도시를 봅니다.” 그는 그가 경험한 과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대지를 바라본다고 하였다.³⁶⁾

이렇듯 최근 현 메모리얼 뮤지엄의 제 2차 세계박물관은 기호학에서의 기의에 의한 기표의 공간디자인이 잘 표현되어 다각적 시선의 상징성을 현 도사에서 문화융합과 소통의 공간, 조화로운 공간의 가치공유를 잘 표출한 건축물이다. 그리고 다각적인 시각의 해석과 과거, 현재, 미래의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요소에서 하나의 끈으로 묶어 기호학적 메모리얼뮤지엄에서 현대적 재해석이 뛰어난 점이 가장 대표할만한 사례이다.

36) <<https://www.archdaily.com/872450/museum-of-the-second-world-war-studio-architektoniczne-kwadrat/>> ISSN 0719-8884



3.4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가 적용된 분석표

다층적 기억의 표현특성을 분석한 분석표는 다음과 같다. (표 3-5 참조)

<표 3-5>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분석표

1		작품명			OOO메모리얼 뮤지엄									
개요	개관/위치				대표사진									
	작가/유형													
	건축가													
다층적 기억의메타포 요소					작품 이미지 및 분석 내용									
기념적메모리얼	구분	회상	기념	추모	분석사진									
	건축요소	모뉴먼트			분석사진									
		기념비												
	공간요소	유저지재구성			분석사진									
		순환동선, 송고미												
연속적조소														
장소적 확산														
전이적메모리얼	구분	해체	전이	진화	분석사진									
	건축요소	조형성 실험성			분석사진									
		Organization												
	공간요소	시각적 메모리			분석사진									
		중첩, 회전, 복합												
가상, 추상 통합														
비대칭, 탈구조														
기호학적메모리얼	구분	다층	재결합	다원기호	분석사진									
	건축요소	위계탈피			분석사진									
		형태적 불연속												
	공간요소	상징성적 다원성			분석사진									
		복잡성, 다중성												
분절과 재결합														
프랙탈 구조														
특징														

3.5 소결

앞서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요소를 세 가지인 기념적 메모리얼, 전이적 메모리얼, 기호학적 메모리얼로 구분하여 각각의 표현 요소와, 건축 요소, 공간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건축적 묘사에도 상징, 직유(直喩), 비유(比喩), 제유(提喩), 은유(隱喩), 알레고리의 수단이 통한다. 이들 모두 문학에서 익힌 뜻이지만, 건축에서도 그 표현적 성능은 마찬가지이다.

그야말로 직유는 직설적으로 대놓고 말하는 것이고, 비유는 빗대어 말하는 것이니 좀 쉽고, 은유는 그럴 수도 있게 되는 은근한 뜻이니 문학적 세련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건축의 알레고리는 화법인데, 시적이거나 문학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적 알레고리에서 윤동주 문학관 작업 프로세스에 대한 건축적 문화적 비유에서 나온 말이다. 2개의 콘크리트 수조 중 하나는 지붕 슬래브를 건어 하늘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상을 만들었다. 기념관에는 콘텐츠가 부족해 보이는데 이를 건축 자신이 극복했다. 그렇게 해서 있는지도 몰랐던 마을의 하부시설이 윤동주의 문학성을 대신 전하는 미디어 공간이 되었다.

물탱크는 물 자국으로 시간의 켄을 기억했다가 전한다. 늙은 콘크리트의 물성이 광야에선 식민지 인텔리겐치아를 상징하며, 밀폐된 공간이 벗어 날 수 없는 막연함의 은유이며, 영상을 시작하느라고 닫히는 철문의 ‘쿵’하는 소리부터 윤동주의 건축적 알레고리가 작동한다.³⁷⁾

37) 박길룡(2015), 공간서가, 한국 현대건축 평전, 422p, 433p 인용



여기에서 표현된 운동주문학관 사례는 장소적 터에서 다층적 기억을 살리고 원형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 마을의 맥락을 엮어내어 하나의 기념관으로써의 설계 프로세스에서 표현요소가 드러남과 동시에 기념관의 전이적 공간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렇듯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의 문화적 형태인 추모, 진화, 다원은 기억의 행위인 회상, 기념, 해체, 전이, 다층, 기호로부터 출발하며 이러한 요소에 의해 유적지의 재구성으로 시각적메모리로, 상징성적 기호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 자체로 진화의 과정이며 이 진화의 과정은 건축과 공간의 표현요소에서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이러한 공간의 모호성은 다시 명상과 승화라는 메타포를 통해 기념적 숭고미를 가져다준다.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요소는 기념적, 전이적, 기호학적의 분류를 통해 이러한 진화적 시공감대를 형성하고 표현요소의 개체들이 그 개성을 드러낼 때 비로소 메모리얼 뮤지엄의 상징성의 의미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 <그림 3-5>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특성요소의 설계도에서의 표현요소 분류가 본 논문의 연구인 현 메모리얼뮤지엄에 포출되는 요소들의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분석표를 작성하여 사례분석을 통해 그 역할에 대해 명확히 하려 한다.





<그림 3-5>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특성요소 설계도



다층적 기억의 공간 유형에 따른 사례분석

4.1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를 활용한 사례분석

4.2 사례분석

- 기념적 메모리얼
- 전이적 메모리얼
- 기호학적 메모리얼

4.3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종합분석



제 4 장 다층적 기억의 공간 유형에 따른 사례분석

4.1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를 활용한 사례분석

4.1.1 장소적 역사의 집단기억이 표출된 메모리얼 유지업

현대의 도시의 장소적 역사의 역할은 많은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에르 노라(Pierre Nora) 프랑스 역사가는 ‘기억의 터’라는 광의적 개념에 담으며, 기억의 터는 역사적으로는 정반대점을 이루는 것으로, 기억을 보존하고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오히려 기억의 부재인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을 가르킨다. 과거의 생생한 기억을 담고 있던 ‘기억의 환경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는 누구도 거주하지 않는 집인 것처럼 ‘기억의 터’는 국가적 기념시설이나 관광지로 또는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등 오로지 인위적 연출을 통해서만 그 존립이 가능하다. 역사의 ‘기억의 환경’을 상실한 한국의 서울과 같은 도시들은 자신의 혼란스러운 기억을 인위적으로 선별하고 편집하여 유서 깊은 민족적 ‘기억의 터’를 만들어 낸다. 역사의 소진이 부득이하게 값비싼 대용물을 낳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사라진 중앙청과 옛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는 경복궁은 ‘기억의 터’로 볼 수 있다. 과거 식민지 시절을 경험한 도시는 서구의 도시들보다 더욱 인위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강한 기억의 터를 생산하기 마련이다. 서구 대도시들의 경우 기억의 환경이 서서히 와해 되면서 기억의 터에 의해 비교적 조심스럽게 대체되는 과정을 밟는 반면, 포스트식민지도시는 식민지 시절의 기억



의 환경을 의도적으로 파괴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치욕적인 불편한 관계가 기억의 극단적 단절을 초래하여 이를 극복하려면,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요하기 때문이다. 포스트 식민지 도시 서울의 공간은 맥락을 결여한 전통과 국적불명인 현대의 비대칭적 병합 그리고 양자를 매개할 근대기 유산의 실종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바 시민들의 균열된 기억이 비교적 잘 다듬어진 유적과 초고층 마천루의 뒤편에 함몰된 지층처럼 남는다. 외형적 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구조적으로 비어 있다.³⁸⁾

장소적 역사적 집단기억이 장소인 ‘터’에서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면에서 자재와 공간 구조는 때로는 새롭게 형성 및 변화되면서 없어지거나 도시형태 및 건축에서 흔적을 남긴다. 이러한 공공영역에서의 경계공간의 재조직, 탈 영토화의 재구성에서 다층적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장소적 역사의 집단기억 ‘터’에서 메모리얼이 표현 되어지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장소를 분류해 보면 기억의 장소, 회상의 장소, 성지와 신화적 장소, 기념 장소, 트라우마 장소 등 각 장소마다 ‘터’로써의 역할과 문화적 관계가 표현되어진다. 본 연구논문의 사례에서는 기념적 메모리얼의 사례분석의 범위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장소적 ‘터’의 집단적 기억에 관해 그 역할을 잡았다. 사례에서는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파블로프 고고학 박물관, 로마니티 박물관, 전곡선사 박물관으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38) 전진성(2015), 천년의 상상,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 도쿄 서울, 50~51p 인용



4.1.2 사건적 역사의 집단기억이 표출된 메모리얼 유지업

사건적 역사의 집단기억이 가장 잘 표출된 역사적 부분은 제 2차 세계 대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으며, 인간의 가장 파괴적인 전쟁으로 집단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인류의 문화와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이 시작된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서쪽 국경을 침공으로,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미국의 원자폭탄을 일본 히로시마시와 나가사키시에 투하하여, 이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항복과 함께 9월 2일 문서에 공식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전쟁이 끝이 났다. 이 결과 동아시아에서 식민지로 남아 있던 지역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본국으로 복귀하고 여러 제국들의 식민지가 독립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사망자는 약 2,500만 명이었고, 민간인 희생자도 약 3천만 명에 이르렀다. 전쟁 기간 중 일본 제국은 대학살을 감행하여 겁탈과 방화를 저질렀으며, 1937년 중국 침략 때 난징 등에서는 난징 시민을 무자비하게 살해하였다. 그리고 포로 학살 등 여러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독일 또한 ‘인종 청소’라는 이유로 수백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사살하였다. 미국은 도쿄 대공습을 감행해 민간인 15만 명을 살상하였는데 도쿄와 그 주변 수도권 일대를 대규모로 소이탄으로 폭격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6일과 9일에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 공격을 감행하여 약 34만 명을 살상하였다. 영국 공군과 미국 육군항공대는 드레스덴 폭격과 뮌헨 공습을 감행하여 각각 20여만 명을 살상하는 등, 전쟁과는 상관없는 민간인들의 피



해도 매우 심했었다.

전쟁은 크게 서부 유럽 전선, 지중해 전선, 동부 유럽 전선과 중일 전쟁·태평양 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대서양 해역과 인도양 해역 등 기타 하위 전선도 2차 대전의 전역에 포함된다.³⁹⁾

사건의 기억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기억을 불러일으켜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며 정신기능의 심리적으로 작용하여 사건의 기억을 더듬어 자료의 수집·보존, 조사·연구, 전시·교육으로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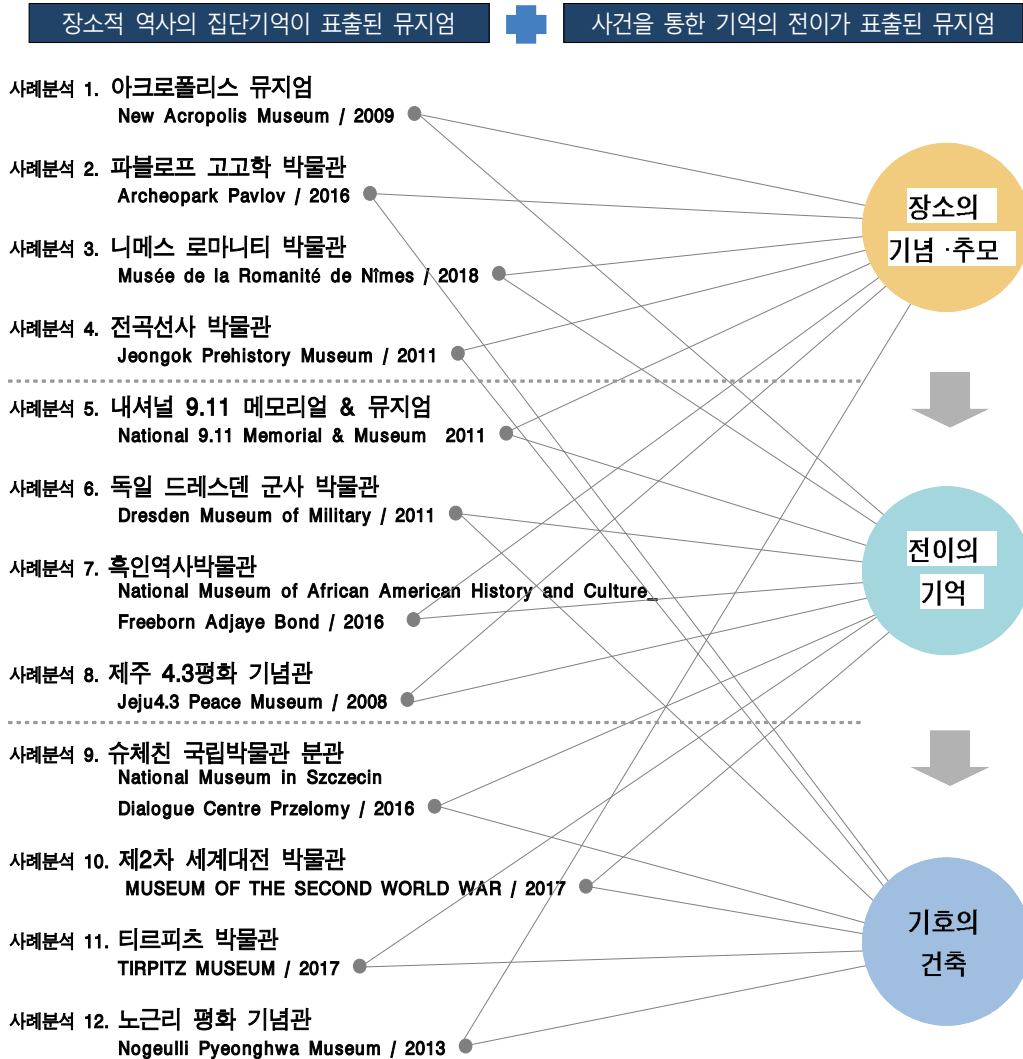
제 2차 세계대전의 희생은 역설적으로 문화의 양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후 전이적 메모리얼, 기호학적 메모리얼 뮤지엄에서 트라우마의 집단기억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의적 교육공간과 희망적 장소로의 전이에 다양한 문화양산의 모태가 된다.

본 논문의 사례에서는 전이적 메모리얼,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에서 많이 표출되었으며, 사건적 역사의 배경으로 내셔널 9.11 메모리얼&뮤지엄, 독일 드레스덴 군사 박물관, 흑인역사박물관, 제주4.3평화 기념관 등 사건을 통한 기억의 전이가 표출된 메모리얼뮤지엄으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39) 제 2차 세계대전, 위키 백과 참조



4.1.3 사례 선정



<그림 4-1> 사례 뮤지엄 분석표

위의 사례 선정 시 장소의 기념과 추모, 전이의 기억, 기호의 건축적 요소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이며 분석표에 의해 더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다.

4.2 기념적 메모리얼 사례분석

4.2.1 뉴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New Acropolis Museum)



<그림 4-2> New Acropolis Museum 전경

본 논문의 첫 번째 사례 뉴 아크로폴리스 뮤지엄(New Acropolis Museum)은 아테네 그리스(Athens, Greece)에 위치해 있다. 연면적 21,000m², 대지면적 22,986m²,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이며, 외장재로는 벽, 콘크리트, 대리석, 유리로 되어 있으며, 2009년 6월 20일에 개관하였다.

뉴 아크로폴리스 뮤지엄은 전시공간 확장이나 새로운 기능 보완처럼 물리적인 필연성보다는 그리스 국민의 자존심이기도 한 파르테논(Parthenon) 신전의 ‘Elgin’s Marble’ 조각을 대영박물관(British)으로부터 반환받겠다는 Melina Mercouri 여사의 염원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애정영화 ‘Phaedra’에서 British 뮤지엄 Elgin’s Marble 전시공간을 배경으로 촬영하면서 조각을 반환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정계에 진출하여 문화부장관을 역임함으로써 반환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반환 시 유물이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전시될 수 있는 최상의 뮤지엄을 건립할 계획이 오래된 노력으로 수립된 것이다.

1) 주변성 및 배치개념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건립 위치는 파르테논 인근 300m 떨어진 고대 유적으로 현재 도시와 가로망 그리고 서양문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으로, 항상 인접한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바라볼 수 있는 배치조건이다. 따라서 지하 유구가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100여 개의 기둥이 제멋대로 배치되고, 그 위에 뮤지엄을 부양시키는 고고학적 유구연출(Allestimento Museale in Maniera Archelologica) 방법을 취하였다. 배치개념에 바탕이 되는 1, 2층은 도로축과 맞추어 배치되고, 그 위 넓은 테크(deck)에 위치한 세 번째 층은 파르테논의 크기와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2) 공간구성 및 전시설계

설계 콘셉트는 세 개의 사각상자를 상부·중부·하부로 구분해서 쌓아서 각각 특정한 공간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즉, 하부 2개 층은 도로축과 대지경계를 고려해 배치하였고, 상부의 세 번째 상자는 파르테논 신전과 나란히 놓이도록 하기 위해 하부보다 23°도 회전시켰다. 특히 상층부에는 그리스 정부의 노력으로 되돌아온 조각과 영국에서 만들어진 ‘elgin Marbles’의 석고상이 나란히 전시되어 3층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내부에 전시된 진품과 모조품의 대리석에 놀라게 된다. 39m×84m×7m 높이의 장방형 파르테논 갤러리는 1대1로 파르테논 신전을 감상할 수 있도록 회랑을 두었고, 외측은 사방으로 전면유리를 설치하여 도심과 300m 거리의 아크로폴리스(Acropolis) 언덕과 신전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하였다. 1800년도 초반에 파르테논에서 해체된 절반이 넘는 Elgin's marble 복제품과 현장에 남겨진 조각상과 부조 진품 대리석을 정 위치에 전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분산된 파르테논 장식(frieze)을 전시하기 위한 여유 공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3) 조형성

초기 니콜레티(Nicoletti)안은 아크로폴리스(Acropolis) 언덕을 향해 ‘열린 눈(Eye’s of Parthenon)’이 강조된 조형에 비해, 베르나르 츠미(Bernard Tschumi)의 안은 단순함과 절제미를 위해 유리 와 노출콘크리트로 내부의 예술품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유적과 형태적 조화를 이루었다.⁴⁰⁾

4)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표4-1> 분석표에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고고학 유적지의 장소적 역사의 집단기억이 표출된 메모리얼 뮤지엄으로써 최상층을 유리 홀로 만들어 회전시킨 부분과 홀 전체를 거울처럼 파르테논 신전을 비추도록 설계해 역사의 기념적 전이 과정을 볼 수 있다. 과거 조각상의 자리도 신전에 걸려있던 때와 똑같은 축으로 놓을 수 있도록 지정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아크로폴리스 뮤지엄은 기념적 메모리얼에서는, 유적지재구성과 장소적 확산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전이적 메모리얼에서는 일광을 활용하여 박물관 내 조각품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루 종일 다른 모습을 보이며, 특히 중층의 진입 계단은 신전의 계단을 연상하게 하여, 외부와 내부의 연결공간의 시각적메모리 요소가 뛰어나다. 그리고 관람 동선은 3차원 고리형태로 파르테논 갤러리를 지나 다시 로마 시대로 돌아오는 회전과 복합의 동선을 그린 부분에서, 공간의 회전과 복합의 요소가 나타났다.

기호학적 메모리얼에서는 현재 도시와 가로망, 서양문명에 큰 힘을 미친 건축들 가운데 하나인 파르테논의 공존으로 역사적 장소와 유물의 상징성과 다원성과 공간의 분절과 재결합 요소로 표출되었다.

40) 서상우, 현대건축사(2002), 새로운 뮤지엄 건축, 114p~117p.



<표 4-1>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New Acropolis Museum) 분석표

1		작품명		뉴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개요	개관/위치			2009년 / Acropolis, 아테네, 그리스		
	작가/유형			아크로폴리스 박물관(그리스어: Μουσείο Ακρόπολης)은 그리스 아테네의 박물관으로, 아크로폴리스의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중심으로 소장·전시하고 있는 고고학 박물관이다. 현재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은 새로 지어진 것이므로, 구분을 위해 뉴 아크로폴리스 박물관(New Acropolis Museum)이라고도 불린다.		
	Bernard Tschumi 베르나르 추미					
다층적 기억의메타포 요소				작품 이미지 및 분석 내용		
기념적메모리얼	구분	회상	기념	추모	 Makryianni 지구의 유적지에 위치한 박물관은 파르테논 신전에서 남동쪽으로 1,000 피트 미만 떨어져 있다. 최상층의 파르테논 갤러리(Parthenon Gallery)는 아크로폴리스와 현대 아테네의 360도 파노라마 전경을 제공한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및 기타 주요 고고학 유적지와 연결되어 있다.	
		모뉴먼트		●		 기념적건축물로서 전형적인 모뉴먼트의 형식을 취한다.
		기념비		●		
	건축요소	유적지재구성		●	 사이트에 고고학 발굴을 표시하여, AD4~7세기의 유적이 그대로 유지.	
		순환동선,송고미		●		
		연속적조소		●		
공간요소	장소적 확산		●	 내부 신전의 계단을 연상시키며 점진적 연속적 조소의 배치가 파르테논신전의 이미지 확장 선을 가져다준다. 바닥의 유적지를 지나면 고대 그리스 초기의 직사각형 극장을 연상케 하는 전시공간이 펼쳐진다.		
전이적메모리얼	구분	해체	전이	진화	 상단은 높이가 7m 이상이고 2,050m²이상의 바닥 공간이 있는 직사각형의 유리로 둘러싸인 스카이라인 파르테논 갤러리, 건물의 나머지 부분에서 23도 이동하여 아크로폴리스 쪽으로 직접 향하게 했다. 콘크리트 코어는 모든 레벨을 통해 위쪽으로 관통하여 파르테논 프리즈의 대리석 조각이 마운트 된 표면이 된다.	
		조형성 실험성 Organization				 일광을 활용하여 박물관 내 조각품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루 종일 다른 모습을 보이며, 특히 중층의 진입 계단은 신전의 계단을 연상.
		시각적 메모리		●		
	공간요소	중첩, 회전, 복합		●	 관람 동선은 3차원 고리 형태로 파르테논 갤러리를 지나 다시 로마 시대로 돌아오는 회전과 복합의 동선을 그린다.	
		가상, 추상 통합				
		비대칭, 탈구조				
기호학적메모리얼	구분	다층	재 결합	다원 기호	 역사는 다층적 과거의 기억이지만, 문화재는 그 시간과 경험을 구성원들의 현재의 삶에 그대로 녹아들게 했으며, 정체성을 구체화한 상징으로서 중요한 중심점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화재라 함은 지역과 사람과의 불가분 관계에 있고, 역사의 시간 속에 다층적 기억이 켜켜이 쌓여 있다.	
		●				 현재 도시와 가로망, 서양 문명에 큰 영향을 미친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 파르테논이 공존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위계탈피 형태적 불연속				
	건축요소	상징성적 다원성		●	 중간은 10미터로 이중 높이 공간으로 로마 시대 후기부터 고학 시대의 갤러리를 수용 한다.	
		복잡성, 다중성				
		분절과 재결합		●		
공간요소	프렉탈 구조					
특징	최상층을 유리로 만들어 홀 전체가 파르테논 신전을 거울처럼 비추도록 하여 과거 신전에 걸려있던 때와 같은 축으로 걸어 놓을 수 있도록 파르테논 조각상의 자리로 지정해 설계된 것은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에서는 기념적메모리얼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부의 유적지를 그대로 수용하고 파르테논의 갤러리는 아크로폴리스 쪽으로 회전시켜 놓은 부분은 흔적을 유지한 장소적 역사의 집단기억의 표출로 전이적인 부분도 들어나며, 유적지재구성과 장소적 확산이 뛰어난 뮤지엄이다.					

4.2.2 파블로프 고고학 박물관 (Archeopark Pavlov)



<그림 4-3> Archeopark Pavlov Museum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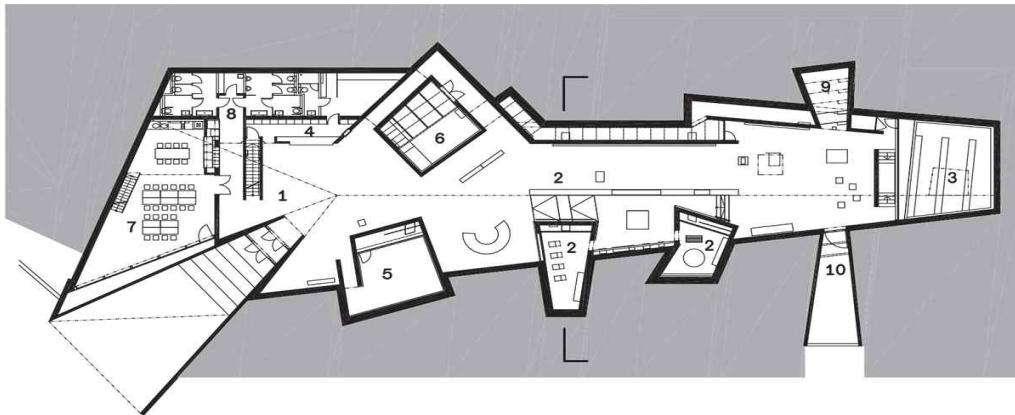
건축가는 라드 코크 베트(Architektonická kancelář Radko Kvet)이며, 체코의 파블로프 체코에 위치, 대지면적 113.0m², 지하규모로 외장재로는 벽, 콘크리트를 사용하였으며, 2016년에 개관하였다.

파블로프 고고학 박물관(Archeopark Pavlov)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사 시대의 거대한 사냥 농장 중 하나인 현대 전시회로 되어 있는 박물관이다. 3만년 전에 팔라바 능선의 경사면에 있는 현대의 호모 사피엔스 (Homo sapiens)가 만든 방문객 정착 단지에 가깝고, 수천 년 동안 거주한 사람들의 물질적, 정신적 세계를 열었던 장소이다. 독특한 건축 구조에는 석기와 뼈 도구가 전시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의 도구와 사냥도구, 묘소 문화를 볼 수 있다. 또한 장례식에 사용된 유물의 미적 감각을 볼 수 있으며, 조각상과 동물 조각품을 포함하여, 흥미로운 역사를 기억하고 이 사이트의 가장 가치 있는 발견 중에는 사람들 자신의 해골, 사람들이 처음 사용했던 기술의 증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적 감성을 증명하는 예술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 주변성 및 배치개념

수십 년 동안 팔메 리오 식(맘모스 사냥꾼 시대) 정착지의 발굴 작업은 해부학적으로 현대 인류의 골격 유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돌과 뼈 도구와 작품을 발굴했다. 이것은 파블로프(Pavlov)와 돌니베스토니체(Dolní Věstonice)를 세계 최고의 고고학 유적지 목록에 올려놓았다. 이 사이트는 과거의 역사적인 시대를 연상케 하며, 보편적 문화유산의 일부이자 지역 문화의 상징적 요소로서 근본적으로 지역 인구와 지역 간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 박물관은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져 국가와의 관계를 수립하는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였다.

2) 공간구성 및 전시설계



Půdorys 1. NP



Řez příčný

- 1 vstupní hala
- 2 výstavní prostor
- 3 expozice in situ
- 4 pokladna, obchod
- 5 kinosál
- 6 technické zázemí
- 7 víceúčelová místnost
- 8 hygienické zázemí
- 9 výhled západní
- 10 výhled východní

<그림 4-4> Archeopark Pavlov Museum 공간구조

박물관의 디자인은 사이트의 위치를 기반으로 했다. 발견 층은 황토 밑에 깊게 묻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지하 구조의 개념을 사용하여 건물배치 및 구조공간을 만들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건물이 보호 경관 지역에 위치한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건축가들은 석회암 주변의 암석을 연상케 하는 흰색 콘크리트 탑을 뺀 지하 공간 형태를 선택했다. 이로 인해 건물은 지역 조경의 경관으로 규모와 문제에 부담을 주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현장에서의 노출도 계산되었다. 즉, 고고학 발견은 노출 된 후에 원래 위치에 남아 있는 것이다.

뛰어난 건축술과 매력적인 노출은 500m² 이상의 현대 시청각 기술과 고전적인 박물관 프리젠테이션을 결합하여 일반인들에게 이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과학 연구를 알리게 했다. 프레젠테이션은 이러한 연구의 흥미로운 역사에 대해 잊히지 않도록 사람들의 물질적, 정신적 세계를 다루고 있다. 일상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원석 도구 및 뼈 개체 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구들은 예술 작품이다. 사냥, 주거 생활, 미술 및 의식, 매장 및 마술과 같은 주제에 주의를 기울이며, 발굴된 사이트 그대로 들어냄으로써 사람들 자신의 귀중한 면을 유물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울이 된다.

3) 조형성

세계 중요성을 지닌 독특한 고고학적 유적지로 대지에서 바라보면 마치 기호를 연상하게 한다. 주변 석회암 암석을 연상케 하는 흰색 콘크리트 타워의 형태로 대지 위 몇 개의 조각 형태로 되어 표면에 나오는 몇 개의 지하로 이루어져 있다. 팔라바(Palava)의 수렵 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에 따르면 천년기 동안 모라비아는 세계의 진정한 문명과 문화의 중심으로 빛났던 곳



이다. 대륙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전략적으로 결정적인 영역은 도자기, 직물 직조 또는 석재 분쇄와 같은 여러 기술에서 우위를 점했으며, 한방식의 자르기도 문서화 되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10,000년 후에도 농업 생활로의 전환을 위해 기본이 된다.

이러한 역사의 기억을 위해 파블로프 박물관은 보호 경관지역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경관이 자연에 최대한 차지하는 범위를 근소하게 했으며, 고고학 발굴 현장의 모양에 따라 지상층의 기하학적 모형을 가미하였다. 동시에 내부에 풍부한 공간을 만들었으며,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아주 좋은 관절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으며, 콘크리트와 같은 재료는 내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콘셉트와 조화를 이룬다. 파블로프 박물관 같은 구조와 공간을 가진 전시회는 방문객들이 관람과 시간의 전이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느끼게 해준다.

4)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건축과 전시는 전통 박물관 디스플레이어와 현대 시청각 기술을 결합하였고, 사이트에서 다양한 발굴의 역사적 가치와, 박물관도 실제 발견을 표시하여 고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어 장소적 전이가 이루어진 곳이다.

모뉴먼트의 기념관의 기념적 메모리얼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건축의 모양은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상징성적 다원성의 요소를 잘 보여준 건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여기서 기념적 메모리얼에서 장소적 기억과 장소의 전이적 체험, 기호학의 형태적 분절과 재결합의 요소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과거의 집단적 기념적 장소가 기호학적 형태로 어떻게 표현하였는지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의 활용 면에서도 이후 효율적이면서 개성



적인 부분을 이 박물관의 표현요소를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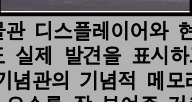
건축물의 위치 조건은 세 가지 기본 형태에 따라 형성했다. 국가 문화 기념물의 일부로써 현장은 발굴 조사지역에 건설을 제안하고, 발굴의 지형에 따라 4~5m 거리에 있어 조형 건축물을 제안, 건설 현장은 보호 풍경 역(PLA)의 일부로써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으로 녹색 초원의 자연적 배경 요소와 건축물의 모호한 경계 지형의 조형미가 자연과 어울려 지속적인 건축과의 관계형성을 보여준 진화적 메모리얼의 Organization의 요소가 돋보인다.

내부의 석회암 바위의 질감을 따라 지하 벽면과 발굴 표시의 현장으로 탈 구조를 보이며, 주요 전시 면적뿐만 아니라, 언덕에 숨겨진 원뿔형 입구와 Děvičky에 모양 아래 호수처럼 스카이라이트 타워, 재료에 관해서는, 콘크리트, 오크 나무와 유리와 모놀리식 릴리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자연광이 외부로 투사, 건물이 동굴의 모양을 연상 할 수 있도록 의도하여 형태적 불연성의 요소가 있으며, 내부공간의 디자인과 공간의 연결은 전반적인 trifecta에 뿌리를 두어, 분절과 재결합의 요소를 보인다.

건축의 모양은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상징성적 다원성의 요소를 잘 보여준 건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고고학의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이트이며, 각 요소의 연결성을 어떻게 배치하여 장소의 확장성에 이미지를 고착하였는지에 대해 잘 보여준 사례이다.



<표 4-2> 파블로프 고고학 박물관 (Archeopark Pavlov) 분석표

1		작품명		파블로프 고고학 박물관		
개요	개관/위치					
	작가/유형					
	Radko Architektonicka kancelar Radko Kvet					
2016년 / Pavlov, Czech Republic			구석기 (맘모스 사냥꾼의 기간)의 돌과 뼈 도구와 인간의 유골을 발굴했다. 1134m² 인 이 사이트는 과거 역사 시대를 생각나게 하고 다층적 문화유산의 일부가 지역 주민과 지역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 문화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자신의 관계를 전이하고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다층적 기억의메타포 요소						
작품 이미지 및 분석 내용						
기념적메모리얼	구분	회상	기념	추모		층에서 발견된 세 젊은 한자의 무덤과 매장 의식에 사용되었던 미적 감각의 예술적 작품 출품으로 그 당시 문화와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던 사냥 복제에 사용되는 돌과 뼈 도구를 출토함으로써 기념적 사이트로 독특한 건축물이 세워졌다.
		모뉴먼트		●		30,000년 역사와 Palava 능선의 경사면에 인류학의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을 통한 기념물이다.
	건축요소	기념비		●		사이트는 사냥꾼의 일상생활과 예술, 장례의식 등 세 개의 측면 배치.
		유적지재구성		●		
	공간요소	순환동선, 송고미				
		연속적조소				
공간요소	장소적 확산		●		다양한 발굴의 역사와 실제 발견을 표시하고, 고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장소적 확산을 통해 구성하였다.	
전이적메모리얼	구분	해체	전이	진화		건축물의 위치 조건은 세 가지 기본 형태에 따라 형성하다. 1. 국가 문화 기념물의 일부로써 현장은 발굴 조사지역에 건설을 제한. 2. 발굴의 지형에 따라 4~5m 거리에 있어 조형 건축물을 제한. 3. 건설 현장은 보호 풍경 역 (PLA)의 일부로써 조화를 이룰 것. 이러한 조건이 있었다.
		조형성 실험성		●		발굴 현장의 지형모습을 그대로 건축적 요소로 활용한 조형성 건축이다.
	건축요소	Organization		●		녹색 초원의 자연적 배경 요소와 건축물의 모호한 경계 지형의 조형미가 자연과 어울려 지속적인 건축과의 관계형성을 보여준다.
		시각적 메모리				
	공간요소	중첩, 회전, 복합				
		가상, 추상 통합				석회암 바위의 질감을 따라 지하 벽면과 발굴 표시의 현장으로 탈구조를 보인다.
공간요소	비대칭, 탈구조		●			
기호학적메모리얼	구분	다층	재결합	다원기호		주요 전시 면적뿐만 아니라, 관리 기술 및 사회 역이 되는 언덕에 숨겨진, 원뿔형 입구와 Děvický에 모양 아래 호수처럼 스카이라이트 타워, 재료에 관해서는, 콘크리트, 오크 나무와 유리 및 모놀리식 릴리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위계탈피				
	건축요소	형태적 불연속		●		자연광이 외부로 투사, 건물이 동굴의 모양을 연상 할 수 있도록 의도.
		상징성적 다원성		●		각각의 입구의 다각화 모양이 유출의 발견위치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공간요소	복잡성, 다중성				
		분절과 재결합		●		내부공간의 디자인과 공간의 연결은 전반적인 trifecta에 뿌리를 둔다.
공간요소	프랙탈 구조					
특징	건축과 전시는 전통 박물관 디스플레이와 현대 시청각 기술을 결합하였고, 사이트에서 다양한 발굴의 역사적 가치와, 박물관도 실제 발견을 표시하고 고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보여 장소적 전이가 이루어진 곳이다. 모뉴먼트의 기념관의 기념적 메모리얼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건축의 모양은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상징성적 다원성의 요소를 잘 보여준 건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고고학의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이트이며, 각 요소의 연결성을 어떻게 배치하여 장소의 확장성에 이미지를 고착하였는지에 대해 잘 보여준 사례이다.					

4.2.3 니메스 로마니티 박물관 (Musée de la Romanité de Nîmes)



<그림 4-5> Musée de la Romanité de Nîmes 전경

2018년 6월 2일에 개관한 로마니티 박물관(Museum of Romanity)은 2천년의 역사를 통해 분리된 두 건물 사이에 놓여 있으며, 이 흔적에는 20세기에 걸친 도시 지층과 대표적인 건축물 조각이 겹쳐져 있다. 로마니티는 니메스(Nîmes)시의 예외적인 유산으로 건축가 엘리자베스 드 포르파크 (Elizabeth de Portzamparc)에 의해 대지 9,100m²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개관되었으며, 고고학 소장품은 2만 5천 개가 넘고, 이중 5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로마니티 박물관은 프랑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현대 건축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이 박물관은 고고학 박물관으로 과학 및 문화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도시의 풍요로운 고대 유산을 발견하며, 이해하고, 전달하려는 문화의 교육을 위해 도시의 새로운 고고학 박물관으로 그 역할을 한다.

1) 주변성 및 배치개념



<그림 4-6> Musée de la Romanité de Nîmes 배치도

니메스 아레나(Nîmes Arena) 맞은편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로마 성벽의 유적이 교차하는 곳에 중세 도시와 현대 도시의 국경이었던 부지에 도시의 역사적인 중심부 쿠산(Eusson) 가장자리에 있다. 니메스(Nîmes)와 21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벨베데레(Belvedere)와 포 그라운드의 원형 경기장, 멀리에서 도시의 창립 때인 투어 마그뉴(Tour Magne)를 통한다. 위<그림 4-6>의 도시 광장과 같이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로써 도시 생활에서 박물관 꼭대기까지 장소적 확장을 제공한다.

카페와 박물관 현관 사이에는 박물관이 문을 닫을 때에도 지나갈 수 있는 넓은 실내 거리로 개방하였으며, 로마 유적의 흔적을 따라 고고학 정원과 전방을 연결하고 있다. 이 반 공공 도로는 시민들에게 공유공간이며, 고고학 정원까지 보행자를 끌어 들이는 동선으로, 유적과 경기장 사이의 로마 축으로 조성되었다. 중심부에 있는 17m 높이의 아트리움은 역사적 기억을 품고 있

는 조각들로 예전의 시대장면을 불러일으키면서 현시대의 새로운 박물관을 발견하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한다.

엘리자베스 드 포르 파크(Elizabeth de Portzamparc) 건축가에 의하면 “이 디자인의 독특한 외관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모자이크 토우의 형태 나무, 빛과 하늘의 반사와 어우러져 2천년 무대의 고대 유산과 상보성을 표현하는 현대 건축 사이의 독특한 건축학적 대화를 만듭니다. 정면은 수동으로 놓여 졌으며, 각 유리 슬라이드는 특별히 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네면에 있는 박물관을 감싸고 태양 광선을 걸러내는 이중 스크린 인쇄 된 유리 피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는 가벼움을 불러일으키는 토우와의 주름의 형태를 취하고, 2,500m²의 면적을 커버하는 6,708개의 블레이드를 지원합니다. 각 블레이드에는 7개의 스크린 인쇄 된 사각형이 있습니다.”⁴¹⁾

2) 공간구성 및 전시설계

고대 도시 입구에 위치한 로마니티박물관은 투명한 1층을 통해 원형 극장(Amphitheater)의 전망을 연다. 외관의 유연한 천정은 로마 토가를 불러일으키며, 이를 구성하는 사각 유리판은 현대적인 투명성과 주요 로마 예술의 전통인 모자이크를 결합하였다. 이 유리 모자이크의 반사와 물결 모양은 계속해서 시각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파사드(facades)에 있는 수많은 입구는 지하 감옥과 고고학 정원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제공한다. 전시공간 전체에서 뮤즈 고고와 외관 사이에 끊임 없는 대화가 유지되어 도시가 박물관을 관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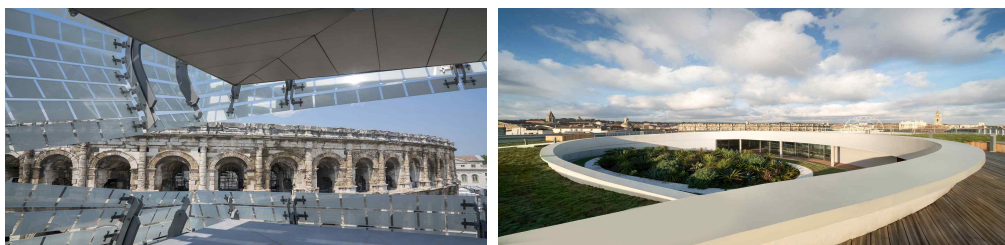
고고학 정원은 갈리아 로마서(Gauls, Romans) 및 중세(Middle-Ages)의

41) <https://www.archdaily.com>, “Musée de la Romanité de Nîmes / 2Portzamparc - Elizabeth de Portzamparc” 2014년 6월 14일. ArchDaily, 인용



주요 기간에 해당하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발견된 모든 역사의 흔적은 보존되어 복원되었으며, 또한 관개 도로로 되어있어 과학적 목적을 풍부하게 하는 동시에 완료시 큰 일관성을 제공하였다.

로비에서 방문객들은 상보르(Chambord) 계단의 곡선을 그리며 코스를 따라 가도록 되어있으며, 오르막은 컬렉션에 대한 높은 관점을 제공하는 매우 부드러운 경사로 이루어져 있다. 대형 창문은 정원과 경기장이 보이며, 옥상 테라스는 루트의 절정으로 20세기의 역사와 마그네 타워(Magne Tower), 니메스(Nîmes) 전체 도시의 파노라마를 제공한다.



<그림 4-7> Musée de la Romanité de Nîmes 공간의 시각적 배경

3) 조형성

모자이크를 연상케 하는 주름진 반투명 유리 외장으로 둘러싸인 로마니티 박물관은 타원형과 직사각형, 수직과 수평, 돌의 밀도와 유리의 밝기에 따라 모양의 선과 덩어리가 대조되고 조화롭게 서로 대화하듯 시각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 대화는 박물관 내부에서도 계속되며, 외관과 내부 유리 구조의 투명성은 니메스(Nîmes)의 풍요로운 유산을 표현하기에 좋은 오브젝트이다. 공간과 인간의 상호 연결을 촉진하는 아키텍처, 지역 애니메이션 및 삶의 질을 위한 지원,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 거리와 그 장소에 인접한 장소 사이에 만들어진 축과 링크는 도시의 통기성과 도시를 가로 지르는 새로운 경

로를 제공하며,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매력적인 건축물이다.

로마니티박물관은 돌의 질량 및 로마가 남긴 수직 아치의 웅대한 디자인을 직면하게 하고, 건물은 명확하게 빛나는 존재로, 투명한 유리사이 고고학적 사이트에 세워진 박물관으로 현대 건축에서도 빛난다. 부지에 그리고 고고학 정원에, 팔레 드 쥐스티스(Palais de Justice) 건축에 직면 한 광장의 광장과 경기장의 커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박물관이 만들어내는 볼륨감, 고전적인 거대함을 향한 경쾌함, 관람객을 대하는 정중함이 뛰어난 건축적 형태와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

4)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유적과 아레나(Arenas) 사이의 연결 고리인 로마니티박물관은 2,000년의 역사적 기억을 담고 있는 사이트로써 박물관의 건축적 창의성 및, 주위배경과의 일관성, 과거를 확장하는 고고학적 정원은 시각적 개방과 접근을 가져다주어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에서 장소적 기억의 회상적 기념공간이다.

이 기념공간은 건축물을 통해 과거의 역사적 배경을 아트리움의 옥상정원까지 끌어올리며, 곳곳에 역사적 배경을 끌어 들인다. 이로써 아트리움은 과거와 미래의 재결합의 상징성을 보여주며, 동시적 교차점에 서게 하여, 전이적 메모리얼의 시각적 메모리를 선사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니스의 주민들에게서 숨겨져 있던 페디먼트의 단편에서 성소의 주요 입구를 재구성하여 신성한 곳의 새로운 탄생을 선사하며, 시민들의 기억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인 유산 요소로 남을 것이다.

로마니티박물관은 회상적 기념공간으로써 앞으로의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창의적 건축물로의 건축적 표현방법, 자연과 주위의 조화방법, 시민들의 공유공간 등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이다.



<표 4-3> 니메스 로마니티 박물관 (Musée de la Romanité de Nîmes) 분석표

1	작품명				로마니티 박물관	
개요	개관/위치				2018년 / 16, boulevard des Arènes, 30900 Nîmes,	
	작가/유형				로마니티 박물관(Museum of Romanity)은 2천년의 역사를 통해 분리된 두 건물 사이에 놓여 있으며, 대지 9,100㎡에 지하층, 지상3층으로 개관되었으며, 고고학 소장품은 2만 5천 개가 넘고, 이중 5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Elizabeth de Portzamparc					
다층적 기억의메타포 요소					작품 이미지 및 분석 내용	
기 념 적 메 모 리 얼	구 분	회상	기념	추모		로마니티박물관은 프랑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현대 건축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이 박물관은 고고학 박물관으로 과학 및 문화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고대 유산을 발견하며, 이해하고, 전달하려는 문화의 교육을 위해 고고학 박물관으로 그 역할을 한다.
		●	●			
	건 축 요 소	모뉴먼트				
		기념비				
	공 간 요 소	유적지재구성			●	고고학 정원은 Gauls, Romans 및 Middle-Ages의 주요 기간에 해당하는 3개의 층으로 구성, 역사의 흔적은 보존되어 복원 되었다.
		순환동선,송고미				
연속적조소			●	로비에서 방문객들은 샹보르(Chambord) 계단의 곡선을 그리며 코스를 따라 가다보면, 컬렉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제공 받는다.		
전 이 적 메 모 리 얼	구 분	해체	전이	진화		투명한 1층을 통해 원형 극장 (Amphitheater)의 전망을 연다.
				●		
	건 축 요 소	조형성 실험성				빛과 하늘의 반사와 어우러져 2천년 무대의 고대 유산과 상보성을 표현하는 현대 건축으로 정면은 각 유리 슬라이드로 주변을 반사하며, 역사적 기억을 품고 있는 조각들로 고고학 장면을 불러일으키며 현시대의 새로운 박물관을 발견하는 과거에서 미래로의 진화.
		Organization			●	카페와 박물관 현관 사이 입구는 넓은 실내 거리로 개방하여 로마 유적의 흔적을 따라가면 고고학 정원과 전방을 연결된다.
	공 간 요 소	시각적 메모리			●	부드러운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 대형 창문은 정원과 경이장이 보임.
		중첩, 회전, 복합				
가상, 추상 통합						
기 호 학 적 메 모 리 얼	구 분	다층	재 결합	다원 기호		파사드(facades)에 있는 수많은 입구는 내부의 비대칭 구조로 인해 지하 감옥과 고고학 정원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제공한다.
		●	●			
	건 축 요 소	위계탈피				건물의 중심부에 있는 17m 길이의 아트리움은 로마 시대 초기의 기초에서 유래된 신성한 장소를 훌륭하게 복원한 가운데 분수대의 성역 일부분을 보여준다. 옥상 테라스는 20세기의 역사와 Magne Tower, Nîmes 전체 도시의 360도 파노라마를 제공하여 과거, 현재, 미래로의 진화를 보여준다.
		형태적 불연속			●	반투명 유리를 2,500㎡의 표면을 덮는 7,000개의 스크린으로 모자이크의 반사와 물결 모양으로 하루에도 다양한 형태와 모양이 바뀐다.
	공 간 요 소	상징성적 다원성				
		복잡성, 다중성				
분절과 재결합			●	지층의 고고학적 발굴과 전시공간, 아트리움은 기술 혁신 및 미적 측면, 비디오 프로젝션 및 설치로 인해 분절과 재결합이 나타난다.		
	프랙탈 구조					
	특징					
유적과 아레나(Arenas) 사이의 연결 고리인 로마니티박물관은 2,000년의 역사적 기억을 담고 있는 사이트로써 박물관의 건축적 창의성 및 주위배경과의 일관성, 과거를 확장하는 고고학적 정원은 시각적 개방과 접근으로,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에서 장소적 기억의 회상적 기념공간이다. 역사의 중심적 공간에서 과거와 미래의 재결합의 상징성을 보여주며, 오랫동안 니메스의 주민들에게서 숨겨져 있던 페디먼트의 단편에서 성소의 주요 입구를 재구성하여 신성한 곳의 새로운 탄생을 선사했으며, 역사적 새로운 탄생의 공유공간의 박물관은 다층적 기억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인 유산 요소로 남을 것이다.						

4.2.4 전곡선사박물관 (Jeongok Prehistory Museum)



<그림 4-8> 전곡선사박물관 전경

경기도 연천군이 전곡리 일대 구석기 유적지 일대에 전곡선사박물관이다. 72,599m²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000m² 규모로 2011년 완공했다. 전곡선사박물관은 프랑스의 건축사사무소 니콜라스 데마지에르·아누 르정드르 (X-tu Architects)의 ‘선사유적지로 통하는 문’을 설계로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지어진 것이다.

이 건축물의 형태는 뱀이 꼬리를 틀고 있는 모습으로 건물 외부도 관람객들이 선사시대에 와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재질로 ‘뱀의 비늘’을 형상화 했다.

1) 주변성 및 배치개념

주한미국이 1978년도에 구석기 유물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전곡리 선사 유적은 전기구석기시대 유적으로, 과거 당시 동두천주둔 미군인 그렉 보웬

(Bowen G.)에 의하여 1978년에 처음 발견되었다. 이후 1979년 최초의 고고학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해 10월 국가사적 268호로 지정되었다. 유적은 전곡읍 남쪽 한탄강이 감싸고 있는 현무암 대지 위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이후 모두 17차례에 걸쳐 2009년까지 고고학 조사가 실시되었다.

두 구름 사이에 걸친 자연스러운 유선형의 지붕, 벽, 바닥의 구분 없이 한 덩어리로 보이게끔 마감하여 처리하였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창을 최소화하여 그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 출입구 부분의 형태와 마감재도 상부에 떠 있는 매스와 마찬가지로 둥근 유선형과 스테인리스로 마감을 하였으며, 이는 마치 계곡과 같이 두 구름이 마주하고 있는 형상을 띄고 있는 것 같다.



<그림 4-9> 전곡선사박물관의 낮과 밤

2) 공간구성 및 전시설계

전곡선사박물관 건축내부의 석주 혹은 종유석 같은 요소들은 마치 비워 있는 동굴 같이 느끼게 만드는데, 이는 선사라는 박물관의 건축적 형태와 주제 등의 각각의 요소들과 하나로 연결되는 맥락을 이루고 있다.

몇 안 되는 외부로 향하는 커튼월 부분에서는 건축물의 구조가 노출되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구조가 노출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공간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전체적인 전 썰 내부공간은 앞서 이야기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요소들의 반복으로 이뤄져 있고, 의자, 전시대 모두 같은 맥락으로 처리되었다.



<그림 4-10> 전곡선사박물관의 내부공간

마치 굴속 형태를 탐험하는 내부동선은 전곡리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물을 중심으로 추가령지구대의 자연사 및 환경에 적응하는 인류와 동물에 관해 동굴벽화를 재현하고, 인류의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화석인골 모형 등을 전시하는 상설전시관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고고학체험교실과 선사레스토랑으로 이어지며, 고고학체험교실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뼈와 조개를 이용한 장신구 만들기, 토기 만들기, 석기 만들기, 가죽옷 만들기, 불 피우기, 원시 요리법, 발굴 체험 등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3) 조형성

박물관은 레벨 깊숙이 앉아 있는데 이는 고고학자들이 고대 흔적 속을 캐내고 있는 바닥면으로, 숨겨진 땅속의 발견으로, 방문객들과 함께 깊은 지층 속까지 유도하기 위해서 이다.

박물관은 미래적인 건물 속 동굴로 설계됐다. 박물관 형태는 유기적이고 부드러우며 둥글게 처리했고 외피는 어떤 직각부도 단절부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 박물관 입구까지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길은 온통 하얗게 표현해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보였으며, 천장은 벽과 이어져 바닥과 만난다. 가구와 진열장, 벤치는 내부 표피가 연장된 형태로 되어있다. 동굴 내부에 조각된 블록도 이와 동일하다. 이러한 박물관 요소는 그 심오함 속에서 넓게 열린 구획들과 나무줄기처럼 숲을 이루는 기둥들로, 언덕을 굽어보는 개방형 창문 프레임으로 진정한 경관을 형성하면서 마치 “이주 흐름을 나타내는 지도”처럼 부유하는 오브제들을 드러내고 관람객들을 몰입하게 한다.

야외로 나가면 고리 형태의 통로들이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연결하고 묶어주는 장소인 옥상으로 이어진다. 수려한 경관이 펼쳐진 박물관 꼭대기에서 우리는 선사시대 인간이 되어 고지를 조망할 수 있다.⁴²⁾

4)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전국선사박물관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발견으로 동아시아 최초와 동시 세계 구석기 연구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역사적 현장인 전국리 구석기유적에 건립된 유적박물관으로 기념적 메모리얼의 모뉴먼트의 요소가 강한 사례이다. 세계적 역사적 장소의 기념적 공간이지만 건축의 형태는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요소가 많이 나타났다. 즉 과거 기념적 형태가 현 시대에 전이되어 유기적 형태를 많이 표현함으로써 조형성의 실험성 요소가 건축과 풍경을 완전히 혼합하여 새로운 대지예술에 가깝게 표현되었다.

이처럼 유기적인 형태로 거의 동물과 흡사한 부드럽게 디자인된 박물관은 빛을 반사·변화하고 보는 시점에 따라 파도처럼 일렁거리게 만든다. 한국 문

42) 공간, XTU 공간, P523 발췌



명의 용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구멍이 많이 뚫린 반짝이는 반투명 스테인리스의 건물 표피는 용의 비늘처럼 보이게 하고, 그 빛에 의해 어떤 때는 언덕 위의 구름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어떤 때는 선사시대의 입구에 들어서게 하는 시간 속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동굴모양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다원적 상징성이 돋보이는 사례이다.

구석기유적지에서 추가령지구대의 자연사를 비롯해 출토된 아슐리안 주먹도끼 등의 인류의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환경에 적응하는 인류와 동물, 화석인골모형, 동굴벽화 재현 등의 주제로 구성되는 상설전시관은 다층적 기억의 전이적 교육차원에서 중요한 장소이다. 장소적 전이이면서 기념관으로써 그리고 기념적 메모리얼의 요소에서 다원적 상징성의 건축외관 형성과정은 현 메모리얼뮤지엄의 좋은 요소확장의 진화된 사례라 볼 수 있다.



<표 4-4> 전곡선사박물관 (Jeongok Prehistory Museum) 분석표

1		작품명		전곡선사박물관				
개 요	개관/위치			2011년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번길 2				
	작가/유형			경기도 연천군이 전곡리 일대 구석기 유적지 일대에 전곡선사박물관이다. 72,599㎡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000㎡ 규모의 전곡선사박물관은 프랑스의 건축사무소 니콜라스 데마지에르·아누 르정드르 (X-tu Architects)의 '선사유적지로 통하는 문'을 설계로 국제설계공모전을 통해 2011년 완공됐다. 건축물의 형태는 뱀이 꼬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스테인리스 재질로 '뱀의 비늘'을 형상화한다.				
	니콜라스 데마지에르·아누 르정드르 (X-tu Architects)							
다층적 기억의메타포 요소				작품 이미지 및 분석 내용				
기 년 적 메 모 리 일	구 분	회상	기념	추모		전곡선사박물관은 아슬리안형 주먹도끼 발견으로 동아시아 최초와 동시 세계 구석기 연구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던 역사적 현장이며, 전곡리 구석기유적지 장소에 건립된 유적박물관이다.		
		모뉴먼트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국가사적 제268호로 지정보호 되고 있으며, 전곡리 유적의 보존 활용을 위해 오랜 기간 박물관을 건립하였다.
		기념비						
	건축 요소	유적지재구성					건물의 외형적 모습은 자연스런 언덕으로 이어져, 주변 산세와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순환동선,송고미						
		연속적조소						
전 이 적 메 모 리 일	구 분	해체	전이	진화		아외로 나가면 고리 형태의 통로들이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연결하고 묶어주는 장소인 옥상으로 이어진다. 수려한 경관이 펼쳐진 박물관 꼭대기에서 우리는 선사시대 인간이 되어 고지를 조망하며 전이의 장소에서 진화한다.		
		조형성 실험성						건축과 풍경을 혼합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으로 대지예술에 가깝다. 건물의 유기적 형태는 자연의 모습을 반사하여 경계를 허물고 때로는 그 모습을 드러내며 조화로우움을 발전시켜 나간다.
		Organization						
	건축 요소	시각적 메모리					물관이 지하로 깊숙이 들어왔아 있는데 외관의 형태로 탈구조를 보이며, 공간 안의 전시장의 공간확보를 위해 대칭적 구성을 보임.	
		중첩, 회전,복합						
		가상,추상 통합						
기 호 화 적 메 모 리 일	구 분	다층	재 결합	다원 기호		유기적인 형태로 거의 동물과 흡사한 부드럽게 디자인된 박물관은 빛을 반사변화하고 보는 시점에 따라 파도처럼 일렁거리게 만든다. 한국 신화의 용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구멍이 많이 뚫린 반짝이는 건물표피는 반투명 스테인리스로 용의 비늘처럼 보이게 하는 다원적 기호의 상징성을 내포한다.		
		위계탈피						형태는 유기적이고 둥글게 처리, 외피는 직각부와 단절부가 없다. 박물관 형태는 유기적이고 부드러우며 둥글게 처리했고 외피는 어떤 직각 부도 단절부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
		형태적 불연속						
	건축 요소	상징성적 다원성					용을 형상화한 형태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때로는 동굴모양을 때로는 구름모양으로 그 형상이 이미지로 다양하게 표출되어 나타난다.	
		복잡성,다중성						
		분절과 재결합						
프랙탈 구조								
특 징		전곡선사박물관에는 전곡리 구석기유적지에서 추가령지구대의 자연사를 비롯해, 출토된 아슬리안 주먹도끼 등은 인류의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동굴벽화, 화석인골모형, 환경에 적응하는 인류와 동물 재현 등 상설전시관으로써 다층적 기억의 전이적 교육차원에서 중요한 장소이다. 장소적 전이이면서 기념관으로써 그리고 기념적 메모리얼의 요소에서 다원적 상징성의 건축외관 형성과정은 현 메모리얼유지업의 좋은 요소확장의 사례라 볼 수 있다.						

4.3 전이적 메모리얼 사례분석

4.3.1 내셔널 9.11 메모리얼 & 뮤지엄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그림 4-11>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전경

본 논문의 전이적 메모리얼의 대표사례 내셔널 9.11 메모리얼 뮤지엄은 뉴욕(New York, NY10006)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4,552,25m², 전시면적은 32,000m², 대지면적 65,000m²,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로 지었으며, 2014년 5월 21일 개관하였다.

2001년 9월 11일 테러에 의해 폭파된 세계무역센터(WHC:World Trade Center)를 기념하기 위해 9.11 추모공원과 상설기념관을 건립한 것이다. 원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축(1966-73, Minoru Yamasaki설계)은 107층에 높이 405m로 1970년대의 세계 최고높이인 뉴욕의 랜드마크였다. 테러리스트 공격 후 폐허가 된 그 자리를 ‘Ground Zero’라 명명하고, 2003년 2월에 세계

무역센터 자리 디자인 공모에 최종 설계자로 다니엘 리베스킨드(Daniel Libeskind, 1945년 폴란드 태생의 미국건축가)가 선정되었으나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그 후 내셔널 9.11 뮤지엄은 데이비스 브로디 본드(Brody Bond Aedas 회사) 디자인으로 건립되었으며, 9.11 추모공원은 이스라엘 출신 건축 디자이너 마이클 아라드(Michael Arad)에 의한 것으로 2003년 추모공원 디자인 공모에서 200대 1(63개국, 5,200여명이 참가한 국제적인 디자인 공모전)이 넘는 경쟁을 뚫고 당선되면서 스타 디자이너가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조경 건축가인 피터워커(Peter Walker)와 협동으로 완성한 것이다.

1) 주변성 및 배치개념

세계무역센터 자리는 맨해튼 남쪽(Lower Manhattan) 금융지역으로 Battery 공원과 세계금융센터(World Financial Center) 등이 인접한 금융가이다. 본래 WTC는 두개의 쌍둥이 타워와 주변의 저층 건축 군이 중정을 중심으로 전체 블록을 형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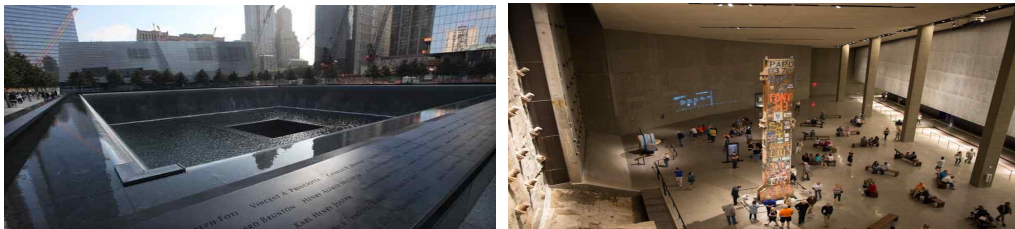
2,977명의 목숨이 테러로 숨진 뉴욕 맨해튼 남부 ‘그라운드 제로’에 들어선 9.11 추모공원 ‘부재의 반추(Reflecting absence)’는 9.11테러로 인해 WTC 쌍둥이 빌딩이 서 있던 자리에 허드슨 강물이 떨어지는 두 개의 거대한 폭포가 들어서고, 그 주변에는 400그루의 참나무가 둘러싸인 모습이다. 폭포가 위치한 빈 공간은 과거 그 자리에 서있던 WTC 건축과 희생자들의 부재(不在)를 상징한다. 약 56,700m²가 넘는 WTC 대지에는 기념관과 뮤지엄 이외에도 방문객 교육센터·신축Path 기차역·지하철역·지하상가·안정검열지역·다섯 개의 신축 사무실 타워·공연예술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 공간구성 및 전시설계

현대 뮤지엄 건축이 일반적으로는 ‘작품을 담은 공간’이라면, 이 뮤지엄은 그러한 개념을 뒤집어서 ‘공간이 전시가 되는 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크게 네 가지 성격의 전시공간에서 방문객은 먼저 스노 헤타(Snohetta)가 디자인한 뮤지엄 파빌리언을 통해 진입한다. 이 파빌리언은 자연광을 가득 담은 공간으로서 삶의 밝고 건강한, 동시에 계속 되는 본 전시공간과 감각적인 대조를 이루는 곳이다.

전시 주제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공간이 지하에 있고, 진입 파빌리언에서 바로 이어지는 지하 1층 레벨은 관람객을 외부환경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조용하고 명상에 잠기게 하는 공간이며, 전체 전시를 안내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바닥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마치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을 갖게 하며, 정교하게 세팅된 시선을 통해 전체 메모리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림 4-12> 그라운드 제로(좌), West Chamber(우)

세 번째는 ‘West Chamber’, 즉 무너진 기존의 무역센터 기초지반 레벨이다. 이곳에 이르면 관람객들은 지상 위의 없어져 버린 건물의 노출된 실제 기초기둥을 경험하며 과거로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 또한 테러에서 살아남은 Slurry Wall이 의미 있는 전시배경의 역할을 하며 11m 높이의

‘Last Column’이 참혹했던 폐허를 짐작하게 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시 메모리얼 홀로 되돌아오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새롭게 지어지는 프리덤 타워를 돌아볼 수 있으며 메모리얼 홀을 통해 다시 현실세계의 밝고 활기찬 곳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마치는 것이다.

3) 조형성

부정형 매스의 메모리얼 뮤지엄은 간결한 수평성을 강조한 평온한 대지에 강한 인상을 주는 형태로서, 다양한 각도의 면을 투명과 반투명, 반사와 무반사 재료를 대비시킴으로써 자칫 가라앉기 쉬운 메모리얼 전체 단지의 분위기를 바꿔놓는다.

거울 면을 통해 반사되는 신축 주변 건물에서는 유리면을 통해 뿔어져 나오는 실내의 조명과 떨어진 빔물이 전체매스를 감싸듯 흘러내리는 모양 모두 뉴욕의 다운타운이라는 장소성을 반영하는 조형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독특한 외관형태와 재료의 조합은 친환경 건축 단계의 최고레벨을 받기 위한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일조량을 최대한 유입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재활용 가능성을 최대화 한 것이다.⁴³⁾

4)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표4-4> 분석표에 분석한 결과 전이적 메모리얼에서 기념과 추모도 중요하지만 장소의 지속적인 전이 과정이 잘 표출된 사례라 볼 수 있다. 건축의 부재와 함께 추모공간의 새로운 해석 또한 내부공간의 사고의 매체들을 활용한 점은 다층적 기억에서는 전이적 메모리얼에 그 영역이 크다 할 수 있으

43) 서민우, 서상우, 이성훈(2014), 기문당, 21세기 새로운 뮤지엄건축, 466p~468p.인용



며, 추모의 장소적 집단기억과 사건의 기억의 전이가 이루어진 곳이다.

‘부재의 반추’인 폭포의 추모공간과 내부 지하 1층 레벨은 관람객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명상에 잠기게 하여 숭고미를 가져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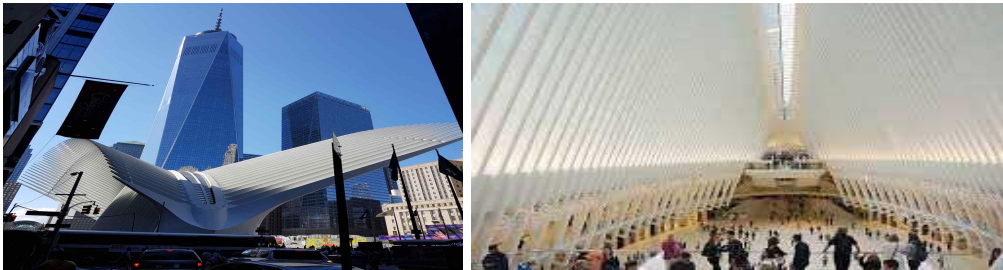


<그림 4-13> 그라운드 제로의 추모 연출

이렇듯 기념과 추모를 뛰어넘어, 전이적 메모리얼에서는 기억의 전이와 장소의 Organization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다. 이 전이장소에선 WTC의 사이트에는 뮤지엄뿐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센터, 기차역, 지하철역, 오피스와 공연 예술 센터 등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 기억의 고리를 타고 건축과 건축들이 새로운 희망의 장소로 진화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최첨단 기술을 더하여 이곳의 건축들과 사우스폴의 공간감의 연출이 최고의 시각적 메모리를 통해 전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건축의 부정형 형태로 인해 내부에도 기존 건물의 제거 된 철 구조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36피트의 ‘Last Column’의 입구부터 비대칭, 탈구조의 공간이 나타난다.



<그림 4-14> Transportation H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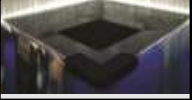
기호적 메모리얼에서는 WTC 자리에 7개의 새롭게 재형성된 건축물들이 각각의 성향에 맞게 상징성을 선보인다. 최근 메모리얼뮤지엄 왼쪽으로 날개 모양의 산티아고 칼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 Valls)가 설계한 운송 허브(Transportation Hub)가 있고 핵심 건축물인 프리덤 타워(Freedom Tower)는 541미터로 가장 높다. 그리고 공간의 요소에서는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탈출구의 계단과 기둥, 외벽을 그대로 보존하고 다시 새로운 공간의 재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911 메모리얼 & 뮤지엄은 빛과 어둠, 과거와 현재를 한 공간에서 다시 새로 그리면서 추모와 희망의 장소를 어떻게 묶을 것 인지에 대해 잘 표현한 건축이다. 그 안에 시민들의 의식과 정부, 그리고 건축가들의 공유와 협업으로 잊지 말아야 할 요소 하나하나까지 의미 있는 시각적 표현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후 현시대에서 다원적 기호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그 사이에 위치한 그라운드 제로, 도시로부터 분리된 시간의 흔적들과 조각들 글라스 파빌리온의 두개의 타워를 연상시키는 시퀀스 연출과 지하 공간의 시간여행, 잃어버린 3천여 명의 생활이 현재 도시인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희망의 장소, 상징적 장소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기념적 메모리얼에서는 기념과 추모의 장소성과 순환동
선, 숭고미, 전이적 메모리얼에서는 Organization과 시각적 메모리, 비대칭
탈구조의 요소가 나타나며, 기호학적 메모리얼에서는 재결합인 상징성적 다
원성과 공간의 분절과 재결합 요소가 표출되었다.



<표 4-5> 내셔널 셉템버 9.11 메모리얼 & 뮤지엄(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1	작품명		내셔널 섹템버 11 메모리얼 & 뮤지엄			
개요	개관/위치					
	작가/유형					
	데이비스 브로디 본드 Davis Brody Bond					
			2011년 / 180 Greenwich St, New York, 미국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WTC)에서 자행돼 3000여명의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건설된 기념관 및 박물관이다. 뉴욕. 국립 9월 11일 기념관을 보완하는 박물관은 2001년과 1993년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의 삶을 기념하면서 멀티미디어 전시물, 기록 보관소, 내러티브 및 기념비적 유물 수집을 통해 9/11 이야기를 전한다.			
다층적 기억의메타포 요소			작품 이미지 및 분석 내용			
기념적메모리얼	구분	희상	기념	추모		9.11 메모리얼 공원에는 두 동의 타워가 무너진 자리에 각 변의 길이가 60m인 정사각형 초대형 사우스폴과 노스폴 2개 폴과 그 사이 메모리얼 박물관(Memorial Museum)이 있다. 각 폴마다 땅 밑으로 약 9m 깊이로 화강암 벽을 설치, 4개면에서 모두 폭포수 같은 물줄기가 흘러내린다. 테두리를 따라 설치된 동판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	●		
	건축요소	모뉴먼트		●		20세기의 테러의 장소를 파괴로 부터 새로운 희망의 장소로 기념한다. 폐허의 기둥과 계단이 그대로 내부의 추모비 형태로 재사용 되었다.
		기념비		●		
	공간요소	유적지재구성				한쪽 벽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구와, 희생자의 이름을 새긴 청동 패널은 승고미를 느끼게 한다.
		순환동선,승고미		●		
	연속적조소					
	장소적 확산					
전이적메모리얼	구분	해체	전이	진화		16에이커의 WTC 사이트에는 박물관, 방문자 오리엔테이션 센터, 새로운 PATH 기차역, 지하철역, 지하 소매점, 보안 심사 구역이 있는 지하도 네트 워크, 57개의 새로운 오피스 타워 및 공연 예술 센터가 포함 된다. 이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8에이커의 메모리얼 사이트와 물리적 및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어 장소적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			
	건축요소	조형성 실험성				테러로 무너진 110층 쌍둥이 빌딩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자리에 7개의 건물이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있다.
		Organization		●		
	공간요소	시각적 메모리		●		사이트안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건축 합들의 조합과 사우스폴의 공간감이 시각적으로 어우러진다.
		중첩, 회전,복합				
	가상,추상 통합					
	비대칭,탈구조		●		Ground Zero에서 제거 된 철 구조물로 36피트의 'Last Column' 입구 탈구조 공간을 이룬다.	
기호학적메모리얼	구분	다층	재결합	다원기호		테러로 무너진 110층 쌍둥이 빌딩인 WTC(세계 무역센터) 자리에 7개의 건물이 새롭게 재형성되며, 메모리얼뮤지엄 왼쪽으로 보이는 날개모양의 건축물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설계한 Wtc Transportation Hub, 핵심 건축물인 '프리덤 타워'는 541미터로 가장 높다.
			●	●		
	건축요소	위계탈피				9/11 테러로 인해 21세기 최첨단기술로 희망적 건축물의 조합이 상징된다.
		형태적 불연속				
	공간요소	상징성적 다원성		●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탈출구의 계단과 기둥, 외벽을 그대로 보존 새로운 공간에 다시 재결합 하였다.
		복잡성,다중성				
	분절과 재결합		●			
	프렉탈 구조					
특징	911 메모리얼 & 뮤지엄은 빛과 어둠, 과거와 현재를 한 공간에서 다시 새로 그리면서 추모와 희망의 장소를 어떻게 묶을 것인지에 대해 잘 표현한 건축이다. 그 안에 시민들의 의식과 정부, 그리고 건축가들의 공유와 협업으로 있지 말아야 할 요소 하나하나까지 의미 있는 시각적 표현을 가져다주었으며, 이후 현시대에서 다원적 기호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그 사이에 위치한 그라운드 제로, 도시로 부터 분리된 시간의 흔적들과 조각 글라스 파빌리온의 두개의 타워를 연상시키는 시퀀스 연출과 지하 공간의 시간여행, 잃어버린 3천여 명의 생활이 이 현재 도시인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희망의 장소, 상징적 장소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4.3.2 독일 드레스덴 군사 박물관 (Dresden Museum of Military)



<그림 4-15> Dresden Museum of Military 전경

독일 드레스덴 군사 박물관은 독일 드레스덴 오브리히트(Olbrichtplatz Dresden, Germany)에 위치해있으며, 연면적 19,982m², 전시면적 1,951m², 지상 5층의 기존 1870년 건축물을 2004년에 다니엘 리벤스킨이 증개축 하였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이며, 2011년 10월 15일 개관하였다.

드레스덴은 통일 독일 직전 민주화와 통일운동이 대규모로 펼쳐진 동독의 상징도시로 다니엘 리벤스킨 설계에 의해 베를린에 개관된 유대인 뮤지엄이 10년이 된 후에 같은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드레스덴 군사 뮤지엄으로 개관하게 되었다. 이 두 뮤지엄 모두가 아방가르드 식으로 건립되었던 바, 역사에 대해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쟁·폭력·파괴·증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건축(1897)은 1870년대에 드레스덴을 다스리던 작센왕국 시절의 병기창 건물인데, 2004년에 5,700만 유로(약 850억 원)에 사들여 뮤지엄으로 재단장한 것이다.

1) 주변성 및 배치개념

기존 건축의 대칭성을 과감하게 벗어나 췌기형태의 매스가 중심에 확장되어 과거 병기창고로 쓰이던 135년 된 건물을 가로지르고 있다. 새로 가미된 췌기 끝이 향한 곳은 1945년 연합군의 폭격으로 드레스덴 시민 2만 5,000명이 사망할 때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이다. 이로써 드레스덴 전쟁의 참회를 기록한 듯한 느낌의 배치개념을 보이고있다.

2) 공간구성 및 전시설계

기존 병기창고 건물에 콘크리트·철골·유리로 구성된 5층 높이에 달하는 14,700톤의 거대한 매스를 가로지르게 합쳐 구성된 공간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특히 췌기의 모서리가 되는 뾰족한 부분에는 드레스덴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었고, 그 끝부분은 투하한 방향을 가리키도록 설계된 극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전시공간에는 1,800년대 작센왕국시대 부터, 최근까지의 군사물품 7,000여점이 전시되고, 전시공간은 독일의 반성과 전쟁의 참상을 콘셉트로 삼았다. 즉 전시공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는데 기존 건물은 연대기 순으로 전시되고, 새로 증축된 췌기부분은 군대의 패션·장난감·기술 그리고 군 기지 등의 주제별 전시를 보여준다. 경사진 내부공간을 건다보면 자연스럽게 상층에 도달하고, 최상층에는 ‘전쟁과 기억’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3) 조형성

새로 확장된 부분은 투명한 재료의 파사드로 열린 느낌을 주면서 견고하고 불투명한 기존 건물과 대조를 이룬다. 기존의 건축이 과거 독일이 경험했던 전체주의의 엄격함을 나타낸 반면 새로 증축된 유리건축은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성을 표현한 듯하다.⁴⁴⁾

4)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표 4-5>의 분석표와 같이 메모리얼에서 전쟁의 참상과 유물의 군사시대 변천과정을 알 수 있는 모뉴먼트의 사건을 통한 기억의 전이가 표출된 뮤지엄으로써, 공간요소에서 높이가 30m인 켄지는 파노라믹 테라스와 10,500개의 군사 생활의 작품으로 이어져 장소적 확산요소가 나타났다. 전쟁의 인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독일 군사 기술의 진화를 볼 수 있다.

건물의 외관에 투명한 화살촉을 추가하여 조형성 실험성·시각적 메모리로 혁신적 표현을 창출 하였으며, 박물관이 대중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고안된 부분이 비대칭, 탈구조의 증개축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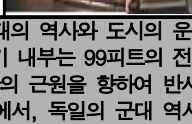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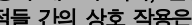
기호학적 메모리얼에서는 옛 사건적 장소의 역사와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지역을 가리키는 현대 드레스덴 조형의 재결합과 다원적 기호가 나타났으며, 증개축의 결합한 조형 건축적 부분이 위계탈피와 상징성적 다원성의 요소가 강하게 보인다. 그리고 내부의 군사기술, 권총, 유니폼 및 휘장, 미술, 이미지 보관소, 기록 및 도서관의 역사적 연출공간이 프렉탈 구조로 되어있다.

이 건축물은 폭력과 군대의 역사와 도시의 운명과 기억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관한 가장 깊은 쟁점에 대중을 참여시킨다. 새로운 개방성과 투명성은 기존 건물의 불투명도 및 강성과 대조가 되며, 권위주의적 과거의 심각성을 재구성하여 민주 사회의 개방성을 반영하고 이러한 관점들 간의 상호 작용은 새로운 군사 역사박물관의 다층적 기억을 형성한다.

44) 서민우, 서상우, 이성훈(2014), 기문당, 21세기 새로운 뮤지엄건축, 98p~101p.인용



<표 4-6> 독일 드레스덴 군사 박물관 (Dresden Museum of Military)

1		작품명		독일 드레스덴 군사 박물관			
개 요	개관/위치				2011 / Dresden, Germany		
	작가/유형				작센주의 주도인 드레스덴에 독일 최대의 증축, 개관한 군사박물관이다. 프로이센부터 독일 제국, 두 번의 세계 대전과 냉전에 이르기까지 독일군이 걸어온 드라마틱한 역사 속의 유산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건물 밖에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냉전 시대를 아우르는 각종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는 물론 비교적 최근 일선에서 물러선 미사일 등이 관람객을 맞는다.		
	다니엘 리베스킨트						
	Daniel Libeskind						
다층적 기억의메타포 요소				작품 이미지 및 분석 내용			
기 념 적 메 모 리 일	구 분	희상	기념	추모		1873~1877년 사이 드레스덴의 올브리히광장 지역에서 처음에는 병기창(무기창고)의 용도로 건설되었다. 1914년 병기창 내에 작센 무기박물관이 설치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창고로 버려졌다가 1940년 군대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어 1945년 개관하였다. 이후 1990년 국방부는 이 박물관을 군사박물관(Museum of Military History)으로 개명한다.	
				●			
	건 축 요 소	모뉴먼트		●		전쟁의 참상과 군사력의 폐해의 유물과, 군사대국의 변천과정을 알 수 있다.	
		기념비					1994년 리노베이션으로 원래 구조물에 갤러리 공간을 추가하여 연결됨.
	공 간 요 소	유적지재구성		●			
		순환동선, 송고미					
연속적조소							
		장소적 확산		●		높이 30m 쉼기는 파노라믹 테라스와 10,500개의 군사 생활 작품을 소장.	
전 이 적 메 모 리 일	구 분	해체	전이	진화		오랜 역사를 통해 박물관은 2011년 새로운 내부 및 외부 개념으로 다시 열었다. 이 박물관은 전쟁의 인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독일 군사 기술의 진화를 보여준다.	
				●			
	건 축 요 소	조형성 실험성		●		건물외관에 투명한 화살촉을 추가, 외부 눈에 띄는 혁신적 표현을 창출.	
		Organization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성을 대표하는 새로운 외관의 개방성과 투명성은 기존 건물의 강성과 대조적이다.
	공 간 요 소	시각적 메모리		●			
		중첩, 회전, 복합					
가상, 추상 통합							
		비대칭, 탈구조		●		박물관은 쉼기부분의 내부공간은 외형과 마찬가지로 내부에 비대칭구조를 이룬다.	
기 호 학 적 메 모 리 일	구 분	다층	재 결합	다원 기호		실버 화살촉은 전통적인 네오 클래식 건물의 중심에서 돌출되어 있으며 진화하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높이가 90m인 5층 건물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드레스덴의 화재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지역을 가리키는 동안 현대 드레스덴의 전망을 제공한다.	
			●	●			
	건 축 요 소	위계탈피		●		전쟁의 고통과 현실을 전달하는 신관의 확장과 날카로운 모서리의 각도는 위계를 탈피했다.	
		형태적 불연속					전쟁은 인간 구성 요소, 희망, 두려움, 열정, 용기, 기억 및 관련자들의 열망에 집중하여 표현했다.
	공 간 요 소	상징성적 다원성		●			
		복잡성, 다중성					
분절과 재결합							
		프랙탈 구조		●		군사 기술, 권총, 유니폼 및 휘장, 주문, 미술, 이미지 보관소, 기록 및 도서관의 역사를 공간에서 프랙탈 구조를 보인다.	
특 징		이 건축물은 폭력과 군대의 역사와 도시의 운명과 기억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관한 가장 깊은 쟁점에 대중을 참여시킨다. 쉼기 내부는 99피트의 전망 플랫폼이 도시의 숨 막히는 전망을 제공하며 쉼기 자체는 반대 방향으로, 폭탄의 근원을 향하여 반사를 위한 극적인 공간을 만들며, 내부의 전시는 건물의 원래의 기둥이 있는 부분에서, 독일의 군대 역사는 연대순으로 제시한다. 새로운 개방성과 투명성은 기존 건물의 불투명도 및 강성과 대조가 되며, 권위주의적 과거의 심각성을 재구성하여 민주 사회의 개방성을 반영하고 이러한 관점들 간의 상호 작용은 새로운 군사 역사박물관의 다층적 기억을 형성한다.					

4.3.3 흑인역사박물관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그림 4-16>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전경

미국 흑인 역사 문화 박물관(NMAAHC)은 프리론 그룹과 데이비드 아디아에 건축가, 데이비스 브로디 본드(Freelon Group, Adjaye Associates, Davis Brody Bond)가 공동으로 설계하였으며,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 있다. 시각 예술 및 공연 예술, 종교, 시민권, 노예 제도 및 인종 차별과 관련된 주제와 37,000개 자료로, 박물관에는 12개의 전시회, 17개의 스테이션과 13개의 대화형 작업 공간, 5개 층에 183개의 비디오가 있는 전시공간이 약 85,000m² 이른다. 1915년까지 흑인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연방 소유의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초기 노력은 1988년에 입법부가 진전되어 2006년에서야 사이트가 선정되었고, 2016년 9월 24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기념식에서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1) 주변성 및 배치개념

워싱턴 D.C 내셔널 몰 부지에 위치한 박물관은 좌측 워싱턴 기념비와 우측 자연사박물관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아프리카계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에 미국인 기여에 대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징이다.



<그림 4-17> 워싱턴 D.C 내셔널 몰안의 조감도 및 모형도

박물관 뒤편의 주택 갤러리, 관리 공간, 극장 공간과 컬렉션 저장 공간 등, 미국의 오랜 아프리카 유산으로 독특한 사이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장소적 의미에서 강력한 개념적 공명의 관계를 만들었다.

심사 위원 데이비드로 웬 말에 의하면, “데이비드 Adjaye의 스미소니언 국립 박물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및 문화, 워싱턴 DC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으며, 이것이 미국의 수도 중심부에서 눈에 띄는 하나의 의미 상징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반대를 이겨 마지막으로 공동 작업을 실행하였다. 2016년 9월 버락 오바마에 의해 열린 건물은 강력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민족의 대화를 가능 하게 하고 지배적인 정치적 토론에 도전할 수 있는 위력을 보였다.”라고 하였을 정도로 정치적 의견에 부딪혀 오랜 시간 뒤 세워진 건축물이다.

2) 공간구성 및 전시설계

건물 내부공간에는 방문자에게 역사체험 및 감성적인 여행으로 안내하며, 자연 채광의 극적인 주입으로 인상에 깊이 남는다. 남쪽 입구는 포치(Porch)와 중앙 수역으로 구성, 건물을 풍경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하였다. 내부 유리 로 된 다양한 재료 팔레트가 시각적 메모리를 이루며, 건물 내부에는 광대한 기둥이 없는 공간, 나선형 계단의 배치가 탈구조를 이루고 있다.

3) 조형성

313,000m²에 건물 청동판에 적용하는 3계층 구조로, 그들 뒤에 유리 외관을 설계, 선조 클래딩(cladding) 아프리카계 미국인 장인의 역사를 참조한 패턴이 새겨져 있다. 기록이 있는 지붕의 박물관, 건물의 공용 면을 지상에 놓고 해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중 워싱턴 기념비의 요소를 기반으로, 관석의 17도 각도와 접하게 일치시켰다.

4)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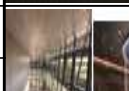
흑인역사박물관은 전이적 메모리얼에서 시각적 메모리가 뛰어나다. 전시실, 행정 공간, 극장 공간 및 수납공간을 갖춘 국립 헌법 박물관 및 워싱턴 기념관과 헌법 거리에 인접한 독특한 사이트와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큰 과제였으며, 건축이 세워지기 전까지 국회에서 많은 분쟁과 헌법과 정치인들의 마찰이 끊임없이 일었던 건축물로써 미국의 깊고 오래된 아프리카 유산과의 강력한 개념적 공명을 잘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며 건물을 풍경으로 확장시키는 방법과 전시를 통한 기억의 전이가 잘 이루어진 곳이다.

갤러리와 컬렉션, 극장, 박물관은 미국의 아프리카 역사에 대한 강한 연대를 유지하고, 청동에 새겨진 선조의 문양을 통해 현시대에 뿌리를 내리며, 워싱턴 기념비와 미국 역사박물관과 함께 강력한 존재감으로 흑인역사의 다층적 존재감을 보여준다. 역사만큼이나 인물과 사건의 표현 전시가 복합적이고 다중성을 보인다.

흑인역사박물관은 기념비적 입면과 사원 같은 인상적인 건축물이며, 42만 m²의 실내 공간 절반은 워싱턴의 높이 규정의 결과로 지하에 묻혔지만, 흑인 문화와 정부 특권사이의 관계에 대한 신중한 전략으로, 역사의 상징성과 진보를 후세에 전달하게 된다.



<표 4-7> 흑인역사박물관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분석표

1	작품명			흑인역사박물관		
개요	개관/위치		 2016년/National Mall/Washington, DC, United States 흑인역사문화박물관은 국립자연사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 등 박물관들이 집한 내셔널 몰 안에 있으며 워싱턴의 상징인 워싱턴기념탑 인근 2만㎡에 부지에, 건물면적 3만7000㎡ 규모로 건립됐다. 외관은 3단 피를 두른 형태로, 아프리카 원주민이 쓰는 왕관을 연상, 구릿빛 띠는 3,600개의 알루미늄 패널로 제작됐다.			
	작가/유형					
	프리 룬					
	아제예오 본드 Freelon Adjaye Bond / SmithGroup					
다층적 기억의메타포 요소			작품 이미지 및 분석 내용			
기념적메모리	구분	희상	기념	추모		국립 기념 협회 (National Memorial Association) 설립과 흑인 전쟁 참전 용사들의 기념비 캠페인이 시작된 지 약 1세기가 지난 9월 24일에 국립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문화 박물관이 개장 하였다.
			●			
	건축요소	모뉴먼트		●		미국의 깊고 오래 된 아프리카 유산과 맥락적 사이트의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념비				
	공간요소	유적지재구성				지하 공간 분위기는 명상적이고 기념비적 되어 있으며, 12개의 전시회, 17개의 스테이션과 13개의 서로 다른 대화형 작업 공간 등 순환동선을 가짐. 물의 계단은 확산 되는 빛을 가져오는 기념공간으로 'oculus' 내부로 이어지는 연속적 조소미를 가져다준다.
		순환동선,송고미		●		
		연속적조소		●		
장소적 확산		●			남쪽 입구는 포치(Porch)와 중앙 수역으로 구성, 건물을 풍경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하였다.	
전이적메모리	구분	해체	전이	진화		NMAAHC는 기념비적 입면과 사원 같은 인상적인 건축물이며, 42만㎡의 실내 공간 절반은 워싱턴의 높이 규정의 결과로 지하에 묻혔다. 흑인문화와 정부 특권사이의 관계에 대한 신중한 전략으로 오랜 세월 걸렸지만, 흑인 역사의 진보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	●		
	건축요소	조형성 실험성		●		3,600개의 알루미늄 패널이 빛의 반사로 건축의 볼륨감을 돋보이게 하였으며, 외부의 시야까지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Organization				
	공간요소	시각적 메모리		●		자연 채광의 극적인 주입, 내부 유리로 된 다양한 재료 팔레트가 시각적 메모리를 이룬다.
		중첩, 회전, 복합				
		기상, 추상 통합				
비대칭, 탈구조		●			건물 내부에는 광대한 기둥이 없는 공간, 나선형 계단의 배치가 탈구조를 이룬다.	
기호학적메모리	구분	다층	재결합	다원기호		갤러리와 컬렉션, 극장, 박물관은 미국의 아프리카 역사에 대한 강한 연대를 유지하고 청동 선조 봉투를 통해 뿌리를 내리며, 워싱턴 기념비와 미국 역사박물관과 함께 조경에 미묘한 존재감으로 흑인 역사의 다층적 존재감을 보여준다.
		●				
	건축요소	위계탈피		●		기복이 있는 지붕의 박물관, 건물의 공용 면을 지상에 놓고 해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형태적 불연속				
	공간요소	상징성적 다원성		●		워싱턴 기념비의 요소를 기반으로, 관석의 17도 각도와 접하게 일치.
		복잡성, 다중성		●		
		분절과 재결합		●		
프렉탈 구조					내부공간의 디자인과 공간의 연결은 전반적인 trifecta에 뿌리를 둔다.	
특징	NMAAHC의 전시실, 행정 공간, 극장 공간 및 수납공간을 갖춘 국립 헌법 박물관 및 워싱턴 기념관과 헌법 거리에 인접한 독특한 사이트와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큰 과제였으며, 건축이 세워지기 전까지 국회에서 많은 분쟁과 헌법과 정치인들의 마찰이 끊임없이 일었던 건축물로서 미국의 깊고 오래된 아프리카 유산과의 강력한 개념적 공명을 잘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건물을 풍경으로 확장시키는 방법과 전시를 통한 기억의 전이가 잘 이루어진 곳이다.					

4.3.4 제주4.3평화 기념관 (JEJU 4.3 Peace Park)



<그림 4-18> 제주4.3평화 기념관 전경

4.3특별법이 시행되자 국가의 지원 아래 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이 조성되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위령·추모의 장임과 동시에 평화·인권·교육의 장으로서 후세대에 역사적 교훈을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공원에는 기념관뿐만 아니라 4.3희생자 1만 3,900여개의 위패를 모신 위령제단과 위령탑, 행방불명인 표석 등이 있다. 제주4.3평화 기념관은 2008년 3월 28일 개관하였고,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주4.3사건에 관한 자료를 수집·전시함으로써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교육의 장소’이자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교훈을 주는 교육의 장이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건축가는 이상림으로 2008년 3월 28일 준공되었으며, 대지면적 220,394m², 건축면적 6432.66m², 연면적 11619.5m²으로 지상3층과 지하2층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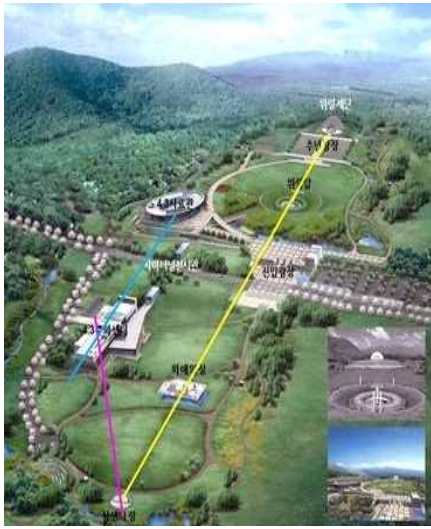
1) 주변성 및 배치개념



<그림 4-19> 제주4.3평화 기념관 배치도

제주도에 자리한 제주4.3평화공원은 기념관과 4.3희생자 1만 3,900여개의 위패를 모신 위령제단과 위령탑, 위패봉안관, 행방불명인 표석 위령자 비원 등 당시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기억하는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위령제단은 연중 4.3 희생자에 대해 참배를 진행하는 곳이며, 그들을 모시고 있는 위패봉안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봉안관은 4.3 유해발굴사업시기에 발굴된 396기의 유해 봉안이 있는데, 각 비원에는 희생자의 성명과 성별, 당시 연령 등을 기록해 두었다.

당시 이상림 건축가의 말에 의하면 “위령 공간 조성만큼이나 대지의 연결 방법이 중요한 주안점이기도 하다. 인위적으로 나뉜 두 대지는 과거, 위령, 추념 등을 나타내는 상부 대지와 미래, 평화, 상생 등을 나타내는 하부 대지



<그림 4-20> 제주4.3평화 기념관 배치축

로 개념화 시키고, 지하 테마 전시관을 통해 과거에서 미래로의 전환이라는 시간의 연속성과 함께 동선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장치로 활용했다.”라고 하였는데 다시 설명하자면, ‘위령제단-추념광장-위령탑-진입광장-화해의 장-상생의 장’을 잇는 ‘상징축’과 ‘4.3사료관-지하 터널전시관-4.3문화센터’를 잇는 ‘문화축’을 설정했다. 마지막 축은 ‘4.3문화센터와 상배치도 상생의 장’을 연결하는 ‘미래축이다.

이러한 추념과 기념의 관계에서 축으로 나누고 곧게 뻗은 선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축이 끝에 가리킴의 대상은 놓여 진다.

2) 공간구성 및 전시설계

제주4.3평화 기념관 지하1층에 마련된 상설전시실은 4.3사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모두 6관의 전시관이 있다.



<그림 4-21> 제1관에서 제6관의 공간사진

제1관 역사의 동굴에서는 주민들의 피신처로 활용되었다는 천연동굴을 주제로 한 역사관이 구성되어 있다.

제2관 흔들리는 섬에서는 사건의 계기가 되는 3.1절 발포사건을 전쟁, 해방, 자치, 미군정, 3.1발포사건, 탄압의 흐름을 통해 보여 준다.

제3관 바람 타는 섬에는 무장봉기와 분단 거부라는 주제로 1948년 4월 3일 무장시위의 발생과정과 배경을 묘사하여 보여 준다.

제4관 불타는 섬에서는 ‘초토화와 학살’이라는 테마로 당시 비참했던 제주의 모습과 민간인 대량학살 등의 내용을 보여 준다. 이때 희생자의 80퍼센트 이상의 희생되었을 정도로 제주 4.3사건은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다. 전시를 통해 직접 보는 경험은 그들의 희생이 더 실감 나게 다가온다.

5관 흐르는 섬 제주 4.3사건의 상처와 아픔의 스토리로 회복과정을 보여주는 곳으로 역사적 자료들이 있으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투쟁과 4.3사건의 진상 규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전시공간인 6관에서는 재조명을 통해 제주 4.3사건의 진정한 평화와 인권이 무엇인지 진한 여운을 남기게 해준다.

그리고 다랑쉬 특별전시관은 당시 민간인이 질식사한 동굴 현장을 발굴 당시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 한 번 더 위태로웠던 피난 생활과 처절했던 학살 상황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3) 조형성

2008년 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4.3평화 기념관은 4.3을 담는 그릇의 형상인 것인데, 이는 한라산과 산방산에 얽힌 제주의 근원 설화를 형상화하여 화해와 상생을 이루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추모의 공간,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는 공간, 역사교육 및 교훈의 공간 그리고 제주의 향토성을



바탕으로 한국현대사의 전문역사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써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산방산이 솔리드(Solid)한 형태와 한라산 백록담 주변의 보이드(Void)한 형태 등 제주의 독특한 형상에서 디자인을 추출하고 역사적인 공원의 특성상 기념비적 디자인 요소의 도입을 고려하여 제주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특성을 찾고, 비 제주적인 것에서 가장 제주적인 특성을 찾았다.”⁴⁵⁾

4)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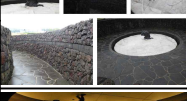
상징축의 장소는 ‘진입광장’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가면 ‘추념’과 ‘위령’이 있다. 동쪽으로 가면 ‘화해’와 ‘상생’을 표현한다. 축의 서쪽 끝에 있는 위령제단은 오석의 아치탑으로 영원성을 상징한다. 4.3의 정신성을 드러내는 작은 돌은 조국, 상생, 평화의 공간을 의미하는 태극으로, 생명력을 담은 아치 그리고 추모의 공간과 승화의 공간은 제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제주4.3 평화 기념관과 평화공원은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상징성적 다원성의 요소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추진 사업계획에서 4.3평화교육센터, 4.3고난극본전시관, 연못수질개선, 평화의 종 제작 등의 사업이 2014년 8월 착공하여 2017년 4월 4.3평화의 숲과 제주4.3 어린이 체험관 개관이 이어져, 전이적 메모리얼의 진화의 과정과 Organization에 놓여 있다.

45) 월간 플러스 2008.05 기재문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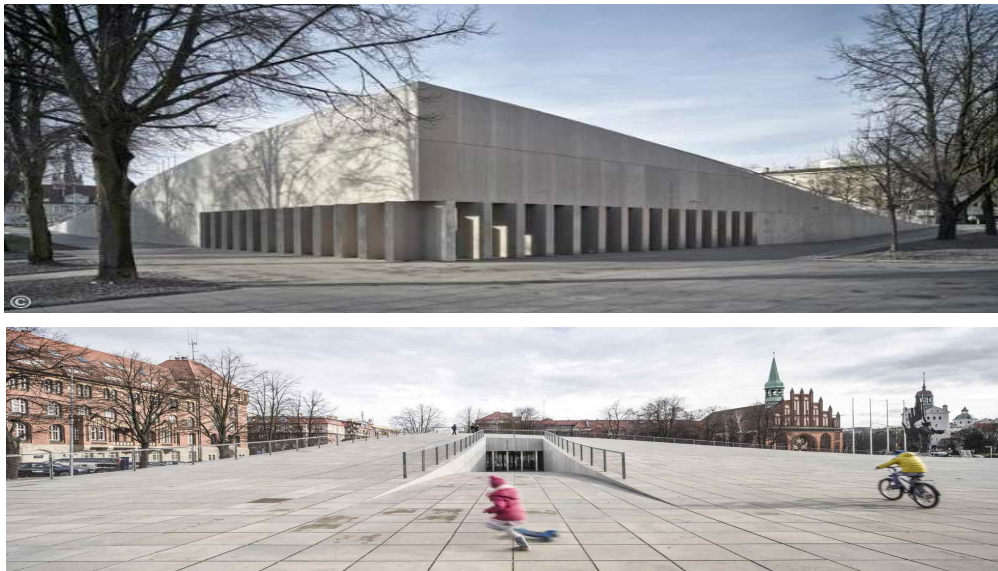


<표 4-8> 제주4.3평화 기념관 (JEJU 4.3 Peace Park) 분석표

1		작품명		제주 4.3 평화 기념관		
개요	개관/위치			2008년 / 제주 제주시 봉개동 산 51-3 외 2필지		
	작가/유형			4·3 평화 기념관의 다량위 동굴학살 재현한 평화공원에 조성되었으며, 제주 4·3 평화공원은 4·3 사건의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조성되었다.		
	이 상 립					
다층적 기억의메타포 요소			작품 이미지 및 분석 내용			
기념적메모리얼	구분	회상	기념	추모		4.3특별법이 시행되자 국가의 지원 아래 4.3평화공원과 4.3평화 기념관이 조성되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위령·추모의 장이다.
			●	●		
	건축요소	모뉴먼트		●		평화·인권·교육의 장으로서 후세대에 역사적 교훈을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념과 추모의 장으로 나타난다.
		기념비				
		유적지재구성				
	공간요소	순환동선,송고미		●		지하1층에 마련된 상설전시실은 4.3사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역사의 흐름에 따라 모두 6관의 전시관이 순환동선을 가짐.
연속적조소						
	장소적 확산		●		'상징축'과 '4.3 지하터널전시관', '4.3문화센터'를 이어주는 '문화축'을 성정했다. '4.3문화센터와 상생의 장'을 연결하는 '미래축'은 계속해서 장소적 확산이 이루고 있다.	
전이적메모리얼	구분	해체	전이	진화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추모의 공간,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는 공간, 역사교육 및 교훈의 공간 그리고 제주의 향토 성을 바탕으로 한 한국현대사의 전문역사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써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		
	건축요소	조형성 실험성		●		산방산에 얹힌 제주의 근원 설화로 4.3을 담는 그릇의 형상으로 화해와 상생을 조형화 하였다.
		Organization		●		
		시각적 메모리		●		
	공간요소	중첩, 회전, 복합		●		2017년 4월 4.3평화의 숲과 제주4.3 어린이 체험관 개관이 이어져, 지속적인 장소적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 추상 통합						
비대칭, 탈구조						
기호학적메모리얼	구분	다층	재결합	다원기호		상징축인 진입광장으로 들어와 서쪽으로 가면 '추념'과 '위령'이고 동쪽으로 가면 '화해'와 '상생'이다. 축의 서쪽 끝에 있는 위령제단은 영원성을 상징하는 아치탑, 4.3의 정신성을 드러내는 작은 돌, 조국, 상생, 평화의 공간을 의미하는 태극, 생명력을 담은 바닥의 그림자 아치 그리고 추모, 승화의 공간인 제단이 있다
		●		●		
	건축요소	위계탈피		●		위태로웠던 피난생활과 처절했던 학살 상황을 재현한 표현장소들은 극적인 체험적 장소로 인해 위계탈피를 보인다.
		형태적 불연속				
		상징성적 다원성		●		
	공간요소	복잡성, 다중성		●		기념비와 조형물들이 각각의 상징성으로 공간형성을 이루고 있다.
분절과 재결합						
프레탈 구조						
특징	전이적 메모리얼의 기념적 공간으로써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위령·추모의 장임과 동시에 평화·인권·교육의 장으로서 후세대에 역사적 교훈을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 되었다.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에서 4.3평화교육센터, 4.3고난극본전시관, 4.3평화의 숲과 제주 4.3 어린이 체험관 개관이 이어져, 전이적 메모리얼의 진화의 과정과 Organization에 놓여 있다. 상징과 의미하는 바는 '영원성', '4.3의 정신성', '조국, 상생, 평화의 공간', '생명력', '추모·승화의 공간'이다. 이렇듯 제주4.3평화 기념관과 평화공원은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상징성적 다원성의 요소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4.4 기호학적 메모리얼 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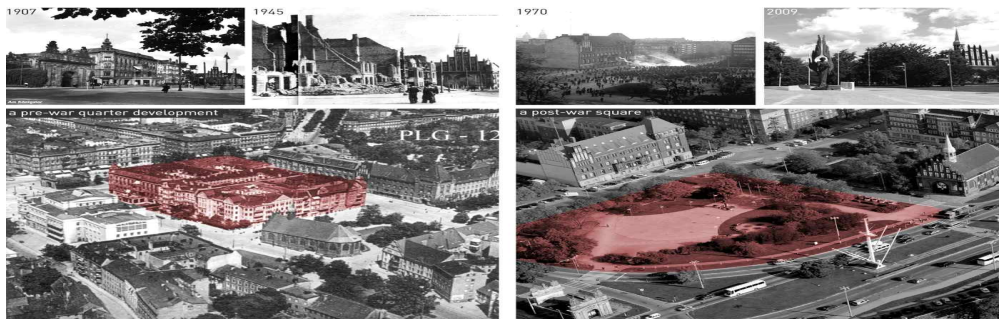
4.4.1 슈체친 국립 박물관 분관 (National Museum in Szczecin Dialogue Centre Przelomy)



<그림 4-22> National Museum in Szczecin Dialogue Centre Przelomy의 전면과 후면

폴란드에 위치해있는 슈체친 국립 박물관은 연면적 9,577m², 대지면적 2,117m², 지상 오픈스페이스, 지하 1층의 규모이며, 2016년에 개관하였다.

1945년까지 이 도시는 독일의 국경 내에 있었고, 그 후 갑자기 폴란드에 통합되었다. 인구의 즉각적인 교환은 사회 구조를 해체 시켰으며, 도시의 정체성을 왜곡시켰다. 전쟁 이전에, 현재의 솔리다르 노시스 스퀘어 (Solidarności Square)는 도시의 쇼케이스 였고, 북부의 콘체르트 하우스 (Konzert-haus)에 둘러싸인 4분의 1의 대표적인 집회소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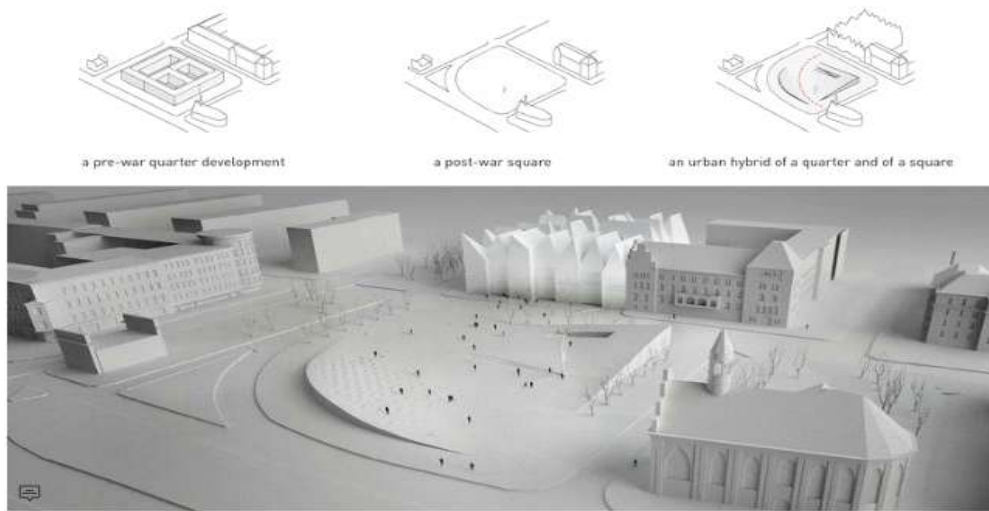
<그림 4-23> National Museum in Szczecin Dialogue Centre Przelomy의 장소 형성과정

연합군의 폭격 공습 중에는 4분의 1과 그 주변이 사라지고 도시 조직에 틈이 생겼다. 도시의 일부분은 교통로를 통과했으며, 이 준 정사각형은 1970년에 잔인하게 진압된 노동자 항의를 위한 경기장이 되었고, 16명의 시위대가 사망했다. 그 순간부터 이곳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도시와 도시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도심에 의미 깊은 격차를 남긴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중의 파괴, 전후의 개발이라는 세 시대에 박물관일 뿐 아니라 지형의 한 부분으로 자리한다. 지하에서 이 도시의 고고학과 기억을 탐험하게 하는 반면 지상에서는 기복이 있는 지붕을 비롯한 건물의 외형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사용된다.

1) 주변성 및 배치개념

수년간 솔리다르 노시시 광장(Solidarności Square)은 모호한 경계, 개방된 정면, 번거로운 바쁜 거리의 이웃, 그리고 지배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기능이 부재한 1970년 12월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이 붙은 광장이다. 건물은 전후 도시 지역과 전후 광장의 두 모순된 전통으로 다원적 차원의 공간이다.



<그림 4-24> National Museum in Szczecin Dialogue Centre Przelomy의 배치도

다층적 기억의 공개된 공공 공간의 가치를 지키면서, 필하모닉 홀과 교회 앞에서는 전경을 해치지 않았다. 이 공간의 정사각형은 부드러운 융기이미지에 의해 반대 모서리의 건축선이 표시된다. 이는 과거를 낙관적이고 시적이며, 상상력 있는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원적 기억의 공간이다.

2) 공간구성 및 전시설계

건축술은 지형학을 따른다. 따라서 박물관의 형태는 직사각형 타일로 덮여 있는 콘크리트 바닥의 연속이다. 바닥면은 입방 블록이 되며, 박물관 전체가 변형되면서 단일체를 만든다. 수직 플레이트 중 일부가 회전하기 때문에 입구가 두 개인 아케이드가 만들어 진다. 세 번째 입구는 사각의 곡률로 조각된 램프로, 1층은 광장의 확장이며 입구 홀로 기능하다.

전시공간은 지하에 숨겨져 있다. 지하 구조물을 감추어 배경 건축을 만드는 아이디어로 전람 자가 계단을 내려가면 세계 대전 이후 슈체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암흑으로 잠수하게 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전시회와 동시에 박물관의 개관 전부터 이 장소를 위해 창작한 예술작품의 명화가 담긴 나레이션이 들리는데, 검정색은 무한한 공간의 인상을 주면서 제시된 물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3) 조형성

이 건축은 부분적으로 지하이며 연대성 광장 바로 중앙에 있다. 최근의 슈체친 (Szczecin) 역사에 관한 상설전시실뿐만 아니라 임시 전시, 회의, 논쟁, 교육 워크숍 및 기념행사의 장소로 특히 적합한 공간이 있는 2개의 지하층을 가지고 있다. 박물관의 지붕은 새로운 광장의 바닥을 구성하는 부드럽게 경사진 측면을 가지고 있고, 내장 된 물체는 광장의 북동쪽 구석에서만 나타난다. 두 개의 거리 사이의 교차로에서 박물관의 출구문이 있는 곳은 전통적인 도시 외관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두 개의 경사진 가장자리는 대각선으로 반대편 지점에서 부드럽게 모여 정사각형의 중심 근처에서 만나게 되며, 광장의 그라디언트에 비스듬히 설정된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경사도가 중앙 뒀에 위치 하고 있어, 박물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자인의 모놀리식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건물은 하나의 재료 콘크리트로 만들었으며, 콘크리트 바닥의 구분은 높이와 회전하는 벽의 구분과 일치한다. 고도의 순수한 특성 및 주로 사각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인해 모든 설치가 완전히 숨겨지도록 설계되었다.



4)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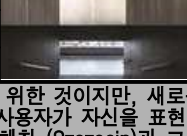
광장은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결과로 거주자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연결되었으며, 열린 광장은 사용자가 자신을 표현하도록 장려하였다. 슈체친 국립박물관의 분관인 Przełomy센터는 기념적 메모리얼의 기념성을 부가하지만 인공 언덕으로 창의적이고 희망적 공간의 지표에서 좋은 사례이다. 이 인공 언덕은 도시의 새로운 전망을 발견하고 도보로 걸으며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기울어진 바닥은 다양한 활동의 시작으로, 오늘날 이 도시 공간은 서로 다른 연령대와 사회적 그룹이 우호적으로 공존 할 수 있는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상징의 다원적 공간이 되었다.

역사의 다층적 장소의 해체로 인해 수년간 광장은 모호한 경계, 개방된 정면, 1970년 12월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이 붙은 광장이었지만, 2005년에 기념물과 함께 21세기 2014년 새로운 필하모닉 공연장과 함께 ‘Przełomy’는 새로운 도시의 아이콘으로 진화하였다.

이 새로운 문화 활동의 다원적 광장은 제 2차 세계 대전 후 슈체친(Szczecin)과 그 역사의 모든 지역을 제거한 공식적으로 부과된 망각을 종식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었고, 기억과 역사의 해체가 지워지고 다시 현재를 조화시키는 진화의 길에 놓인 것이다. 이제는 외상적 추억과 부당한 망각에 시달리는 이 도시는 그 정체성의 기초를 다원적 상징성으로 재건하게 되었다.



<표 4-9> 슈체친 국립박물관 분관 (National Museum in Szczecin Dialogue Centre Przelomy)

1	작품명			슈체친 국립 박물관 분관		
개요	개관/위치			2016년 / Szczecin, Poland		
	작가/유형			베를린의 세계 건축 축제 (WAF)가 끝남에 따라 2016년 세계 건축 물에 선정, 공공 광장 아래 지하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후 2차 대전, 전시 파괴, 개발 등으로 인해 한가운데에 격차를 남긴 사이트로 정사각형은 1970년에 잔인하게 진압된 노동자 항의를 위한 경기장과 16명의 시위대가 사망했던 장소이다.		
	KWK Promes					
다층적 기억의메타포 요소				작품 이미지 및 분석 내용		
기념적메모리얼	구분	희상	기념	추모		슈체친은 폴란드에서 가장 큰 역사적 폭력의 희생자 중 하나, 1945년까지 도시는 독일의 국경 내에 있었고 그 후 폴란드에 통합되었다. 이후 인구의 교란은 사회 구조를 해체시켰고 도시의 정체성을 왜곡시켰지만 새로운 해석으로 탄생하여 문화적 기념 장소에서 희망의 장소로 되었다.
	건축요소	모뉴먼트				박물관뿐만 아니라 지형의 조각으로 도시의 기억과 연결,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상징적 장소이다.
		기념비				
	공간요소	유적지재구성		●		개방형 공공 공간을 유지하면서 4분의1로 둘러싸고 입면의 구조물이 연속적 배열을 이룬다.
		순환동선,송고미				
연속적조소		●	광장의 평평한 부분은 필하모닉과 교회 앞 전경을 만들고, 인공 언덕 및 박물관으로 확산하였다.			
장소적 확산		●				
전이적메모리얼	구분	해체	전이	진화		수년간 Solidarność 광장은 모호한 경계, 개방 된 정면, 1970년 12월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이 붙은 광장이었지만, 2005년에 기념물과 함께 21세기 2014 년 새로운 필하모닉 공연장과 함께 'Przełomy'는 새로운 도시의 아이콘이 되었다.
	건축요소	조형성 실험성				1층은 광장의 확장이며, 도시선와의 연결 확장선, 경계 없는 모호함이 미래의 확장성이다.
		Organization		●		
	공간요소	시각적 메모리		●		전시공간은 지하에 숨겨져 있어, 세계대전 이후 슈체친 배경인 암흑에 빠져들게 된다.
		중첩, 회전,복합				
가상,추상 통합		●				
기호학적메모리얼	구분	다층	재결합	다원기호		광장의 자유 항쟁부터 지하 박물관의 예술 작품 명화와 함께 내레이션을 추가한 전시가 다층적 기억의 연출로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며, 지하의 입구 검색은 무한한 공간의 효과와 전시 물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전시회를 위한 새로운 연출은 역사박물관을 미술 박물관으로 만든다.
	건축요소	위계탈피		●		기복이 있는 지붕의 박물관, 건물의 공용 면을 자상에 놓고 해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형태적 불연속				
	공간요소	상징성적 다원성		●		바닥 모사리 블록은 3차원을 연상, 박물관 지하계단의 분절 후 아케이드 재결합.
		복잡성,다중성				
분절과 재결합		●				
프랙탈 구조						
	특징					
광장은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결과로 거주자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연결되었으며, 열린 광장은 사용자가 자신을 표현하도록 장려하였다. 이 새로운 문화 활동의 다원적 광장은 제 2차 세계 대전 후 슈체친 (Szczecin)과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을 제거한 공식적으로 부과된 망각을 종식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었고, 기억과 역사의 해체가 지워지고 다시 현재를 조화시키는 진화의 길에 놓인 것이다. 마당은 상징적인 차원을 유지하고 박물관은 그 자리의 역사를 지키며, 오늘날 이 도시 공간은 서로 다른 연령대와 사회적 그룹이 우호적으로 공존 할 수 있는 다원적 공간이 되었다.						

4.4.2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 (Museum Of The Second World War)



<그림 4-25> Museum Of The Second World War 조감도

폴란드 그단스크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부지는 2.5에이커의 영역을 덮개하고 건물 자체는 약 23,000m²을 놓여 있다. 박물관은 과거의 전시,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상징하는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과거는 건물의 지하에 숨겨져 있으며, 현재는 건물 주변의 열린 공간에 나타나며, 미래는 그 돌출부에 의해 표현 되었다. 즉, 과거는 미래의 창조, 탑 꼭대기에 탑승한 사람들은 희망과 자유를 보고, 그단스크의 오랜 역사 위에 희망의 도시를 보면서 만들어 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소련군과의 뒤이은 전투 끝에 1945년 들어 시가지와 항만시설이 모두 파괴되고, 소련군은 도시를 점령, 종전 후 단치히는 폴란드령으로 귀속되어 종래의 독일인 주민은 모두 추방되었으며, 파괴된 시가지, 항만시설, 공장 등은 전후 복구 되었다. 전쟁 후 폴란드역사와 현 도시인을 잇는 기념적 건축이다.

1) 주변성 및 배치개념

2017년 제2차 세계 대전 박물관은 도시의 중심부 근처에 있는 Władysław Bartoszewski Square에서 지어졌다. 그단스크(Gdańsk)의 유서 깊은 폴란드 우체국에서 200미터, 웨스터 플레 츠 반도(Westerplatte Peninsula)에서 3 킬로미터 떨어진 1939년 9월에 공격받은 기념 공간이기도 한 상징적 장소이다.

서쪽으로는 라두니아(Radunia) 운하에 닿아 있으며, 남쪽은 모트와 강(Motława River)의 넓은 파노라마를 향해 펼쳐져 있다. 올드 그단스크(Old Gdańsk)의 외곽 지역, 곧 조선소를 대신 할 현대 도시의 핵심 부분이며, ‘그단스크의 새로운 상징’, ‘새로운 아이콘’ 및 ‘조각 디자인’으로 묘사된다.

2) 공간구성 및 전시설계

건축 개념은 전쟁의 모든 악이 땅 아래에 숨겨져 있고 희망의 ‘빛’이 광장을 따라 달리는 균열을 통해 도달한다고 가정한다. 주요 전시회의 배치 전체 개념의 구성 축을 형성하는 균열이다. 건물의 내부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며, 이 지역의 전체 배치는 야외 이벤트가 개최되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광장으로 보완된다.

전시회는 제 2차 세계 대전을 강대국 정치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가장 현대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나라의 운명적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듯, 주요 전시공간과는 별도로 1,000m²의 공간이 임시 공연에 사용된다. 박물관의 사명은 교육, 문화 및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2,000개의 전시물이 3개의 내러티브 블록, 즉 ‘전쟁의 길’, ‘전쟁의 공포’, ‘전쟁의 긴 그림자’를 통해 전시되어 있다. 이 전시는 18개의 주제별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시실의 레이아웃에 반영 되었다.



전시회는 수많은 각도에서 전쟁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수많은 영화, 사진 및 우수한 영문 번역물이 있으며, 박물관에 기증되어 전쟁과 관련된 가족의 많은 소유물의 수집품도 있다. 실제로 제 2차 세계 대전의 개인적인 경험을 현실로 가져오게하는 간접체험으로 스토리의 전개가 잘 이루어진다.

3) 조형성

건물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3개의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건물의 가장 독특한 부분은 그단스크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도서관, 독서실과 회의실은 물론 카페와 레스토랑을 갖춘 유리 외관이 있는 40미터 높이의 경사가 있는 타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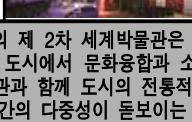
이 건물은 21세기 박물관과 함께 도시의 전통적인 도시 공간, 규모, 재료 및 색상을 하나로 묶어 놓았다. 저자인 Kwadrat 스튜디오는 그들의 프로젝트를 정적인 디자인 속에 강력한 감정과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색감과 조형으로 건축적 언어를 표현하였다.

4)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최근 현 메모리얼 뮤지엄의 제 2차 세계박물관은 기호학에서의 기억에 의한 기표의 공간디자인이 잘 표현되어 다각적 시선의 상징성을 현 도시에서 문화융합과 소통의 공간, 조화로운 공간의 가치공유를 잘 표현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다각적인 시각의 해석과 과거, 현재, 미래의 전시가 뛰어나며, 전이적 메모리얼의 조형성 실험성 요소와 가상, 추상의 통합 면에서 공간감이 돋보이며, 모뉴먼트의 상징성적 다원성이 현대적 재해석으로 뛰어난 점이 가장 대표할만한 사례이다.



<표 4-10>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 (MUSEUM OF THE SECOND WORLD WAR) 분석표

1	작품명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		
개요	개관/위치			2017년 / 폴란드 - 그단스크		
	작가/유형			박물관은 과거의 전시,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상징하는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과거는 건물의 지하에 숨겨져 있으며, 현재는 건물 주변의 열린 공간에 나타나며, 미래는 그 돌출부에 의해 표현되었다. 즉, 과거는 미래의 창조, 탑 꼭대기에 탑승한 사람들은 희망과 자유를 보고, 그단스크의 오랜 역사 위에 희망의 도시를 보면서 만들어 가고 있다.		
	STUDIO ARCHITEKTON ICZNE KWADRAT					
다층적 기억의메타포 요소			작품 이미지 및 분석 내용			
기념적메모리얼	구분	회상	기념	추모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소련군과의 뒤이은 전투 끝에 1945년 들어 시가지와 항만시설이 모두 파괴되고, 소련군은 도시를 점령, 종전 후 단치히는 폴란드령으로 귀속되어 종래의 독일인 주민은 모두 추방되었으며, 파괴된 시가지, 항만시설, 공장 등은 전후 복구 되었다. 전쟁 후 폴란드역사와 현 도시인을 잇는 기념적 건축이다.
			●			
	건축요소	모뉴먼트		●		박물관의 사명은 교육, 문화 및 연구의 중심지-인류의 중요성에 대한 주요 명소의 역할을 한다.
		기념비				
	공간요소	유적지재구성		●		독일의 단치히로 많이 알려진 장소, 세계대전을 거쳐 폴란드로 귀속되어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졌다.
		순환동선,송고미		●		
		연속적조소				
		장소적 확산				
전이적메모리얼	구분	해체	전이	진화		“그단스크의 새로운 상징”, “새로운 아이콘” 및 “조각 디자인”으로 묘사. 상승하는 역동적인 형태는 역사적인 도시와 미래에 대해, 파노라미적이고 화려한 장르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조선소 크레인과 교회 탑이 있는 그단스크의 상징적인 스카이라인을 이어가 도시적 진화를 이루어 간다.
				●		
	건축요소	조형성 실험성		●		21세기 박물관과 함께 도시의 전통적인 공간, 규모, 재료 및 색상을 하나로 표현하였다.
		Organization				
	공간요소	시각적 메모리		●		사다리꼴 정면 중 3개는 테라코타 레드 패널, 꼬인 지붕은 자연광이 쏟아지는 유리미감 하였다.
		중첩,회전,복합				
		가상,추상 통합		●		
		비대칭,탈구조				
기호학적메모리얼	구분	다층	재결합	다원기호		제 2차 세계박물관은 기호학에서의 다의적 기의에 의한 공간디자인이 잘 표현되어 다각적 시선의 상징성을 현 도시에서 소통과 문화융합, 조화로운 공간의 가치공유를 잘 표현한 다원적 기호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		
	건축요소	위계탈피				세 개의 큰 매스가 도시의 아이콘이 되며, 큰 볼륨의 형태와 각도가 상징적 조화를 이룬다.
		형태적 불연속		●		
	공간요소	상징성적 다원성		●		형태의 아이디어가 전쟁으로 인해 창조된 세계를 극적인 꺾임을 짚어 버리는 상징적 형태이다.
		복잡성,다중성				
		분절과 재결합		●		
		프렉탈 구조				
특징	최근 현 메모리얼 뮤지엄의 제 2차 세계박물관은 기호학에서의 기의에 의한 기표의 공간디자인이 잘 표현되어 다각적 시선의 상징성을 현 도시에서 문화융합과 소통의 공간, 조화로운 공간의 가치공유를 잘 표현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박물관과 함께 도시의 전통적인 도시 공간을 규모, 재료 및 색상을 하나로 묶어 표현한 부분이 조형성과 실험성 및 공간의 다중성이 돋보이는 건축물이다.					

4.4.3 티르피츠 박물관 (TIRPITZ MUSEUM)



<그림 4-26> TIRPITZ MUSEUM 조감도

티르피츠 박물관(TIRPITA MUSUM)의 위치는 Blåvand, 덴마크에 있으며, 대지면적 2,800m²으로 건축은 BIG(Bjarke Ingels Group)에 의해 설계되었다. 새로운 티르피츠(TIRPITZ)는 극적인 전쟁 역사에 대해 완만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래안의 성역이다.

‘보이지 않는 박물관’ 티르피츠는 역사적인 독일 제 2차 세계 대전의 병커를 획기적인 문화 복합 단지로 변형시키고 확장시켜, 하나의 구조 내에서 4개의 전시회를 진행하며 경관에 매끄럽게 매립되어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병커의 무거운 기밀 물체에 의해 세워진 새로운 티르피츠는 경관을 위장하고 새로운 박물관으로의 가벼움과 개방성을 불러 모아서 콘크리트 구조물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밤의 불빛이 성역의 시퀀스 기호로 희망을 연출한다.

1) 주변성 및 배치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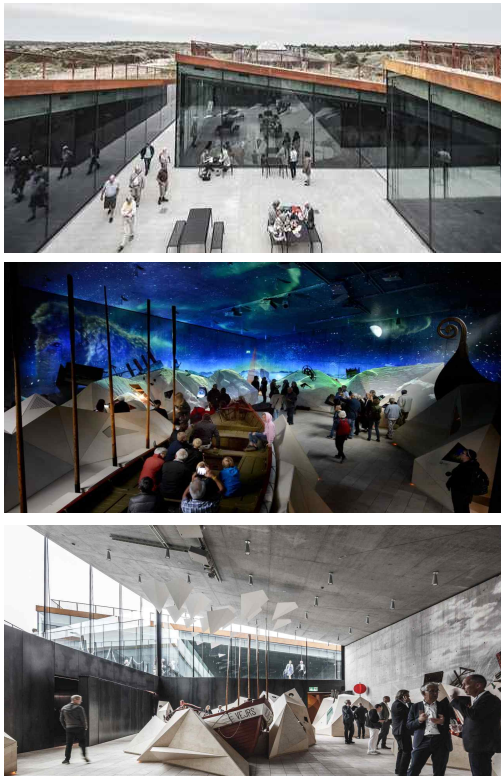


<그림 4-27> TIRPITZ MUSEUM 배치도

티르피츠 벙커(Tirpitz Bunker)는 1944년에 건설을 시작했으며 에스비어(Esbjerg)시 주변의 국방부의 일원으로 지어졌다. 독일군의 항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다. 전쟁 후에, 벙커는 버려지고 나중에 작은 박물관으로 바뀌게 되는데, 2012년에는 BIG(Bjarke Ingels Group)에 의해 새로운 박물관을 확장하고 완전히 재설계되었다.

2) 공간구성 및 전시설계

티르피츠 박물관 방문객들은 팻말이 줄지어있는 통로를 통해 접근 할때까지 벙커를 보게 되며, 모든 면에서 모래톱으로 자른 벽을 대면하게 되는데, 중앙 청산에서 만나기 위해 호기심을 품고 내려가게 된다. 뜯은 문자 그대로 모래에 새겨져 있더라도 햇빛이 풍부한 4개의 지하 갤러리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4개의 전시공간에서 3개는 영구 전시이다. 또한 포병 충을 유리로 재건하여 오래된 벙커와 포탑에 진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개의 전시공간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의 공간 ‘콘크리트의 군대’, 대서양 담벼락과 주변 지역의 개인 이야기에 대해 알려준다. 제2의 공간 ‘서해안 이야기’에서는 덴마크 서부 해안의 2만년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3의 공간 ‘바다의 금’에서는 덴마크에서 가장 큰 호박 컬렉션을 갖추고 있다. 제4의 공간은 ‘비상임 전시’ 공간으로 최초의 비 영구 전시 회로 광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영화 랜드 오브 마인(Land of Mine)의 소도구와 세트가 특징이다.

<그림 4-28> TIRPITZ MUSEUM 내부공간

그리고 네덜란드 기관 텅거 상상가들(Tinker Imagineers)이 디자인 한 전시는 인상적인 전쟁 기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구적이고 일시적인 테마 경험을 선보인다.

3) 조형성

티르피츠 박물관은 제 2차 대전 벙커와 정반대의 공간으로 탄생하였다. 나치 요새의 구체적인 공간과는 대조이며, 주위의 긴장감 속에 일렬로 늘어선 길은 모래사장을 내려오면서 모든 면이 하강하여 중앙 청사에서 만남을 가져와 교차로의 중심부로 일광과 공기를 끌어들인다. 벙커는 멀지 않은

어두운 문화유산의 유일한 랜드 마크로서, 가까운 검문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만남의 장소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시각적 메시지를 던진다.

티르피츠 박물관은 콘크리트, 강철, 유리 및 목재의 4가지 주요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기존 구조와 이 지역의 경관을 반영한다. 중앙 안마당은 4미터의 지하 갤러리 공간으로의 접근을 허용하며, 6미터 높이의 유리 패널은 공연장 내부에 햇빛이 안쪽까지 전해진다. 전시실의 벽은 현장에서 콘크리트 캐스트로 만들어 졌으며, 구조물의 거대한 지붕 데크를 지원한다. 이 지붕 데크 중 최대 크기는 약 1,090톤이고 캔틸레버는 36미터 바깥으로 내부에는 갤러리 전체에 분포된 주요 재료로 목재와 열간 압연 강이 있으며 모든 내벽에 적용하였다.

전시회는 네덜란드 기관의 텅커 상상가(Tinker Imagineers)들에 의해 디자인되었으며 영구 및 임시 쇼를 모두 전시한다. 모든 갤러리에는 자체의 미학과 주제가 있다. ‘콘크리트의 군대’는 히틀러의 ‘대서양 벽’ 프로젝트의 그늘에서 인간의 이야기를 전한다. ‘서해안의 금’은 황색의 매혹적인 호박 숲에 전시된 포괄적인 호박 전시회 이다. ‘서해안 이야기’는 10만년의 해안 역사를 묘사하고 야간 4차원 극장으로 바뀐다.

4)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덴마크 서부 해안의 오래된 역사를 담고 있는 티르피츠 뮤지엄은 지형의 트라우마 장소를 회상에 그대로 들어오게 하여 장소 자체가 하나의 상징공간으로 된 사례이다. 희망적이고 창의적 공간, 교육적 공간으로의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경관에 위장되고 절개된 지하의 보이지 않는 박물관으로 티르피츠 박물관의 나지막한 자태는 전쟁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티르피츠 박물관을 방문한다는 것은 유틸란드 반도의 공간과 시간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는 킵커 상상가(Tinker Imagineers)의 에릭 바흐(Erik B'r)의 말처럼, 티르피츠 박물관은 자연의 모호한 경계, 땅속의 벙커는 사실 조형성의 실험보다는 공간의 실험성 요소가 더 강한 사례이다. 이는 가상과 추상의 통합으로 계단의 입구에서 커다란 보이드 공간의 추상적 형태로써 과거 공간으로 유입되는 체험의 극이 새로운 창의적 공간으로의 전환에 하나의 상징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밤이 되면 4개의 공간에서 새어 나오는 빛은 마치 하나의 기호가 우주를 향해 신호를 보내는 느낌마저 든다. 벙커의 기념적 공간과 4개의 상징성적 다원성 공간의 결합으로 트라우마 장소가 상징적 장소로 바뀌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감동처럼 밀려드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진화 속으로 빠져드는 기호학적 메모리얼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례이다.



<표 4-11> 티르피츠 박물관 (TIRPITZ MUSEUM) 분석표

1	작품명			티르피츠 박물관		
개요	개관/위치			2017년 / Blåvand, 덴마크		
	작가/유형			덴마크 서해안 블란드(Blåvand) 지역 해변에는 거대하지만 무거운 콘크리트 병커가 우뚝 서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지은 병커로 덴마크의 바르데 박물관(Varde Museum), 건축 스튜디오 BIG(Bjarke Ingels Group), 디자인 스튜디오 Tinker imagineers는 합심하여 아픈 역사를 떠오르게 하는 곳을 5년 만에 2017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시켰다.		
	BIG (Bjarke Ingels Group)					
다층적 기억의메타포 요소				작품 이미지 및 분석 내용		
기 년 적 메 모 리 일	구 분	회상	기념	추모		역사 속 병커의 바로 뒤에 위치한 박물관은 마치 땅에서 솟아오른 낮은 언덕을 4등분 한 것처럼 보인다. '병커'라는 콘셉트에 맞게 숨어있으면서도, 자연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앞에 세워진 인위적인 콘크리트 병커와는 대조적이며, 과거의 기념적 장소이다
		●	●			
	건축 요 소	모뉴먼트				평소 병커 놓고 낮음, 더위와 추위, 밤과 낮, 시간의 흐름 스토리를 가지고 새로운 장소로 탄생하였다. 전쟁의 흔적,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병커 안을 경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기념비				
		유적지재구성				
공간 요 소	순환동선,승고미				2,800m² '보이지 않는 박물관' 단일 구조 내에서 네 개의 전시회를 포함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주변 자연과의 조화 기호적인 건축구조가 희망의 장소로 확산 되었다.	
	연속적조소					
	장소적 확산					
전 이 적 메 모 리 일	구 분	해체	전이	진화		언덕 속에 숨은 박물관 티르피츠는 덴마크 서쪽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결합한 공간이다. 티르피츠 박물관을 방문한다는 것은 유틀란드 반도의 공간과 시간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는 Tinker imagineers의 에릭 바흐(Erik Br)의 말처럼, 티르피츠 박물관은 자연과 역사를 건축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곳이다.
			●	●		
	건축 요 소	조형성 실현성				중정은 4개 지하 갤러리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갤러리들은 모래밭 속에 묻혀 있다. 매스와 매스의 공간에 빛과 개방감을 부여, 병커의 콘크리트 구조와 강한 대조를 이룬다.
		Organization				
		시각적 메모리				
공간 요 소	중첩,회전,복합				계단은 입구에서 커다란 보이드 공간의 추상적 형태로써 과거 공간으로 유입되는 체험을 한다.	
	가상,추상 통합					
	비대칭,탈구조					
기 호 화 적 메 모 리 일	구 분	다층	재 결합	다원 기호		제2차 세계대전 시대 독일군 병커를 재구성하고 확장한 혁신적 문화복합시설로 단일건물 내에 4개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스레 풍경의 일부가 된다. 현장에 도착한 관람객들은 가장 먼저 독일군 병커를 보게 되고, 아생 화들이 줄지어 피어 있는 접근로를 통해 이동하게 된다. 병커의 구조물이 현 건축의 위계탈피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4개의 전시실의 연결과 연결이 불연속적 이음으로 내부와 외부의 모호함을 가져준다. 서부 해안 기존의 콘크리트와 녹슨 철을 최대한 남겨두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하여 과거의 기억도 상징성을 내포하였다.
			●	●		
	건축 요 소	위계탈피				
		형태적 불연속				
		상징성적 다원성				
공간 요 소	복잡성,다중성					
	분절과 재결합					
	프랙탈 구조					
특 징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덴마크 서부 해안의 오래된 역사를 담고 있는 티르피츠 뮤지엄. 콘크리트 병커 구조물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경관에 위장되고 절개된 지하의 보이지 않는 박물관은 지층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다. 티르피츠 박물관의 나지막한 자태는 전쟁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요소인 전이적 메모리일이 강하게 들어 나며, 상처의 터에서 희망적 장소로 변환한 가장 좋은 기호학적 메모리일 사례이다.					

4.4.4 노근리평화기념관 (Nogeulli Pyeonghwa Museum)



<그림 4-29> 노근리평화기념관 전경

노근리평화기념관은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가 이상진, 이종호, 우의정으로, 2013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은 건축물이다. 대지면적 132,240㎡, 건축면적 922.17㎡, 지상 2층, 지하 1층, 외부마감은 노출콘크리트, 내후성 강판, 투명복층유리로 되어 있다.

과거 노근리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의 넋과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동시에 희생된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우리 근대사의 가려졌던 과거를 올바르게 재평가 기록하여 노근리사건의 진실을 국민에게 바르게 알리는데 의의가 있으며, 인권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의 산 교육장을 건설하고자 조성되었다.

1) 주변성 및 배치개념



<그림 4-30> 노근리평화기념관 배치도

노근리평화기념관은 영동군과 노근리 지역을 상징하는 공원을 계획으로 국제적인 평화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노근리에 기념관과 위령공간을 배치하였다. 노근리 사건장소의 역사적 보존 및 복원과 사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역사교육 및 체험의 공간으로 역사교육의 장으로 형성되었다.

평화 공원 내에는 방문자센터, 평화 기념관, 위령탑, 조각공원, 사건현장(쌍굴), 전망대, 평화기원마당, 야외전시장, 교육관으로 조성되었으며, 기념관은 복합건물로 공원의 주제성을 부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상설전시실 및 영상실 등을 포함하며 위령탑과 연계하여 노근리 평화공원의 랜드마크적 기능을 담당한다. 노근리평화기념관은 추모의 방, 고통의 벽, 평화의 샘으로 3가지의 테마가 건축과 함께 그 목적성을 표현하고 있다.

2) 공간구성 및 전시설계

공간구성으로는 1단계 진실조명 및 과거사 이해와 2단계 사회적 관심 확대 즉, 전쟁의 아픔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3단계 인간존중과 평화의식 고취에 그 의의가 있다.

전시목적은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표명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 전시목적을 세웠다. 내부로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공간의 영상관으로 노근리 사건이 갖는 의미와 향후 노근리의 과제를 전달한다. 노근리 사건의 배경 및 상황을 복합매체로 연출하여, 입체적 요소 부여로 아픔이 서린 기억의 조각이라는 공간을 만난 뒤, 희생자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과거와 현재를 연계시켜주는 공간으로 파란 하늘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다. 지상 1층에는 전이공간으로 휴게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전쟁 법에 관한 공간으로, 사건 발생 이후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모습을 모듈형태로 전시한 ‘기억의 고리가 세상에 알려 지다’의 주제전 공간이 나온다. 그리고 평화네트워크의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애도의 공간을 지나게 된다. 기획전시실은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다.

3) 조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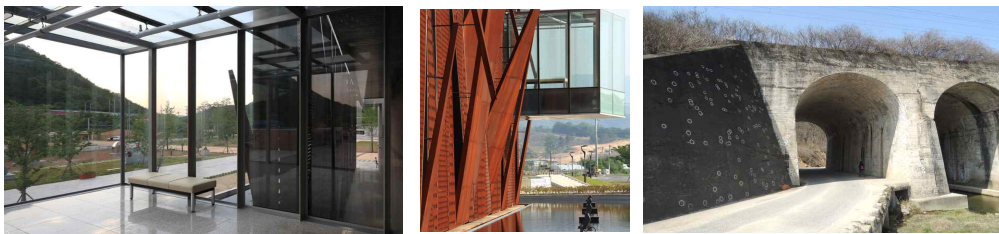
다양한 수단으로 도착한 방문객들은 낮은 천장을 가진 게이트에 서게 된다. 오른 편에 이어지는 벽을 따라 나아가면 반사연못에 둘러싸인 박물관을 만나게 된다. 벽을 따라 수면 아래로 점차 내려가면, 영상이 있는 공간과, 전시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전시공간에 들어서면 ‘사실(fact)’에 입각하게 되는데, 개전 초기의 상황들, 군사적 기록, 피난 또는 강제 소개령 등의 순서로 영동읍의 주민들이 겪은 사건 직전의 상황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노근리 사건의 사실 현장인 쌍굴 다리의 공포와 고통을 복원하는 어두운 통로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전시공간을 만나는데, 갑자기 공간의 반전이 있으며, 공간이 굴절되고 밝아지며 오르는 계단이 나온다.



다시 전시공간으로 집단기억으로 나아가려는 노근리 사건을 지켜보는 공간이다. 사건을 사건 화시킨 모든 노력들이 전시된다. 그리고 현대의 전쟁 속에 스러져 간 여러 나라, 여러 민중들이 기록된다. 전시공간을 나서면 위층으로 연결된 계단은 ‘유족의 방’으로 마련되어 있다. ‘유족의 방’은 바깥으로 돌출되어 노근리 사건의 현장을 한눈에 조감 시킨다. 이는 유족들의 고통을 표현한다.

출구를 나서면 다시 물과 대면한다. 그러나 물과의 사이에는 시선을 가르며 갈라지고 뚫린 고통의 벽이 서 있다. 이 벽을 따라 걸어가는 시선 끝에 조형물이 놓인다.



<그림 4-31> 추모의 방내부, 외부모습, 외부 쌍굴 다리

지나온 기념관보다, 그리고 맥없이 서 있을 조형물보다 더욱 생생한 사건의 현장이 앞에 있다. 광장의 포장은 국도 사호선의 일정 범위까지 연장되어 현장으로 이끈다. 철길, 웅벽의 탄흔들, 쌍굴 다리의 바란 벽들 그리고 그 너머의 무상한 자연이 최후의 기념관으로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4)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150명이 죽었다. 13명이 실종되었으며 55명이 부상을 당해 장애를 갖는다. 그것은 1950년 7월 26일에서 29일까지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기록이다. 터널에서 3일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있었고 그들의 삶과 죽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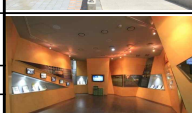
나났다. 반세기가 넘었지만, 아무도 책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진실을 찾을 수 없었으며, 사건이 일어났지만 어디에도 그 단서를 찾을 수 없어 은폐되어 있었다.

공동기억으로 일반인에게 나타난 것은 유족의 기억 때문이었다. 그들의 활동은 공동기억으로부터 행해졌으며, 역사적 진술의 일부가 드러나면서부터, 노근리 사건은 역사의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공식 역사에 대한 기억을 ‘반(反) 기억’이라고 한다. 반(反) 기억은 모든 개인과 분열된 기억의 활동이며, 제도 화될 추억에 개입하려는 기억이다. 이 기념비는 기념비적인 기념비와 기념물로 공식 기념 체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기억이다. 특히 신체에 찍힌 경험, 그들이 지금 그 종류의 기억을 경험할 때 그 순간에 느끼는 공간성이 더 중요하다. 노근리 사건의 공동기억 과정은 진보적이다. 박물관, 추모사건 및 사건 장면(쌍둥이 터널 주변)은 지역적, 의미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평화 기념관은 왠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진보적이지만 건물의 외소함과 줄거리의 전시효과가 약하게 느껴진다.

다층적 기억에서 트라우마 장소적 개념과 사건을 통한 전이가 표출된 뮤지엄으로 전이적 공간이 주는 평화공원의 배치와 건물 그리고 사건을 기억하는 공동 기억자들의 바람이 기념관과 위령탑 그리고 사건의 현장(쌍굴 주변)은 위치상 그리고 의미상 더없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 즉 현재의 계획안은 세 가지 요소 중 사건이 환기하는 잠재적 의미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방문자의 실제적 경험이 되어야 할 장소로서 주어진 대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몇 가지 풍경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념관은 그러한 풍경 속에 하나의 부분이 되어야 될 것이다.



<표 4-12> 노근리평화기념관 (Nogeulli Pyeonghwa Museum) 분석표

1		작품명		노근리평화기념관			
개 요	개관/위치				2013년 /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작가/유형				노근리 평화기념관은 평화공원 내에 위치해 있는 기념관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의 넋과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희생된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노근리사건의 진실을 국민에게 바르게 알리는데 의의가 있으며, 인권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되었다. 우리 근대사의 잊혀진 과거를 정당하게 재평가하고자 설립하였다.		
	이상진, 이종호, 우의정						
다층적 기억의메타포 요소				작품 이미지 및 분석 내용			
기 년 적 메 모 리 열	구 분	희상	기념	추모			노근리 평화기념관은 영동군과 노근리 지역을 상징하는 공원을 계획으로 국제적인 평화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노근리에 기념관과 위령공간을 배치하였다. 노근리 사건장소의 역사적 보존 및 복원과 사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역사교육 및 체험의 공간으로 역사교육의 장으로 형성되었다.
	건 축 요 소	모뉴먼트				살아남은 자의 기억으로 당시 잊혀진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여 현장의 보존과 평화적 상징물로 노근리의 기념관으로 조성하였다.	
		기념비					
	공 간 요 소	유적지재구성				박물관, 추모사건 및 사건 장면 생동터 터널 주변의 배경을 재구성 하였다.	
		순환동선, 송고미				전쟁의 아픔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그 의미에 스토리 전시구성은 순환동선과 송고미를 느끼게 해준다.	
연속적조소							
		장소적 확산					
전 이 적 메 모 리 열	구 분	해체	전이	진화			철길, 응벽의 탄흔들, 쌍굴 다리의 비란 벽들 그리고 그 너머의 무상한 자연이 최후의 기념관으로 방문객을 유도하여 장소적 전이 과정을 보여준다. 사건적 장소와 기념관의 연결고리, 후세에 알리고자 하는 흐름은 터널, 터, 건축의 세 가지 고리를 엮어준다.
	건 축 요 소	조형성 실험성				출구를 나서면 다시 물과 대면한다. 물과의 사이에는 시선을 가르며 갈라지고 뚫린 고통의 벽이 전체적 매스에 표출되어 진다.	
		Organization					
	공 간 요 소	시각적 메모리					
		중첩, 화전, 복합					
가상, 추상 통합							
		비대칭, 탈구조				고통의 어두운 통로를 지나 전시공간을 만나는데, 갑자기 공간의 반전이 있으며, 공간이 굴절되고 밝아지며 오르는 계단이 나온다.	
기 호 학 적 메 모 리 열	구 분	다층	재 결합	다원 기호			평화 공원 내에는 방문자센터, 평화 기념관, 위령탑, 조각공원, 사건현장(쌍굴), 전망대, 평화기원마당, 야외전시장, 교육관으로 조성되었으며, 기념관은 복합건물로 공원의 주제성을 부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건 축 요 소	위계탈피					
		형태적 불연속					
	공 간 요 소	상징성적 다원성				노근리평화기념관은 추모의 방, 고통의 벽, 평화의 샘으로 3가지의 테마가 건축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복잡성, 다중성					
분절과 재결합				전시공간을 벗어나면 계단은 위층에 바깥으로 한껏 돌출되어 노근리 사건의 현장을 한눈에 조감시킨다.			
		프렉탈 구조					
특 징		다층적 기억에서 트라우마 장소적 개념과 사건을 통한 전이가 표출된 뮤지엄으로 전이적 공간이 주는 평화공원의 배치와 건물 그리고 사건을 기억하는 공동 기억자들의 비움이 기념관과 위령탑 그리고 사건의 현장(쌍굴 주변)은 위치상 그리고 의미상 더없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 즉 현재의 계획안은 세 가지 요소 중 사건이 환기하는 잠재적 의미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방문자의 실제적 경험이 되어야 할 장소로서 주어진 대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몇 가지 풍경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념관은 그러한 풍경 속에 하나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4.3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종합 분석

		1.아크로폴리스 뮤지엄			2. 파블로프 고고학 박물관			3. 니메스 로마티니 박물관			4. 전곡선사박물관			5.내셔널 9.11 메모리얼 & 뮤지엄			6.독일 드레스덴 군사 박물관		
		회상	기념	추모	회상	기념	추모	회상	기념	추모	회상	기념	추모	회상	기념	추모	회상	기념	추모
기념적 메모리얼	구분		●			●		●	●			●			●	●		●	
	건축요소	모뉴먼트		●	모뉴먼트		●	모뉴먼트			모뉴먼트		●	모뉴먼트		●	모뉴먼트		●
	공간요소	기념비			기념비			기념비			기념비			기념비		●	기념비		
		유적지 재구성		●	유적지 재구성		●	유적지 재구성		●	유적지 재구성		●	유적지 재구성		●	유적지 재구성		●
		순환동선, 송고미			순환동선, 송고미			순환동선, 송고미			순환동선, 송고미			순환동선, 송고미		●	순환동선, 송고미		
		연속적 조소		●	연속적 조소			연속적 조소		●	연속적 조소			연속적 조소			연속적 조소		
전이적 메모리얼	구분	해체	전이	진화	해체	전이	진화	해체	전이	진화	해체	전이	진화	해체	전이	진화	해체	전이	진화
	건축요소		●			●	●			●		●	●		●				●
	공간요소	조형성 실험성			조형성 실험성		●	조형성 실험성			조형성 실험성		●	조형성 실험성			조형성 실험성		●
		Organization			Organization		●	Organization		●	Organization		●	Organization		●	Organization		
		시각적 메모리		●	시각적 메모리			시각적 메모리		●	시각적 메모리			시각적 메모리		●	시각적 메모리		●
		중첩, 회전, 복합		●	중첩, 회전, 복합			중첩, 회전, 복합			중첩, 회전, 복합			중첩, 회전, 복합			중첩, 회전, 복합		
기호적 메모리얼	구분	다층	재결합	다원적기호	다층	재결합	다원적기호	다층	재결합	다원적기호	다층	재결합	다원적기호	다층	재결합	다원적기호	다층	재결합	다원적기호
	건축요소	●					●	●					●		●	●		●	●
	공간요소	위계탈피			위계탈피			위계탈피			위계탈피		●	위계탈피			위계탈피		●
		형태적 불연속			형태적 불연속		●	형태적 불연속		●	형태적 불연속		●	형태적 불연속		●	형태적 불연속		
		상징성적 다원성		●	상징성적 다원성		●	상징성적 다원성			상징성적 다원성		●	상징성적 다원성		●	상징성적 다원성		●
		복잡성, 다중성			복잡성, 다중성			복잡성, 다중성			복잡성, 다중성			복잡성, 다중성			복잡성, 다중성		
	공간요소	분절과 재결합		●	분절과 재결합		●	분절과 재결합		●	분절과 재결합		●	분절과 재결합		●	분절과 재결합		
		프랙탈 구조			프랙탈 구조			프랙탈 구조			프랙탈 구조			프랙탈 구조			프랙탈 구조		●

<그림 4-33>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분석표 - 12가지

<그림4-33>, <그림4-34>과 같이 12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표현요소에서는 뮤지엄의 역사와 건축 의도가 강한 기념의 모뉴먼트, 진화, 다원적 기호가 많이 나타났다.

기념적 메모리얼에서는 유적지 재구성, 장소적 확산이, 전이적 메모리얼에서는 조형성 실험성과 시각적 메모리, 비대칭, 탈구조의 요소가, 기호학적 메모리얼에서는 상징성적 다원성, 공간의 분절과 재결합의 요소가 가장 많이 표출되었다

		7. 흑인역사박물관			8. 제주 4.3평화기념관			9. 슈체친 국립 박물관 분관			10.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			11. 티르피츠 박물관			12. 노근리평화기념관			총 합		
		회상	기념	추모	회상	기념	추모	회상	기념	추모	회상	기념	추모	회상	기념	추모	회상	기념	추모	회상	기념	추모
기념적 메모리얼	구분		●			●	●		●			●		●	●				●	2	11	3
	건축요소	모뉴먼트		●	모뉴먼트		●	모뉴먼트		●	모뉴먼트		●	모뉴먼트		●	모뉴먼트		●	10		
		기념비			기념비			기념비			기념비			기념비			기념비			1		
		유적지 재구성			유적지 재구성			유적지 재구성	●		유적지 재구성	●		유적지 재구성	●		유적지 재구성	●		9		
	공간요소	순환동선, 송고미		●	순환동선, 송고미		●	순환동선, 송고미		●	순환동선, 송고미		●	순환동선, 송고미		●	순환동선, 송고미		●	5		
		연속적 조소		●	연속적 조소			연속적 조소	●		연속적 조소			연속적 조소	●		연속적 조소		●	2		
전이적 메모리얼	구분	해체	전이	진화	해체	전이	진화	해체	전이	진화	해체	전이	진화	해체	전이	진화	해체	전이	진화	해체	전이	진화
	건축요소		●	●			●	●		●			●		●	●		●	●	1	7	9
		조형성 실험성		●	조형성 실험성		●	조형성 실험성		●	조형성 실험성		●	조형성 실험성		●	조형성 실험성		●	8		
		Organization			Organization		●	Organization		●	Organization		●	Organization			Organization			7		
		시각적 메모리	●		시각적 메모리	●		시각적 메모리	●		시각적 메모리	●		시각적 메모리	●		시각적 메모리	●		9		
	공간요소	중첩, 회전, 복합			중첩, 회전, 복합		●	중첩, 회전, 복합			중첩, 회전, 복합		●	중첩, 회전, 복합		●	중첩, 회전, 복합		●	2		
기호적 메모리얼	구분	가상, 추상 통합			가상, 추상 통합			가상, 추상 통합	●		가상, 추상 통합	●		가상, 추상 통합	●		가상, 추상 통합	●		3		
		비대칭, 탈구조	●		비대칭, 탈구조			비대칭, 탈구조			비대칭, 탈구조			비대칭, 탈구조			비대칭, 탈구조		●	7		
	건축요소	다층	재결합	다원적기호	다층	재결합	다원적기호	다층	재결합	다원적기호	다층	재결합	다원적기호	다층	재결합	다원적기호	다층	재결합	다원적기호	다층	재결합	다원적기호
		●			●			●			●			●			●			5	4	7
		위계탈피		●	위계탈피		●	위계탈피		●	위계탈피		●	위계탈피		●	위계탈피		●	6		
	공간요소	형택적 불연속			형택적 불연속			형택적 불연속		●	형택적 불연속	●		형택적 불연속	●		형택적 불연속	●		2		
기호적 메모리얼	구분	상징성적 다원성	●		상징성적 다원성	●		상징성적 다원성	●		상징성적 다원성	●		상징성적 다원성	●		상징성적 다원성	●		11		
		복잡성, 다중성			복잡성, 다중성		●	복잡성, 다중성		●	복잡성, 다중성		●	복잡성, 다중성		●	복잡성, 다중성		●	2		
		분절과 재결합	●		분절과 재결합	●		분절과 재결합	●		분절과 재결합	●		분절과 재결합	●		분절과 재결합	●		10		
	공간요소	프랙탈 구조			프랙탈 구조			프랙탈 구조			프랙탈 구조			프랙탈 구조			프랙탈 구조			1		

기념적메모리얼 전이적메모리얼 기호적메모리얼

<그림 4-34>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종합 분석표 12가지

12가지의 사례조사를 통해 기념적 메모리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장소의 확장선이 전이적 혹은 기호학적으로 건축과 공간으로 확산 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과거 정치적·사회적 이념으로 획일적인 부분이 많았다면 현대에서는 역사의 장소에서 단절된 공간이 개방과 새로운 공유의 목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다층적 기억의 개념에서 밝힌바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력의 기억에서 해체, 전이, 변형, 외곡이 전이과정을 통해 기호학적 메시지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념적 메모리얼의 사례에서도 가장 최근 2018년도에 지어진 니메스 로마티티 박물관은 회상적 기념공간에서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창의적 건축물로서 건축의 표현방법, 자연과 주위의 조화방법, 시민들의 공유공간 등이 진화해가는 표현에 있어 알 수 있었으며, 국내의 전곡선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구석기유물의 과거 기념적 장소 형태가 현 시대에 전이되어 유기적 형태를 포함한 건축적 표현으로 건축과 풍경을 혼합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으로 바뀌고 있었다.

즉, 기념적 메모리얼의 기념, 회상, 추모의 장소적 기억의 고유한 성격을 지키면서 유적지의 재구성과 장소적 확산이 건축표현에서 진화와 기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이적 메모리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건을 통한 기억의 전이가 표출된 국외사례인 내셔널 9.11 메모리얼 & 뮤지엄과 흑인역사박물관과 국내사례인 제주4.3평화 기념관 같은 경우 메타포 요소인 진화의 과정에서 조형성 실험성과 시각적 메모리, 비대칭, 탈구조의 요소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사건의 집단적 경험이 현 시대에서는 경험에 의한 간접체험이 아닌 창의적 공간으로의 확대로 바뀌고 있으며, 초월적 감성 대입으로 직접 체험하여 집단적 경험의 전이에 중요한 교육적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즉, 전이적 메모리얼 역시 사건에 의한 표현요소가 기념적·기호학적 메모리얼의 요소를 포함하여 그 표현요소가 조형의 실험성, 공간의 탈구조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호학적 메모리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소와 사건의 전이가 건축과 공간에서 상징성적 다원성으로 공간의 분절·재결합의 요소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마찬가지로 다층적 역사와 사건적 부분이 하나의 기호로 함축적 메시지를 던지며 이는 국외사례 슈체친 국립 박물관 분관의 공유공간의 아이디어적 표현방법에서,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의 기호적 건축형태로써 티르피츠의 트라우마 장소를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의 창의적 접근방법이 기념적·전이적 표현요소를 포함하며, 이는 상징성적 다원성과 공간의 분절·재결합의 요소로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즉, 기호학적 메모리얼에서는 과거로부터 새로운 해석으로 융합·소통·조화에서 상징성적 다원성과 분절과·재결합의 요소로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다시 정리하자면, 종합분석표에서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 표현요소인 기념적 메모리얼에서는 유적지 재구성, 장소적 확산이, 전이적 메모리얼에서는 조형성 실험성과 시각적 메모리, 비대칭, 탈구조의 요소가, 기호학적 메모리얼에서는 상징성적 다원성, 공간의 분절과 재결합의 요소가 가장 많이 표출되었다.





Study on Analysis of Expression Elements of Multi-layered
Memory in the Memorial Museum Space

5장

결 론





5.1 연구의 결론 및 의의

분석표에 의해 분석한 결과 기념적 메모리얼에서는 모뉴먼트, 유적지 재구성, 장소적 확산의 요소가 많이 나타났으며, 전이적 메모리얼에서는 조형성 실험성, 시각적 메모리 요소가, 기호학적 메모리얼에서는 상징성적 다원성, 공간의 분절과 재결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바탕으로 다층적 기억의 분석표에 의한 사례조사에서 메모리얼 뮤지엄 표출 유형의 의미와 표현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념적 메모리얼에서는 단절된 공간에서 희망적 장소로의 탈바꿈이다.

기념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인 모뉴먼트, 유적지 재구성, 장소적 확산의 요소가 많이 나타났으며, 장소의 집단적 기억의 공감과 후대 희망적·교육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에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사례 중 로마니티박물관은 유적과 아레나(Arenas) 사이의 연결고리인 2,000년의 역사적 기억을 담고 있는 사이트로써 박물관의 건축적 창의성 및 주위 배경과의 일관성, 과거를 확장하는 고고학적 정원은 시각적 개방과 접근을 가져다주어 기념적 메모리얼에서 장소적 기억의 기념공간이다.

이 기념공간은 건축물을 통해 과거의 역사적 배경을 아트리움의 옥상정원까지 끌어올리며, 곳곳에 역사적 배경을 끌어들이어 과거와 미래의 재결합의 상징성을 보여주며, 동시적 교차점에 서게 하여 시각적 메모리를 선사 한다.

로마니티 박물관은 장소적 기념공간을 넘어 시대를 대변하는 창의적 건축물로써 건축적 표현방법, 자연과 주위의 조화방법, 시민들의 공유공간 등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에 대해 단절된 공간에서 희망적 장소로의 탈바꿈에서 좋은 사례이다.



둘째, 전이적 메모리얼에서는 집단적 경험의 공간이 창의적 공간으로의 확대이다.

전이적 메모리얼의 표현요소인 조형성 실험성과 시각적 메모리의 요소가 많이 나타났으며, 그 역할에 있어 특히 트라우마적 장소의 의미는 그곳을 찾는 이들이 회상과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초월적 감성 대입으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인식의 강화이며, 집단적 경험의 전이에 중요한 교육적 차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사례 중 911 메모리얼 & 뮤지엄은 추모와 희망의 장소를 어떻게 묶을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전이 과정이 잘 표출된 곳이다. 분리된 시간의 흔적들과 조각들 두 개의 타워를 연상시키는 시퀀스 연출과 지하 공간의 시간여행, 잃어버린 3천여 명의 생활이 현재 도시인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트라우마의 장소가 창의적인 공간 장소로 진행되고 있다.

셋째, 기호학적 메모리얼은 과거로부터 새로운 해석으로 다원적 문화융합, 소통의 공간, 조화로운 공간의 공유에 있다.

이는 기호학적 메모리얼의 상징성적 다원성과 공간의 분절과 재결합의 요소에 많이 나타났으며, 현시대의 다양한 문화와 시각의 새로운 해석과 공유에 있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사례 중 티르비츠 박물관 같은 경우 어두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거대하고 묵직한 히틀러가 지은 땅속 병커를 높고 낮음, 더위와 추위, 밤과 낮, 시간의 흐름이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새로운 장소로 탄생시켰다. 전쟁의 흔적, 실제 병커 안을 경험하면서 사건 속으로 들어가며, 체험적 경험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 병커는 창의적 공간과 실험적 공간으로 다양한 이야기로 융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병커 사이로 나오는 빛은 마치 하늘에 보내는



신호처럼 과거의 기억을 다시 새로운 기호로 해석하여 현 시대와 조화롭게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층적 기억의 메타포로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현시대의 새로운 메모리얼뮤지엄의 양산들이 그동안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으며, 현 메모리얼뮤지엄 공간분석이 가능하도록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메모리얼뮤지엄 계획에서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여, 장소적 맥락과 다양한 문화공간이 서로 공유 및 보완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창의적이고 희망적인 탈바꿈되는 공간이 교육적인 차원으로 이어지는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층적 기억의 표현요소 연구결과는 향후 추진하는 메모리얼뮤지엄에 관련 건축설계 및 공간디자인 연구, 학술연구에 있어 다양한 공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학위논문

- 이현아(2015), “다층적 기억 : 재생의 패러다임과 메모리얼 건축의 변화 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선영(2015), “다밈(Meme)적 표현특성을 적용한 현대 모뉴먼트 전시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2012), “현대 도시 내 다층적인 경계공간의 재조직을 통한 공공영역 구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자현(2010), “현대 미술의 다층적 평면구조에 대한 이론적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종현(2016), “다층적 서사구조를 이용한 정보시각화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민(2008), “다층적인 현대 도시구조에 대응하는 공공도서관 계획”,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태건(2016), “사회적 애도를 위한 메모리얼 연구 : 그라운드 제로 메모리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형근(2016), “건축적 시나리오를 통한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재구성 계획안”,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준(2016), “기억의 개념적 특성을 적용한 메모리얼 공간 디자인”,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두이(2015), “도심, 추모를 위한 건축 계획안”,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진호(2011),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 공간사고와 디자인 수법에 관한 연구 : 뮤지엄 건축에 대한 공간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택건(2016), “디지털 테크놀로지 도입 이후 변화된 프랭크 게리와 피터 아이젠만의 건축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비교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태(2016), “건축형태에 있어서의 비정형성에 대한 이미지특성 분석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 재(2015), “틀뢰즈의 ‘감각-운동 도식’의 해체를 통한 건축적 감화에 관한 연구”, 홍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영(2014), “이접적 종합과 현대건축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탈근대 건축운동과 베르나르 추미, 램 쿨하스의 건축과 개념을 중심으로”, 홍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재근(2014), “정형·비정형 건축의 유기적 이론의 적용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2017), “루이스 바라칸 건축에 나타난 전이요소에 의한 공간적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2017), “제임스 터렐의 공간연출에 나타난 경계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경(2017), “현대건축의 내부공간에 나타나는 표현특성 및 표현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 문화시설에서의 내·외부 관계성을 중심으로”, 홍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주석(2016),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로 본 현대건축의 특성 : Rem Koolhaas, SANAA, Sou Fujimoto, Peter Zumthor 사례를 중심으로”, 홍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근표(2013),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모델을 적용한 현대건축의 특성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승희(2003), “기호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전시디자인 모형 사례 연구”, 이화여대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유정(2007), “박물관 성장기분으로서의 스토리텔링 구조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명(2011), “기념과의 역사와 교육기능 연구: 백범김구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갑선(2004),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 기념비성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기념관 건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단행본 · 보고서

- 알라이다 아스만 / 변학수, 채연숙 옮김(2014),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 서민우, 서상우, 이성훈(2014), “21세기 새로운 뮤지엄건축 편집”, 기문당
- 이관석(2014), “현대 뮤지엄 건축” 열화당
- 마크어빙, 피터 세인트 존 / 박누리, 정상희, 김희진(2016),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 1001”, 마로니에북스
- 진경돈, 박종호, Rob Krier(1993), “건축의 구성론(Architectural Composition)”, 미건사
- 전진성(2015),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 도쿄 서울”, 천년의 상상
- 박길룡(2015), “한국 현대건축 평전”, 공간서가
- 서상우(2002), “새로운 뮤지엄 건축”, 현대건축사
- 태지호(2014), “기억 문화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용직(1988), “상징”, 문학과 지성사
- 전진성(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 건축과환경(2001), “New world architect”, 건축과환경
- 정부기록보존소(2003),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정부기록보존소
- 이덕화의 8명(2015), “전쟁이 문학담론과 집단기억의 재구”, 세계한국어문학회
비평숲길, 역락
- 전진성, 이재원(2009),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 최성실(2005), “근대, 다중의 나선”, 소명출판



- 김 역(2008), “유비쿼터스 기술과 환경”, 시공문화사
- 최호근(2006), “워싱턴 홀로코스트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세계의 역사기념시설”, 도서출판 오름
- 강선주(2015), “역사교육 새로 보기 : 복합의 시각”, 한울
- 연희원(2011), “에코의 기호학:미학과 대중문화로 풀어내다”, 한국학술정보
- 김병윤(2003), “현대건축과 기호학의 대화”, 스페이스타임
- 서명수(2015), “윌리엄 워즈워스의 서곡에 나타난 ‘시간의 점들’에 대한 종교·
철학적 고찰,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정기간행물

- 박희령·김역(2009), “Metaphoric Process에 의한 공간의 다층적 의미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Vol.25 No.5,
- 김주미(1997), “환경의미 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방법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지 No.10, p.34.
- 김현진(2003), “기억의 허구성과 '서사적 진실'”, 독일언어문학, 제22집
- 정근식(2006), “기억의 문화, 기념물과 역사교육. 역사교육”, 역사교육연회, 97집
- 한정선(2008), “상품화된 기억: 전후 일본의 전쟁 기억과 영화 ‘로렐라이’”,
역사비평, 봄호, 통권 82호
- 최갑수(2006), “홀로코스트와 기억의 정치적 이용”, 사회와 역사, 70집



국외문헌

K. Michael Hays (2003), “1968년 이후의 건축이론”, 시공문화사

Hans Sedlmayr 2002, “중심의 상실”, 문예출판사

Henri Bergson 2005, “물질과 기억”, 아카넷

Henri Bergson 2008, “물질과 기억: 반복과 차이의 운동”, 살림 출판사

Douwe Draaisma 2001, “기억의 메타포”, 에코리브로

Stephen Kern 2004, “시간과 공간의 가문화사”, 휴머니스트,

Aleida Assmann (2011), “기억의 공간”, 그린비



인터넷자료

위키디피아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나무위키 <https://namu.wiki/>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아키데일리 <https://www.archdaily.com/>
네이버 지식백과 <http://www.terms.naver.com>
뉴 아크로폴리스 뮤지엄 <https://www.theacropolismuseum.gr/>
파블로프 고고학 박물관 <http://www.archeoparkpavlov.cz/>
니메스 로마티니 박물관 <https://museedelaromanite.fr>
전곡선사박물관 <http://jgpm.ggcf.kr/>
내셔널 9.11 메모리얼 & 뮤지엄 <https://www.911memorial.org/>
독일 드레스덴 군사 박물관 <https://www.mhmbw.de/>
흑인역사박물관 <https://nmaahc.si.edu/>
제주4.3평화 기념관 <http://jejupark43.1941.co.kr/>
슈체친 국립 박물관 분관 <https://przelomy.muzeum.szczecin.pl/>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 <https://muzeum1939.pl/>
티르피츠 박물관 <https://vardemuseerne.dk/>
노근리평화기념관 <http://nogunri.yd21.go.kr/>





ABSTRACT

Study on Analysis of Expression Elements of Multi-layered Memory in the Memorial museum Space

Advised by Prof. Kong, Soon-Ku

Major in Architectural Design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 Urban Design

Hongik University

Cho, Jung Yun

A memorial museum is a term used as the concept in a broad sense including memorials, monuments and memorial halls. The museum architecture has driven transition and evolution of architecture with the zeitgeist reflecting religion, politics and economy, and since the type and evolution of such architecture themselves have the artistic and educational value for future generations, it can be stated that they are the mirror of collective memory of the era. Therefore, from the historic place to the place of memorial, from the place of memorial beyond the place of recollection, and at the so called place of memory, cultural meaning and social contexts are deconstructed, transferred, altered and



distorted by multi-layered memory to reveal the new aspects of the current museum architecture and space.

Memorial halls and monuments of an era continue on as a place of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in diverse semiotic artistic forms through the transition to an experiential and hopeful place of the history of the country and the spatial time of the nation.

However, while tangible elements by multi-layered memory appear in modern memorial museums, they are not organized systematically, and new mass production leads to meaningless architectural transformation with unknown forms, and thereby ruins the historic contexts of the places, which are changing into meaningless educational spaces. In order for the places in such new mass production to keep the historic significance and become the space of hopeful education in the sense of commemoration of the place and education, expression elements from multi-layered memory need to be systematically analyzed.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udy to address such an issue i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a memorial museum in the future to accord with its own purpose.

For the analysis of expression elements of multi-layered memory that appear in memorial museums in this study, firstly, common architectural and spatial expression elements of modern museums were classified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relevant literature. Secondly, these elements were classified into monumental,



transitional and semiotic elements, which were the metaphoric elements of multi-layered memory, and each element was defined. Thirdly, architectural expression elements and spatial expression elements were again classified, and an analysis table was created.

In the analysis of metaphoric expression elements of multi-layered memory, a cultural form, remembrance, appeared through memory behaviors, recollection and commemoration, in the monumental memorial while memory behaviors appeared as a cultural form, evolution, through deconstruction and transition in the transitional memorial. In the semiotic memorial, memory behaviors created a cultural form of pluralistic semiotic expressions through multi-layer and symbols.

The museums where the collective memory of locational history has been displayed and those where the transition of memory has been made through events were selected for a case study. Thus, 8 cases from abroad and 4 cases from Korea from 2009 to 2018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12 cases, it is considered that elements of monumental memorial, transitional memorial and semiotic memorial act as important factors in the current memorial museums, and thus, can be utilized ac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t the time of their establishment.



The analysis table showed that there were many elements of monuments, historical site reconstruction and locational spread in the monumental memorial while many elements of form experimentation and visual memory were shown in the transitional memorial. In the semiotic memorial, symbolic pluralism, spatial segmentation and recombination were shown most frequently.

Based on these results, the meaning and expression elements of the types of memorial museums in the case study by the analysis table of multi-layered memor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monumental memorial, the transition of a disconnected space to a hopeful place takes place. Many expression elements of monumental memorial such as monuments, historical site reconstruction and locational spread were found, and these should be actively used in lifting the memorial museums to the level of the empathy of collective memory and education of future generations.

Of the cases, the Romanité museum is a site containing 2,000 years of historical memory, which is a link between the ruins and the Arenas. The museum's architectural creativity, consistency with its surrounding background and its archaeological gardens expanding the past bring visual openness and access, transforming the museum into a monumental space for locational memory in the monumental memorial. This monumental space bring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ast to the rooftop garden of the atrium through the building.



and shows the symbolism of past and future recombination by drawing in the historical background everywhere. Furthermore, it gives visual memory by standing at a simultaneous intersection. The Romanité museum is a creative building that represents the era beyond the locational monumental space, and thus, it is a good example as transition from a disconnected space to a hopeful place with respect to how to express architectural style, harmonization with nature and surroundings and the shared space for citizens.

Second, in the transitional memorial, the space of collective experience is expanded into the creative space. Highly frequent occasions of expression elements of the transitional memorial such as the experimentation of forms and visual memory can be seen. For its role, particularly in the sense of a traumatic place, it is necessary to return to the problems related to the history and place in order to go back to the time of recollection since the memories and the viewpoints of those who visit the place are different. What is expected for the place of recollection is the strengthening of awareness by direct experience through substitution of the transcendental emotion given by information, which is carried out as the educational level that is important for the transition of collective experience.

Of the cases, the 911 Memorial & Museum is a place that has expressed well how to combine places of remembrance and hope



while repainting light and dark, and past and present in a single space. The traces and fragments of the separated time, the sequence display of the glass pavilion that reminds two towers, time travel of the underground space, and the lives of the 3,000 lost people continued by the citizens of the present result in transition of the traumatic place to a creative space.

Third, the semiotic memorial is new interpretation from the past, which lies in the sharing of pluralistic cultural convergence, communication space and harmonious space. These appear frequently in the elements of semiotic pluralism, and the segmentation and recombination of spaces in the semiotic memorial, and should be actively utilized in new interpretation and sharing of diverse cultures and viewpoints of the present age.

In the case of Tirpitz Museum, a huge and heavy underground bunker with a dark cultural heritage built by Hitler was recreated as a new place with stories of high and low, hot and cold, night and day, and the flow of time. The traces of war and the stories of those who were hurt by the war make people enter into the event while experiencing the actual bunker, and feel realistic experiences. Moreover, the light radiating between the bunkers is interpreted as a new symbol of the past memory as if it is a signal to the sky, and harmoniously shared with the present era.



In this study, the results analyzed as the metaphor of multi-layered memory show that mass production of new memorial museums has shared the trends of influence of the expression elements of multi-layered memory on culture, and derived the practically relevant constructs that enable the spatial analysis of current memorial museum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locational context and various cultural spaces are shared and complemented with each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in the memorial museum plan.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play an instrumental role in the transition of creative and hopeful spaces to the educational level.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on expression elements of multi-layered memory can present various spatial plans for architectural and space designs, and academic studies related to the future memorial museum.



감사의 글



